

원격수업으로 만난 미래교육 이야기

코로나-19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교육공동체의 성장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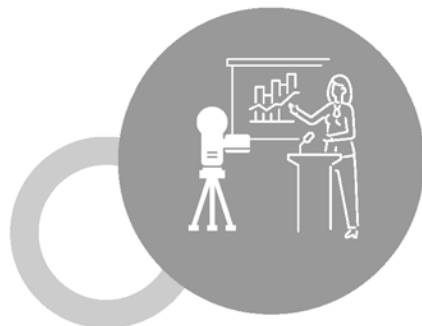


목차

C O N T E N T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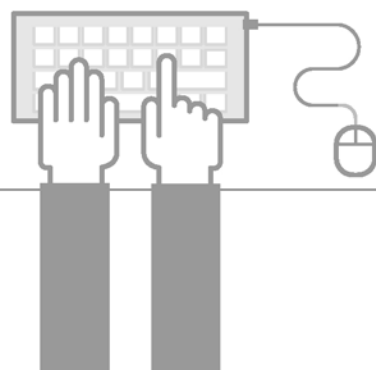
I. 시작하며 01

- 002 번개특강1,2,3...
- 004 선생님의 고단함에 교감(交感)하는 교감
- 008 '참 공부'를 가르치는 '참 선생'님들!



II. 교사 13

- | | | | |
|----|--|----|----------------------------------|
| 14 | 빛나는 도전·원격수업 | 57 | 언택트(Untact) 시대, 그래도 컨택트(Contact) |
| 22 | “소곤소곤 왓지떨” 교실과 랜선에서 함께하는
효동초 블렌디드 수업 | 63 | 신규교사의 원격수업 적응기 |
| 24 | 코로나-19 속에서 발견한 배움의 희망 발자국 | 66 | 신규교사, 온라인 수업의 닳을 올리다 |
| 27 | 〈ONE-TACT(on-e-contact) with Hand in Hand〉 | 69 | 무모한 도전이 내게 준 감동 |
| 31 | 원격수업! 그 새로운 도전과 아쉬움,
그리고 고마움 | 73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실패와 회복적 교육 |
| 34 | ‘온라인 수업’의 격동기 2020년,
그 속에서 신규교사가 살아남는 법 | 79 | 온라인수업과 공교육 그리고 퍼실리테이터와 교사 |
| 38 | 온라인수업, 위기를 기회로~!! | 81 | 두려움의 길 |
| 41 | 나는 컴퓨터가 싫다 | 83 | 궁즉통(窮即通) |
| 46 | 6학년 1반의 추억, 오늘도 이렇게 만드는구나... | 85 | 좌충우돌 코로나-19 바이러스 저항기 |
| 49 |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2020년 정보부장의 한 해 | 87 | 고맙습니다. (feat. <별 헤는 밤>) |
| 53 | 화면으로 만나는 마스크 속 얼굴이 반갑구나 | 89 | 흰 천과 바람이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
| 55 | 쌍방향 원격수업 | 90 | 新於智로 Synergy를-코로나-19의 선물 |
| | | 94 | 잊지 못할 2020년! |
| | | 98 | 현실로 다가온 미래 교육 |



원격수업으로 만난 미래교육 이야기

III. 학생 101

- 102 줌 클래스, 등교
- 103 변신하는 우리집
- 104 온라인 수업의 장점과 단점
- 106 원격 수업
- 107 학교를 매일 가는 날이 오길
- 108 1년동안 바뀐 우리 삶
- 109 온라인 원격수업 & 줌 수업을 한 나의 소감
- 111 코로나19가 나에게 준 능력과 과제
- 113 원격수업 체험 후기
- 116 우리 모두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원격수업
- 117 좌충우돌 원격 수업 성장기
- 119 내가 바로 1세대 학생이다!
- 121 나의 코로나 성장기
- 123 혼자서도 잘해요, 나의 원격수업 성장기
- 125 2020년이 안겨준 커다란 숙제
- 127 10년 뒤의 나에게
- 129 공유 모자를 쓴 물고기 두 마리
- 132 나의 소망이 절망이 된 오늘
- 133 모두가 처음인 온라인 수업
- 135 코로나 19로 인해 바뀐 학교생활
- 137 첫 만남의 향기
- 140 좌우충돌 나의 원격수업 생활
- 144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 146 코로나19 원격수업 체험수기
- 148 코로나19 사태는 어쩌면 기회일 것이다.
- 150 미래의 원격수업

IV. 학부모 153

- 154 엄마, 쏜! / 변화의 시대를 공부한다
- 158 피할 수 없으면 방법을 찾고 즐겨라!
- 161 부끄럼 많은 딸의 첫 원격수업
- 164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힘 “가족”
- 167 우리의 ‘코로나-19 뉴노멀’
- 169 원격수업은 처음이지?
- 171 아이를 키우며 마주한 온라인 수업
- 173 다섯둥이의 코로나-19 적응기
- 175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 코로나-19...
- 178 그 날
- 179 포스트 코로나-19를 기다리며
- 181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183 코로나-19로 인해 일찍 맞이하게 된 내 학창 시절 꿈꿔보았던 온라인 수업! 학부모로서의 나의 생각과 반성!
- 186 우리 이쁜딸 민지야
- 189 학부모 원격수업 체험 후기
- 191 극한직업

V. 그림으로 만나는 원격수업 193

이경서/ 은현초 4학년 최우진, 6학년 한유진/
 신흥초 5학년 박세정, 명수빈, 이정민/
 반송중 1학년 한은교/ 하성주, 2학년 한민주, 이정연
 하성중 2학년 최혜원, 3학년 신가원/ 통진고 2학년 신가인

VI. 동영상으로 만나는 원격수업

'경기교사온TV' 유튜브 채널에 탑재
 부천 헤림학교 원격수업 이야기
 슬기로운 원격수업 신규교사 일기

‘원격수업으로 만난 미래교육 이야기’는

코로나-19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에서의 원격수업 경험을 기반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감하고 성장해나간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원격수업 운영과정에서 경험하게 된 실패와 갈등, 희망과 감동 등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원격수업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I부에서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이라는 낯선 과제를 만난 선생님들의 어려움과 극복과정을 응원하는 교장·교감 선생님의 따뜻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육 환경의 변화를 기회로 생각하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믿음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교장·교감 선생님들의 마음을 대표하여 전해드립니다.

II부에서는 막막하고 두려움이 가득했던 원격수업, 믿기지 않게 ‘먼저 온 미래’를 맞이하면서 끊임없는 도전으로 스스로 성장하고 동료와 함께하는 배움으로 교사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되기까지 선생님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수업으로 존중받으셔야 할 우리 선생님들은 미래 교육의 희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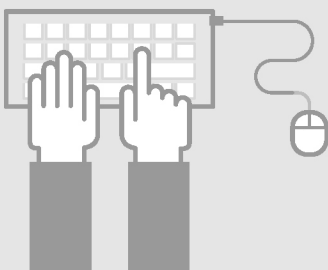
III부에서는 원격수업의 경험을 통해 학교와 선생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삶에 대한 상상과 함께 미래형 수업에 대한 당당한 제안을 하는 학생들의 성숙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만들어가면서 삶의 주인이 되는 자랑스러운 우리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IV부에서는 가족의 일상을 바꾸어 놓은 코로나-19, 원격수업으로 아이들과 함께 좌충우돌 적응과정을 거치면서 함께 성장하는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놓치지 않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진정한 미래교육의 주체입니다.

V부에서는 그림으로 만나는 원격수업을 담았으며, VI부에서는 동영상으로 만나는 원격수업을 소개하고 ‘경기교사온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영상을 공유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학생·학부모가 미래교육을 만들어가는 교육 주체로서 존중받고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원격수업으로 만난 미래교육 이야기’를 만들고 함께 나눕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





코로나-19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교육공동체의 성장스토리

원격수업으로 만난 미래교육 이야기

I

시작하며



번개특강 1, 2, 3...

충의중학교 교장 최병창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교육이 성큼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지금 생각하는 미래교육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여 로봇이 학생들과 같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딥러닝(deep learning) 정도의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가 우리와 같이 살게 될 것이라는 조금은 막연한 기대 정도 뿐입니다. 미래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이전에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는 시점은 더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재에 살고 있지만 미래와의 경계선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금의 우리 교육의 현상이 바로 미래교육 또는 미래교실의 모습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완벽한 모습은 아니겠지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한 미래교육은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학교도 금년도 2월초 원격수업이라는 낯선 과제가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선생님 모두가 얼마나 난감하고 당황했는지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거기에 수시로 바뀌는 등교방식으로 선생님들은 더 혼란스럽고 힘든 수업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수업을 시작으로 그 험난한 여정에 도전했습니다. 콘텐츠 수업만으로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자신도 만족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콘텐츠 수업에 한계와 실증을 느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나오고, 출석 체크부터 수업시간 참여 확인 여부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자녀들의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정적인 문제들을 제기하며 학교에 새로운 원격수업 방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당시 학교장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학교간의 비교, 우리 학교 학년과 학급 그리고 교과 간의 비교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또 피드백을 하고 학생들이 적응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 없이 우왕좌왕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학교는 연구부를 중심으로 급히 구성된 원격수업 TF팀에서 우리 학교에 맞는 원격수업의 형태가 무엇이며 제기된 많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수회에 걸쳐 장시간 논의 하였습니다.

방과후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번개특강>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 몇 분이 자원해서 특강에 나선 것입니다. <번개특강>을 통해 원격수업이 미숙한 선생님들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서로가 갖고 있는 유익한 정보들이 하나 둘 모여 우리 학교 원격수업 모델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선 정보지만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참여하는 선생님이 초임 교사부터 원로교사까지 30여명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 시기에도 젊은 선생님들 몇몇은 실시간 쌍방향 조종례와 수업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번개특강>도 자연스레 주제가 콘텐츠 수업에서 실시간 쌍방향으로 바뀌면서 특강의 열기는 더 해갔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콘텐츠 수업에서 형식적인 출석만하고 수동적인 자세로 참여하던 학생들을 등교수업 시간과 같은 시간에 화면 앞으로 앉게 하고 비대면 수업에서 미흡했던 상호 소통과 공감하고 교감하는 기능이 향상되어 수업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실시간 조·종례로 시작되어 이어진 쌍방향 수업은 이제는 전 학년에서 온라인 수업과 등교수업과의 격차를 좁히면서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면 온라인 수업만으로 수업한 내용을 정기고사에서 평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행평가 역시 큰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종례와 수업 외에도 동아리활동, 자치활동, 주제 선택 활동, 자유 학년제 활동 등 교실 밖에서도 온라인 교육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역시 초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었으나 먼저 과감하게 시도했던 몇몇 선생님들의 용기가 계기가 되어 지금은 우리 학교의 원격수업의 질적인 향상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개특강>팀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앞으로 해야할 과제가 많이 있지만 우선은 우리 학교 역시 미래교육에 선도적으로 동참하고 있음에 뿌듯해하며 <번개특강 2.3...>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역경을 함께 이겨낸 모든 선생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선생님의 고단함에 교감(交感)하는 교감

화성반월초등학교 교감 박주철

코로나-19속 더욱 고단해진 선생님

학교는 코로나 19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 코로나-19 이전은 자유로움, 활기참, 체험학습, 모둠활동, 등교수업, 봉사활동 등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코로나 이후는 방역수칙 준수, 우울함,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원격수업, 칸막이, 손소독, 재택근무, 긴급돌봄 등이 일상화되었다. 이런 학교의 낯선 일상은 교육적인지 비교육적인지를 따질 겨를도 없이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왜냐하면 큰 재난 앞에선 재난 극복이 우선이지, 나머지는 모두 후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교육정책 발표에 학교는 분주한 가운데 일사분란하게 협의하며 가정으로 통신문을 발송해 등교 방법을 알렸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온라인 콘텐츠 제공과 쌍방향 수업에 고군분투하며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였고, 방역과 긴급돌봄을 맡는다면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발생한다는 요구를 들어야했다. 특히 선생님들은 차라리 많이 등교하는게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원격수업의 맹점은 바로 학생의 생각을 길러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설명하기 바쁘고, 그 분주함과 노력에 비해 학력의 신장은 쉽게 연결되지 않는 것이다. 초등학교는 발달단계상 구체적 조작기에 가깝다. 실제로 만지고 부딪히고 노래하고 활동하는 가운데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다. 이 과정이 생략된 교육을 학습으로 직결된다고 보면 안된다. 실제로 원격수업 후 아이들은 배운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원격수업을 하게 된 이후 학습에 가장 큰 어려움을 가진 곳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이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형식적 조작과 추상적 생각이 가능하나,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그것이 어렵다. 그래서 오랫동안 1학년 담임을 한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기본 교육 및 학교적응 문제가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과밀학급에서는 원격수업은 더욱 더 이런 점이 심각한 현실이다. 여러 명이 동시 접속하여 교사는 음소거를 누르고 학생들을 끌고 가려는 점은 학력격차 발생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이렇게 선생님 입장에선 등교수업, 쌍방향수업, 온라인 콘텐츠 관리라는 3중고를 겪었다. 하나의 등교수업을 연구하고 지도하기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선생님들의 고단함은 그렇게 일상이 되었다.

하지 못한 활동과 새로 생긴 활동에 따른 업무 재구조화

교감은 학교 중간관리자로서 교직원 복무와 업무분장을 관리한다. 이에 학교마다 코로나 19로 인해 하지 못한 일(축소, 폐지 포함)과 새롭게 생긴 일을 정리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업무가 없어지고 누군가에게는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고충과 과부하는 학교 교육력에 영향을 미치기에 업무분장 관할하는 입장에서 학생 측면과 학생 외적인 측면(학교,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분하여 본교의 활동을 정리하여 보았다.

〈코로나-19 시대 학교에서 하지 못한 활동과 새로 생긴 활동〉

구 분	학생 측면	학생 외 측면 (학교, 교사, 학부모 등 기타)
하지 못한 활동 (축소, 폐지)	입학식, 방과후 학교, 현장체험학습, 등굣길 꿈끼발표, 학예발표회, 수영교육, 합창부, 체육 대회, 학생 자치회, 도서관 이용 및 대출, 특별 실 이용 수업, 스포츠 클럽, PAPS, 재난훈련 (소방훈련), 동아리활동, 모듬학습/협동학습, 캠페인 활동, 봉사활동, 운동장 활동, 학생 평가 등	학부모총회, 학부모회 활동, 학부모 대면 상담, 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장재량휴업일, 퇴임식, 환영회 등
새로 생긴 활동 (증가, 신설)	쌍방향 수업, 긴급 돌봄, 발열체크, 건강자가 진단, 마스크 착용, 순차 등교, 이학습터 및 EBS 가입, 학생 스마트폰 과의존, 학생 비만율, 온라인 개학, 마스크 착용하며 졸업앨범 촬영 등	학사일정 변경, 열화상 카메라 도입, 학교 와이 파이존 설치, 전문적 학습 공동체 강화, 학교 방역, 마스크 배부, 교과서 드라이브 스루 배부, 학습 꾸러미 배부, 교실과 급식실에 칸막이 설치, 등굣길 거리두기, 줌 회의, 이알리미 발송 횟수 증가,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 지급, 교실 손소독 및 열측정, 확진자 동선 파악, 스마트 기기 보유 현황 조사, 돌봄강사 및 방역요원 채용, 원격수업운영위원회, 원격수업 관련 안내 및 미참석자 독려, 온라인수업 피드백, 재택 근무, 출퇴근 시간 변경, 예산 변경, 돌봄 참여 학생 일일보고, 학생부 기재 방법 변경, 학부모 비대면 총회, 상시 온라인 공개수업, 건강자가 진단 독려 등

위 표에 있는 일들은 학생 중심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교사와 관련이 있다. 즉 학교에는 교사들이 계획하거나 의논하거나, 학생들을 교육하는 일로 가득하다. 그리고 표를 잘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폐지한 일도 있고 신설된 일이 있는데, 폐지는 적고 신설이 훨씬 많아 교사 업무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불편한 진실을 접하게 된다. 그리고 폐지된 일조차 어떤 계획의 수정과 논의, 결재 과정이라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니 각각을 종합해 보면 훨씬 더 많은 업무 부담이 생긴 것이다. 학생 입장에서든 체육활동이나 현장체험학습, 동아리 활동 등 재미있는 활동은 없어지고, 마스크 쓰고 등교하여 수업하거나,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등 여러 통제거리가 많아져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일이 생겼다면, 분명 예전에 해왔던 불필요한 일은 줄이는데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일을 그대로 두고 새로 생긴 일을 추진하게 되면 업무의 과중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본교에서는 2학기에 업무 재조구조화를 실시하였다. 인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재조정 과정을 거쳤다.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중한 부분을 덜고, 또 업무가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덜어가도록 하였다. 업무 재조정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이해해주고 수용해 원만하게 적용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선생님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다.

팬데믹 시대 교감의 역할은 개인정보가 강화된 상태에서 학교 민원은 교무실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감 역시 업무는 증가하고 책임감은 커졌다. 반면 중간관리자로서 결정권은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교사나 교장처럼 독립된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며, 행정실무사와 항상 함께하면서 민원인이 드나드는 공동의 공간인 교무실에서 근무한다. 학교 전체를 보아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모두를 상대해야 하는 외로운 자리이기에 행정 10급이라는 비아냥도 듣는다. 그 가운데 학생지도에 지친 선생님들을 만날 때면 고마운 생각이 들 따름이다. 각자 맡은 학급에서 최선을 다해 맡아 지도해 주시기에 오늘도 학교는 온전하게 운영이 되고 대한민국의 교육은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선생님과 함께 수차례 고민하고 협의한 가운데, 선생님들은 큰 힘을 발휘하였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며, 시수와 진도표를 몇 번에 걸쳐 수정을 했으며,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그리고 쌍방향 수업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고군분투를 하였다. 거기에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 평가, 방역과 소독, 연수 참가,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선생님들이 고된 학교 생활을 하기에 교감 역시 그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역할이 추가되었다. 당연히 교감은 학교 교육 공동체를 존중하고 소통하며 진정한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함을 절감한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을 담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선생님들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 건설자(national builder)이며, 그 능력과 역량은 가히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들이 칭찬받고 우대받고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마음껏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자 한다. 예산이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공간이나 시간이 필요한 곳에 적극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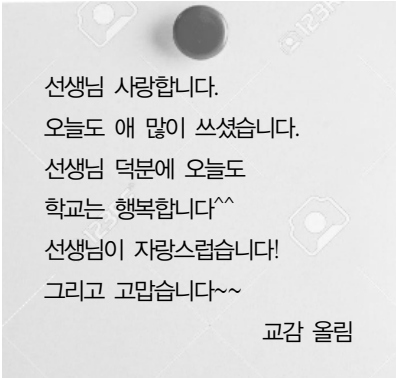
한번은 선생님에게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선생님의 입장을 믿어주고 지지해주어 선생님은 더욱 고마워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선생님은 열심히 지도하시는데 학부모는 못마땅해 하고 약점을 잡는 것이다. 듣고보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생님은 잘못이 없고 학부모는 분을 참지 못하였다. 선생님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였으며, 학부모는 직접 대면하여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 주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믿고 맡기라고 당부하였다. 과연 누구를 위한 민원인가? 진정 아이를 위한다면 선생님을 믿고 좀더 진지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면 답은 자명한 것이다. 만약 학부모에 의해 제기된 의견이나 민원에 위축된다면 과연 어떻게 당당하게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학부모는 이해하고 돌아갔으며 선생님은 안심하고 지금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계신다. 선생님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교감이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해결하도록 살필 때 학교는 진정 안전해진 교육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라 믿는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다. 교육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루어지는 것이요, 특히 초등학교는 어른인 선생님과 미성숙자인 학생이 만나 대화하고 느끼고 배우는 곳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선생님을 믿고 따르며, 선생님은 학생의 성장을 믿고 소통하며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삶의 공간이다. 선생님들은 많은 일을 수행하며 많은 사람을 만나며 그곳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 아프고 외롭다. 이 교육의 공간이 더욱 안전하고 가치있는 곳이 되도록 교장, 교감을 포함한 교육공동체는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야 할 것임을 요청해 본다.

이번 코로나-19 시국에서 오히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뉴노멀이 다시 '행복한' 일상이 되도록 기대해 본다.

나 역시 선생님의 고단함에 진정 교감(交感)할 수 있는 교감이 되길 다시금 다짐해본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도
학교는 행복합니다^^
선생님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교감 올림

‘참 공부’를 가르치는 ‘참 선생’ 님들!

장안여자중학교 교감 유동숙

우리 학교는 ‘조암의 강남’으로 불립니다. 학교가 높은 산 언덕에 위치하여 조암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물론 시내뿐만 아니라 주변의 산과 들을 모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시골에 있지만 좋은 조망과 주변의 시골 경치, 그리고 학교 뒤편을 둘러싼 겸손한 자태의 산까지, 학교의 환경적 조건이 좋습니다. 비록 도시의 학교에 비할 수 없는 시설적인 열악함을 갖고 있지만, 하루 종일 파스한 햇살이 비추는 밝은 교실과 복도는 도심의 공립학교에 비할 수 없는 우리 학교만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우리 학교를 ‘조암의 강남에 있는 학교’라고 말합니다.

우리 학교의 교정은 사계절 모두 계절적 특징을 갖추고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 교정의 아름다움은 깊이가 있어 더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만추晩秋의 교정은 가을이 깊어질수록 깊은 맛이 가득하여 참 좋습니다. 은행나무와 단풍나무는 가을 풍경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가을 교정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에게 학교의 아름다운 모습은 있는 그대로 교과서가 됩니다. 그 어떤 수업시간에도 받을 수 없는 가장 좋은 교과서입니다.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아이들에게 참 좋은 교과서가 많습니다. 아름다운 학교 정경과 주변 시골의 산과 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학교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의 발걸음 하나 하나는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참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들을 우리 학교의 ‘참 공부’를 가르치는 ‘참 선생’님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공부(工夫)의 공(工)자를 보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工夫)는 천지를 사람과 연결하는 것으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키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세계인식과 자기성찰이 곧 공부라고 했습니다. 결국 공부를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공부를 이끌어 주는 사람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가르침은 중요합니다.

훌륭한 가르침에는 교사의 정체성과 성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곧 자기

나름의 교육에 대한 신념, 철학입니다. 결국 성실함을 갖춘 교사가 나름의 자신의 철학을 바탕으로 가르침이 이루어질 때 그 가르침은 올림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의 올림은 우리 아이들의 변화를 이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험 성적의 평균점수 향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장입니다. 수치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오래도록 가르침의 올림이 되는 그런 공부입니다.

요즘은 ‘스승’이 부재하는 시대, ‘참 선생’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오랜 교직생활을 하다가 중학교로 온 나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각기 자리에서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각자 나름의 교육철학을 성실한 실천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때의 교육은 단순히 국어, 영어, 수학의 지식적인 영역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스승은 제자를 직접적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음으로 양으로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이도 또한 참 ‘스승’일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참 ‘스승’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참 공부’를 실현하고 있는 ‘참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진정성 있는 철저한 직업 철학을 일관성있게 실천하며 자신의 직업에 대한 신념과 자긍심을 보여주는 분들입니다. 말보다 실천이 앞서서 그분들의 발자취는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신참 교사나 경력교사에게도 참 ‘공부’를 시켜주는 ‘참 선생’이십니다. 30년 넘는 교직 경험의 저에게도 다시 옷깃을 여미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참 공부를 가르치며 크게는 교육의 변화, 학교의 변화를 일으키고 작게는 우리 아이들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실무사님, 조리사님, 청소 여사님 그리고 기간제 선생님. 이분들은 스스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철저한 직업관을 갖고 자신이 맡은 일에 혼신의 열정을 쏟아붓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발걸음은 결코 말이 앞서지 않는 진정성이 담겨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급식은 이미 고등학교에서도 맛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단순히 대량의 점심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떠나 우리는 늘 ‘집밥 체험’을 합니다. 직접 먹어 본 급식은 그 옛날, 우리 엄마가 해 주시던 정성 가득한 ‘따뜻한 밥 한 끼’였습니다. 세 분의 조리사님들은 모두 7, 8년 이상 우리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아이들이나 교사의 개인적인 이상 기호까지 파악하며 배려해 주십니다. 아이들 하나하나까지, 교사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모습은 단순히 학생 수나, 교사 수가 적다고 생길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특히 한여름 복더위에 일일이 깨를 볶아 양념을 준비하는 모습은 우리의 ‘엄마’ 본연의 그 마음입니다.

교무실에서 실무를 맡아보는 실무사님도 모두 7, 8년이나 되었는데, 이분들 역시 교과수업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는 않지만 ‘마인드는 이미 교사’ 그 이상입니다. 단순히 사무적 업무처리에만 잘하면 될 터인데 이분들은 초임교사들을 안내하고, 어떤 부분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교감보다 먼저 안내합니다. 실무사들의 근무 자세는 그대로 초임 교사들뿐만 아니라 경력 교사들에게도 좋은 귀감입니다. 저는 두 실무사의 평가란에 초임교사뿐만 아니라 기존 경력교사들에게도, 관리자인 저에게도 늘 모범이 된다는 설명을 반드시 합니다.

또 하나의 참 선생님은 우리학교 화장실 청소 여사님이십니다. 교감으로 출장을 다녀본 그 어떤 학교보다 우리 학교 화장실이 깨끗하다는 그런 일반적인 평가를 떠나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이미 교사 그 이상입니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마다 아이들을 위해 헌신적 열정을 보여 주십니다. 이분들에게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분들의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가식이 아니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된 그분들의 행동은 곧 그 분들의 삶의 철학이고 직업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소신입니다. 직업 철학이나 일관성은 그 어떤 언어로도 포장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적당히 한다는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고, 일관된 그분들의 실천의 발걸음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참 교과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계약 기간이 한정되어있는, 근무 기간이 한정되어있는 선생님들. 기간제선생님입니다. 34년이면 짧다고 할 수 없는 교직 생활에서 많은 기간제 선생님을 만났지만, 그분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은 처음입니다. 더구나, 전과 다르게 관리자의 입장에서 기간제 선생님들을 본다는 것은 평교사 때와 달리 더 많은 기준과 잣대로 평가할 텐데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동기부여를 받아본 적은 처음입니다.

특히 올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온라인 선도학교로서 쌍방향 줌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기에 시작부터 힘들었던 길입니다. 말 그대로 ‘개척’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연기의 가능성이 보일 때, 가장 먼저, 아이들을 핸드폰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개학연기가 발표되자, 홈페이지 과제를 올릴 때 우리 선생님들은 수업 진도에 맞춰 녹화한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내거나, 실시간으로 빈 교실에서 수업을 아이들에게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관리자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스스로 먼저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선도학교로 쌍방향 줌을 배울 때 밤을 새워 자신들이 먼저 배우고 시연해 보며 스스로 오류와

문제점을 찾고, 출근하면 함께 토의하면서 문제점과 오류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은 34년 교직 생활 동안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물론 특정 교과에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등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물론 모두 기간제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쌍방향 줌 수업을 수석교사 중심으로 해결했지만, 이분들이 없었다면 고속도로 달리듯 그렇게 순탄하게 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기간의 제한 없이 ‘참 공부’를 가르치는 ‘참 선생’님들!

나는 우리 학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실무사, 조리사, 청소여사님, 기간제 선생님’들을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34년이라는 짧지 않은 교직 생활 동안 나름 고정관념에 닫혀 있지 않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선입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감으로서 장안여자중학교에 부임하면서 저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얼마나 좁은 소견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교육의 분위기는 권위적이지 않는 우리학교 조직의 분위기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적 위엄과는 무관한 학교장의 교육철학은 교직원들에게 신뢰를 준 것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교직원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직원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속한 조직에서 자신들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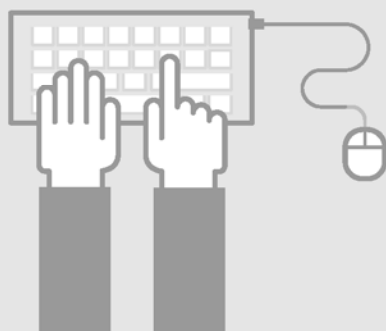
옛말에 ‘화이부동和而不同’의 ‘동同’을 강조하는 사람은 병합하여 지배하려는 획일화의 논리로 권위를 보이지만 ‘화和’의 논리는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려는 관용적인 분위기를 추구한다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和’의 논리가 우리 교직 사회의 분위기를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철저한 자신만의 직업 철학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왔고, 이런 모습 자체는 그대로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고 가르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존재 유무에 대해, 혹은 학교의 정의에 대한 회의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지금. 그래도 여전히 ‘학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은 기간의 제약 없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언어가 아닌 발걸음으로 보여주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분들이 있어 학교는 아직 아이들을 가르치는 중이고 아이들은 여전히 가르침을 받는 중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아직도 ‘참 선생’님들에 의해 진정한 ‘가르침의 울림’이 ‘참 공부’가 되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코로나-19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교육공동체의 성장스토리

원격수업으로 만난 미래교육 이야기

Ⅱ

교사



빛나는 도전 원격수업



가남초등학교 수석교사 양희순

1. 위기! 새로운 기회로

원격수업 환경을 구축하다.

2월 말 새 학기 준비를 하던 중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었다. 학생들이 등교할 날을 기다리며 수도 없이 교장실에 모여 등교 시나리오를 짜고 방역 대책을 세웠다. 그러나 전염병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갑자기 원격수업을 하게 되었다. ‘원격수업’은 학교 현장에서 말 그대로 충격과 막막함이었다.

1~2학년 EBS방송과 3~6학년의 e-학습터는 일방적인 공부나 학습을 하게 할 수는 있어도 학생 관리, 학급운영, 배움 확인, Feed-back을 주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매체가 필요했다. 원격수업 매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학년별로 원격수업 매체를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원격수업에 필요한 도구나 장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동영상 기기, 거치대, 카메라, 마이크가 하룻밤 자고 나면 가격이 올라 있었고 그나마 품절되기 일쑤여서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하루빨리 결정해서 구입해야만 했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부장 선생님들, 학년 별로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의하면서 선제적인 방어와 개선책을 내고 바로바로 실천에 옮겼다.

저경력교사를 지원하다.

원격수업으로 전환 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해보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니 혼란스러웠고 여러 방면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드러났다. 본교는 경기 북부 양주에 있다. 주변에 작은 공장들이 많아서 원격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 EBS방송, e-학습터 가입과 접속하는 방법을 여러 차례

안내해도 온라인 매체 접근이 어려워서 원격수업을 듣지 못하는 학생, 연락조차 안 되는 학생이 발생하여 학생, 선생님, 보호자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신규선생님, 저 경력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한 분씩 면담을 통해 학급 특수성과 가정 형편, 선생님 장점에 맞게 해결 방안을 찾아갔다. 학년별로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등 학급 관리가 필요한 매체를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필요할 때는 가정 방문과 학교로 오게 해서 수업과 온라인수업을 진행하는 등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갔다.

2. 수석교사 역할을 다하다

블렌디드러닝을 적용하다.

수도권 지역이 3분의 1 등교로 바뀌면서 본교는 2개 학년은 등교, 4개 학년은 온라인수업을 하는 체제로 운영되었다. 원격수업 비중이 60%로 여전히 더 많았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수업이 적다 보니 가장 염려되는 것, 부족한 것은 배움 확인이 안 되며 학습 부진이 점차 증가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블렌디드러닝의 철저한 실천만이 살길이라고 느끼던 차에 경기도교육청 배움중심수업 선도요원 자격으로 세 차례에 걸친 워크숍(24시간)에 참여하며 신속하게 참 많은 것을 배웠다.

워크숍과 연수 내용이 원격수업에 큰 도움이 될 듯하여 모든 선생님들이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수석교사로서 선생님들께 블렌디드러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역량이 길러져 무척 다행이었고 감사하다.

블렌디드러닝 수업이 성공하려면 철저한 재구성으로 등교수업에서 해야 효과적인 차시와 원격수업에서 했을 때 좋은 차시를 철저하게 가려내고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3학년 1학기 국어 7. 반갑다 국어사전 단원에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한 것을 기반으로 1~6학년까지 블렌디드러닝 적용에 적합한 수업자료를 연구하여 개발하고 보급하였다.

원격수업 플랫폼 도구 연수하다.

답답한 여름방학을 지내고 개학하면 전면 등교수업을 꿈꾸며 2학기를 맞이하였으나 또다시 전면 원격수업에 돌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온라인수업이 장기화되고 등교수업이 적어지면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소통과 관계 부재, 일방적 동영상 강의, 배움 확인 불확실, 학습부진, 의견 나눔과 Feed-back 미흡, 학생과 학부모 불만족, 수업자 역시 이중

삼중고를 겪으며 힘들고 불만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제는 블렌디드러닝을 설계하고 원격수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을 최대한 해결하는 원격수업이 요구되었다.

필자는 베이비부머 세대이자 디지털 이민 세대(아날로그적 감성을 가지고 있으며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사용)이다. 그러다보니 일방적인 온라인수업은 익숙하나 쌍방향온라인 수업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디지털네이티브 세대인 젊은 선생님들을 지원하려면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다.

쌍방향 원격수업 도전을 위하여 9월부터 학생들과 소통하는 수업 플랫폼으로 ZOOM활용 연습을 하였다. 대학 동창 3명과 ZOOM으로 만나서 서로 알고 있는 기능을 알려 주면서 익혀나갔다. 화면 공유, 화이트보드로 생각,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한 토의토론 학습 방법 등을 익혀나갔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한 선도요원 대상 블렌디드러닝 워크숍에서는 쌍방향원격수업 적용 가능한 다양한 기능과 도구들을 연수받을때 부끄럽게도 연수 순간에 늘 부진이었다. Padlet, Jambord, Classroom, 스프레드시트, 퀴즈맨, 맨티미터, 심플마인드 등 부지런히 연습하면서 큰 즐거움을 느꼈다.

3. 원격수업은 혁신이다.

온라인쌍방향 공개수업하다.

코로나-19 장기화 예측에 따른 온라인수업이 이제는 필수가 되었다. 온라인쌍방향수업의 목적은 일방적 강의 아닌 배움 확인, 생각과 의견 나눔, 수업자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소통하는 수업, Feed-back이 이루어지는 수업이어야 한다. 수업자의 온라인쌍방향수업 역량 강화 및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본교는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교사가 온라인쌍방향 공개수업을 실천하고 있다.

온라인쌍방향 공개수업 준비는 먼저 단원을 중심으로 등교수업 때 효과적으로 배울 차시와 원격수업으로 진행했을 때 더 효과적인 차시를 철저히 재구성한다. 온라인쌍방향수업 진행에 초점을 맞추어 원격수업을 준비한다. 공개수업하는 선생님은 필자의 방(수석교사실)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소통중심의 수업 내용 및 쌍방향 가능한 플랫폼과 도구들을 협의하고 필요하면 필자로부터 배운다. 이때 주의할 점은 도구들을 많이 활용하기보다는 성취기준에 준거, 수업자의 의도를 존중하여 본시 학습문제를 학생배움 중심에 맞추어 가장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수업 과정안이 완성되어 간다. 참관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수석교사, 동학년교사, 희망교사가 하며 동학년교사들 온라인쌍방향 공개수업이 모두 끝나면 개선방안 협의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 원격수업은 혁신이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사태와 함께하고 있고,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분명 학교 현장은 힘든 상황이다. 수업 준비에 큰 부담을 가져야하고, 온라인수업은 수업 내용에만 집중하게 되며, 다자녀일 경우 학부모가 교사수업의 질을 비교하여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렇듯 간혹은 원격수업의 민낯이 드러나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지만 지금은 도전 중이고 극복 중이다. 필자는 온라인쌍방향 수업은 분명 혁신(革新 · innovation)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교육경력 33년 만에 이렇게 새롭고 다양하며 급격한 변화의 수업 방식의 교육은 처음 경험하기 때문이다.

짧은 경험이었으나 온라인쌍방향 수업의 좋은 점을 찾아 나열해 보겠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IT강국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나라이며 원격수업은 앞으로도 나아갈 방향이다. 첨단 교육, 급변하는 온라인 정보의 바다 속에서 수업 내용이 정해진 교과서 틀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디자인할 수 있게 되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학교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지 않더라도 공적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음을 증명하였으며 나눔과 소통이 충분한 수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구성원 간의 따뜻한 소통으로 세계적 재난 속 인간애가 고취되면서 코로나블루로부터 고립감을 극복할 수도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는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렵거나 새로운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에게는 학생들이 있기에, 앞으로 닥쳐올 위기 때마다 동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것이다.

4. 다 함께 해결해 나가다.

원격수업 간담회하다.

본교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수석교사, 1~6학년 동학년선생님과 교장실에서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세 차례씩 18회 간담회를 가졌다.

첫 번째는 원격수업을 처음 시행하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 학년별 특성과 특색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플랫폼으로 어떤 것을 구축하고 활용할지 예산 지원을 할 것은 무엇인지 나누며 관리자가 지원해 줄 부분과 수석교사가 지원해 줄 부분을 듣고 격려와 함께 세심하게 살피고 학년과 학급에 맞춤형으로 지원하였다.

두 번째는 원격수업이 진행되던 중간(6월)에 그동안 진행하면서 발생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위의

내용에서 언급한)과 문제점들을 들춰내고 함께 의견을 듣고 지혜를 모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해 갔다. 간담회를 통해 전 교직원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일은 선생님들의 원격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세 번째는 간담회는 9월중 이루어졌는데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배움을 확인할 수 있는 수업, 의견을 나누고 Feed-back이 가능한 쌍방향 수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알맞은 플랫폼을 정하고 도구와 기능을 연수하였고, 부족한 기기들을 구입하였다.

또한 온라인쌍방향 수업을 먼저 실천하신 선생님을 초빙하여 플랫폼 활용과 학생들이 접속하여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도구들에 대하여 연수를 받고 역량을 기르게 되었다.

다 함께 협력해 나가다.

코로나-19 장기화 예측에 따른 온라인수업이 이제는 필수가 되었다. 온라인쌍방향수업의 방향은 일방적 강의 아닌 배움 확인, 생각과 의견 나눔, 수업자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소통과 나눔, 협력이 이루어지는 수업이어야 한다.

본교는 관리자와 수석교사가 적극 나서서 선생님들이 원격수업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끊임없이 대화하고 개선 방법을 찾아 해결해 주었다. 선생님 한 분 한 분 격려하고 응원해 주었으며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즉각 구입하여 보급해주었다.

학생, 학부모 역시 어려움이 있는지 항상 살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선생님들은 뛰어난 책무성과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야근을 자처하며 대면수업과 온라인수업을 원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제는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했던 원격수업에 대한 안개가 거치고 원격수업 역량이 강화되어 대면수업에서 효과적인 내용, 원격수업에서 효과적인 배움을 구분하여 블렌디드러닝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등교수업이 많아지기를 모든 국민이 바랄 것이다. 너무 더운 날, 너무 추운 날, 황사가 심하게 끼는 날, 폭우가 내리는 날, 태풍이 부는 날, 그리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일수를 좀 더 길게 잡고 그중의 일부 날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상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부록-원격수업 실제_ 신속하게 원격수업 환경 구축해 나갔다.



처음 원격수업할 때는 1~2학년은 EBS에 의존, 3~6학년은 e-학습터에 가르칠 내용에 알맞은 콘텐츠를 찾아 탑재하는 것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수학교과 만큼은 부진학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담임선생님들이 직접 동영상상을 제작하여 탑재하였다. 이에 따라 휴대폰 거치대, 마이크를 신속하게 지원하였고 점차 학생과 쌍방향 소통하는 원격수업이 요구됨에 따라 테블릿, 듀얼 모니터, 무선마이크를 구입하여 제공, 신속하게 대처해 나갔다.

신규·저경력교사 지원하였다.

본교에는 신규교사 두 명과 저경력교사가 다섯 명이 있다. 수석교사인 필자는 일대일 상담을 통해 원격수업 운영의 어려움을 듣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블렌디드러닝을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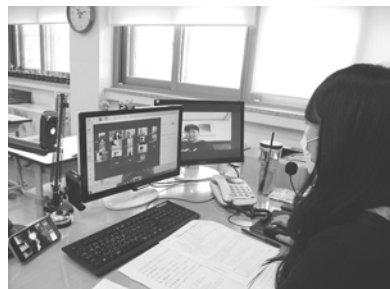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교대로 이루어지면서 효과적인 블렌디드러닝 운영이 필요하였다. 등교수업에서 효과적인 내용과 원격으로 가능한 차시를 구분하고 재구성하여 어느 플랫폼에 어떤 도구들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소통하는 수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6학년2학기 독서단원 선정도서 [붉은 실]을 블렌디드러닝의 설계하여 수업하였다. 위두랑(e-학습터) 탑재 하였다.



ZOOM.US 플랫폼을 활용하였다.

초반 원격수업에서는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등을 활용하여 주로 일방적인 원격수업이 운영 되었다. 배움과 협력하는 실시간 쌍방향 랜선수업으로 구글 Zoom활용을 하였다.

쌍방향수업 가능한 기기 구축 중요하며 Zoom은 화면공유, 댓글, 화이트보드, 소회의실 운영을 통하여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플랫폼으로 학생 참여 학습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밖에도 퀴즈앤(www.quizn.show), 카훿, 밀리미터, 클래스룸을 활용하고 있다.
전교사 온라인쌍방향 공개수업을 실천하였다.

〈온라인쌍방향 공개수업 장면 및 수업 후 나눔 장면〉



온라인쌍방향 공개수업 사전 나눔 및 수업 후 개선방안 나눔(협의) 내용입니다.

6-2 온라인쌍방향 공개수업 20 20.10.23.(금) 1교시(09:20~10:10)

나눔	일시	나눔 및 협의 내용	참석(장소)
수업 전 나눔(1차)	2020. 10. 14. 14:50~15: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향 수업의 세가지 키 포인트(목적) (소통, 피드백, 배움 확인)를 고려하여 수업 구성하기 • 수업자 온라인쌍방향 역량강화가 목적이므로 부담 갖지 않고 배운다는 마음으로 도전해 보기 • 블렌디드러닝 수업 설계 필요, 수업할 단위 철저한 재구성으로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에서 효과적인 차시 구분하여 수업해야 배움 극대화 • 수업자 활용 플랫폼과 학생들 참여 활용 도구는 등 교수업 때 미리 안내 지도, 사전에 반드시 해보기 	수석교사 6학년교사 3명 (수석교사실)

6-2 온라인쌍방향 공개수업 20 20.10.23.(금) 1교시(09:20~10:10)

나눔	일시	나눔 및 협의 내용	참석(장소)
수업 전 나눔(2차)	2020. 10. 20. 15:40~16: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향 수업에 대한 학생의 적극성을 촉진하고, 내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칭찬 적극 활용하기 • (동영상)자료 제시할 때 학습문제 해결과 관련지어 시청하는 관점 학생에게 말해주면 집중과 효과적 배움 유도할 수 있음 • <전차시 내용> 패들렛 보다는 좀 자체 채팅창을 활용하여 선생님 전체 읽어주어 시간 절약 • 또는 o/x 퀴즈 등으로 전차시 내용 떠올리기 • <활동 1> 각자 학습하기 보다는 같은 주제를 맡은 친구들과 함께 모여 협력 의논하며 배워 나가게 • <활동2> 역할과 발표순서 자세하고 정확히 안내 • 교사의 목소리가 학생에게 잘 들리는지 등 온라인 학습 환경에 대한 사전 점검 필요. 	수석교사 6학년교사 3명 (수석교사실)
수업후 개선방안 나눔	2020. 10. 23. 15:40~16:40	<p>적용하고 싶은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소그룹 활동에 익숙하여 거부감이 없고 바른 자세로 잘 참여하여 토의하며 서로 배움 • 교사 질문-학생 답변이 계속되어 쌍방향 소통하는 수업 실시간 이루어지는 것이 좋았음. • 기본 프로그램들로 혼선 없이 수업에 잘 활용함. • 채팅 기능을 통해 학생간 서로 배울 수 있음. • 의도적 조 구성이 소그룹 활동에서 도움이 됨. <p>개선할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리> 알게 된 점을 적을 때 내가 말지 않은 부분에서 알게 된 점을 적도록 다음수업에서 지도 • 플랫폼과 조사활동이 더 익숙해지면, 소그룹에서 설명할 때 자신이 조사한 자료 보여주며 진행 지도 • '교류'라는 주제에 맞게 상호 의존 관계에 대해 자세한 개념 설명 미흡 다음시간에 보강 지도.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수석교사 6학년담임3명 4학년담임3명 영어 전담교사 (6-1 교실)

“소곤소곤 왁자지껄” 교실과 랜선에서 함께하는 효동초 블렌디드 수업



효동초등학교 수석교사 김은진

코로나-19시대를 맞이하는 학교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이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출발한 조금 특별한 수업이 있다. 바로 수원 효동초등학교의 ‘블렌디드 수업’이다.

블렌디드 수업이란 역량기반 교육과정-배움중심수업-성장중심평가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성취기준과 학습내용 재구성을 통하여 온·오프라인의 맥락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 맞춤형 학습 설계 및 피드백을 강화하여 학생주도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 방법을 말한다. (경기도교육청, 2020)

효동초등학교에서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수업을 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다. 그래서 먼저 학기초 ZOOM 사용법 연수를 시작하며 교사들이 줌(ZOOM)을 통한 쌍방향 수업을 시도 하였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ZOOM에 접속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학생들도 있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 스마트 패드를 대여해 주고 사용법 연수를 하며 노력한 결과 지금은 모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온라인에서의 쌍방향 수업에 흥미를 갖고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블렌디드 수업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교장, 교감을 비롯해 전교사가 블렌디드 러닝 연구회를 조직하여 여러 가지 연구를 계속하며 블렌디드 러닝 수업 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블렌디드 수업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미래교육의 새로운 교육체제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교육체제에서 효동초 교사들은 교육과정 재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사별 교육과정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교내에서 개발한 블렌디드 수업 자료는 올해 2학기에 들어서면서 전 교사들이 동참해 수업을 바꾸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전 교사들이 동참한 블렌디드 수업은 학년별로 수석교사와 교사들이 집단 지성을 발휘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년별로 연구와 고민을 통한 블렌디드 수업안을 작성하고 수업안을 바탕으로 배움중심수업을 실시한 뒤 수업 나눔을 실시하고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6학년을 담임하고 있는 이하선 선생님은 “대면 수업에서 모듈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토의토론 수업, 학생들이 만든 결과물을 가지고 모듈별 의견을 주고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쌍방향 원격수업(ZOOM)을 통해 랜선에서 학생들이 소회의실에 모여 활발하게 토의토론을 하고, 학생들의 결과물에 대한 서로의 의견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코로나-19 시대의 한계점을 극복한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민(13)은 “쌍방향수업(ZOOM)에서 방송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대면수업에서 동아리 활동을 할 때보다 친구들의 얼굴과 몸짓도 생생하게 보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보니 마치 실제 아나운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재미있다”고 말했으며,

이동열(13)은 “단순히 온라인클래스에서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강의를 볼 때는 친구들과의 소통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줌(ZOOM) 수업을 통해 친구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서 훨씬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는 수업이 되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효동초등학교 교사들은 “브랜드 수업이 학생들에게 더 이상 지루한 시간이 아닌 왁자지껄한 웃음의 시간이 되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성장하는 수업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속에서 발견한 배움의 희망 발자국



동탄중앙초등학교 교사 허연희

우리 4반 친구들, 내일은 원격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내일은 줌에서 만나요!! 이제 우리 반 줌 수업주소는 다 외웠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지각하지 말구요.^^”

“예~!!(환호하며) 내일은 줌으로 뭐해요? (기대하는 표정으로) 이번에도 소회의실에서 회의해요??”

“야, 방금 알림장 쓸 때 이번에는 만들기 수업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

“아, 맞다! 그랬지?? 히히.. 내일은 또 다른 걸 하네?? 기대된다, 히히”

오늘은 수요일. 이번 주의 등교수업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하니 설명할 것도 많고 나누어줘야 할 학습꾸러미들도 있어서 마쳐야 할 수업시간을 넘겨서야 알림장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줌수업이 기다려진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네요. 우리 반 친구들의 기대에 찬 말 한마디에 다음 줌수업에는 또 무슨 신나는 수업을 해야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나선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점심 식사 전 발열체크를 마치고 후다닥 급식실로 내려가서 오물오물 점심 식사를 마치면서 바빴던 오전 일과를 마무리하네요. 바로 이어지는 목, 금요일 온라인학습과 쌍방향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콘텐츠 활용과 다음주 주간교육계획과 교육과정 회의... 그야말로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교육현장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조심스럽게 운영되어 가고 있던 학교의 모습도 10월 들어 학생들의 등교횟수와 등교인원이 많아지니 비로소 학교다워진 것 같아 흐뭇하면서도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네요. 17년이란 교직생활 속에서 그야말로 가장 많이 바쁘고 힘들게 달려온 2020년이지만 동탄중앙초등학교 동료 교사들과 4학년 4반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했던 시간 속에서 제가 발견한 배움의 희망 몇 가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발자국 하나.

학교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만나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매일 등교하던 때에도 학교는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겪은 2020학년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학교의 소중함에 대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교실에서 선생님이 설명해주시니까 확실히 이해가 잘 되요.” _정OO 학생

“선생님이랑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라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는 일찍 눈이 떠졌어요. 신기하죠?” _손OO학생

“요즘 한동안 OO이가 너무 말을 하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학교 갔다 온 날은 친구 이야기, 급식 이야기, 수업시간 이야기들을 신이 나서 하네요. 다행히 한시름 뉘어요, 선생님.” _이OO학생 학부모

“학생들이 없는 학교는 좀 심심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니까 엄청 바쁘기는 한데 엄청 보람차고, 직접 소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더 느끼게 되네요. 올 초에 긴 기다림 끝에 아이들을 처음 만난 날은 뭐랄까.. 신규교사로 돌아간 기분이랄까?” _김OO선생님

발자국 둘.

사-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학습형태를 지닌 미래교육을 앞당겨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규모로 볼 때, 1~6학년 전체 58학급, 학생 수는 1800여명이나 되는 대표적인 과밀 과대 학교입니다. 저희 학년은 학급당 인원이 평균 33명입니다. 이렇게 학급당 인원수가 많다보니 아무리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현하려고 노력해도 학생 개개인에게 맞춘 완벽학습을 구현할 시간과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 중심의 개별화교육과정에 대한 고민을 풀리지 않는 숙제 처럼 가지고 있던 저에게 하나의 방안을 제시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 과학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배움 내용을 정리하는 PPT를 함께 보고 배움 공책에 배움내용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혼잣말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나 아직 다 못했는데 자꾸 넘어가네. 온라인 수업할 때는 내가 이 화면 멈추고 천천히 쓰고나서 다시 틀면 되는데.. 아... 팔 아파라..(깡깡)”

잠시 아이들과 함께 온라인 수업으로 공부할 때 좋은 점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많은 장점을 이야기해주더군요. 온라인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의 속도에 맞게 수업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교과서 말고 더욱 다양한 수업 도구들도 자연스럽게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미래교육을 좀더 앞당겨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잘 활용한다면 배움의 환경과 형식이 훨씬 더 다양해질 수 있고 학생들에게 훨씬 더 자기주도적인 방법으로 배움을 이끌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발전적으로는 배움 후에 더 알고 싶은 것이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바로 찾아보고 온라인 공간에 질문을 하면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움에 주체적으로 다가설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발자국 셋.

배움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훨씬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온-오프라인 수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 매일 등교할 때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배움 목표에 따른 배움 과정을 미리 계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날은 한주 동안의 학생들의 삶을 살피고, 온라인 학습 결과물을 가지고 온 학생들에게 칭찬과 피드백을 해주고, 이번 한 주 동안 있을 수업에 대한 안내와 준비물 꾸러미를 나누어주고, 또 실제 수업을 진행하다보면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선생님들은 매일매일 모여서 일주일동안 해야 할 수업을 디자인하고, 각 교과별로 등교 수업일날 꼭 해야 하는 수업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지요. 그렇게 수십번 바뀌가며 디자인된 교육과정을 가지고 학생들의 배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하며 수업 콘텐츠를 만들고 백업하고 다음 주에 나누어줄 학습꾸러미도 준비하지요. 전학공으로 대표되는 학교내외 배움의 공동체 문화는 블렌디드 러닝 수업 상황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하며 우리 선생님들을 능동적인 배움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온라인 학습환경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주어진 학습 콘텐츠를 그냥 받아먹는 수업에서 나아가 자연스럽게 배움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모로 달라진 학습환경과 학습자에 맞춘 미래 교육을 대비하려는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고민과 그 고민의 실현 과정들은 배움의 주인이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니 올해 동료 선생님들과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했던 2020코로나상황에서의 색다른 경험들은 학습자가 자기 자신에 맞는 참배움을 경험하고 그 배움을 실천하는 삶의 주인으로 설 수 있는 또다른 방법들을 알아가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ONE-TACT(on-e-contact) with Hand in Hand



배곧해솔초등학교 교사 김일화

2020년은 나에게 20+20, 20-20로 다가왔다. 20+20=40, 교직경력 13년 차로 2년 후의 40대를 준비하며 후배 선생님들께는 모범이 되고, 선배 선생님들께는 더 열심히 배워서 교육공동체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더욱 믿음직한 교사가 되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해야 하는 해였다. 반면에 20-20=0, 13년 동안 달려오다 보니 에너지가 0으로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쳐가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나에게 더 큰 불안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기에 스스로 재정비를 해야 했다.

우선 가장 먼저 방역을 철저하게 하였다. 새로운 상황에 알맞은 습관을 다시 만들어 나가며 방역 지침을 익혔다. 또한 우리 5학년 6반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했다. 그러다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바로 ‘소통’이었다. ‘얼굴을 보지 못하면 목소리라도 듣자!’, ‘채팅으로라도 서로 소통하며 유대감을 형성하자!’라고 생각하여 바로 휴대폰 및 전화로 학부모님 및 아이들과 소통하였고,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아이들을 만났다.

원격수업이 실시되면서 e학습터로 아이들을 만났고,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공부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동학년 선생님들과 힘을 합쳐 교과별 콘텐츠를 만들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e학습터에 접속하는 시간이 다르고, 늦게 접속하는 친구들도 있어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느꼈다. 그래서 항상 8시~9시 사이에 오픈채팅방을 활용하여 ‘일어나서 공부 준비하자!’ 라는 메시지와 함께 아침열기를 실시하였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채팅창에 남겼고, 아이들이 접속하는지 계속 관찰하며 통화 및 메시지로 e학습터 공부를 독려하였다. 학부모님께도 아이들의 상황을 종종 알려드렸다. 피드백의 경우에는 오픈채팅방으로 아이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다 함께 공동체 약속을 정하거나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친해지는 시간이 없다보니 공동체의 식과 소속감이 없어 하나가 되어간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조절할 수 있는 블렌디드 역량이 필요함을 느꼈다. 등교수업 시에는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하다 보니 서로 이야기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기 힘들었다. 또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교과 진도 및 복습에 집중해야 했다. 하지만 방역 지침을 지키며 수업을 해야 하니 아이들과의 수업에 온전히 집중하기 힘들었다. ‘복습을 천천히 할 수 없을까?’, ‘아이들의 반응을 살피고, 서로 마음을 열며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 계속 고민하였다. 그리고 이 때 실시간 쌍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사실 나는 오픈채팅방으로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시간 쌍방향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29명의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의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었다. 또한 저작권 문제, 초상권 문제, 화면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실제 수업처럼 실시간 쌍방향 상황 속에서 순발력 있게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고 수업을 이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준비는 해야 했다.

‘경기도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부천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유초 놀이중심교육과정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연구회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비대면 연수에 참석하였다. 랜선 공동체 놀이, 온라인 강의를 위한 다양한 방법, 비대면 독서서클로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갈등 관리 역량 키우기 및 유치원 놀이 중심 수업과 초등 놀이 수업을 연계하는 다양한 활동과 재구성된 교육과정 등에 대해 배워가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폭넓은 대화를 하였다. 이렇게 연구회 활동을 통해 함께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든든함으로 나의 내면은 더욱 단단해졌고,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또한 수업 측면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먼저 시작하신 선배 선생님께 조언을 얻었다. 교과서를 이용하여 수업을 하고, 소회의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모둠활동을 하면서 생각을 나누고 모으며 친구들에게 발표할 수 있게 하고, 패들렛을 이용하면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과 공유해볼 수 있다고 하셨다.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셨다. 선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한 감이 잡히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언택트 교실에서 즐거운 수업생활 원격직무연수’를 통해 패들렛, 구글 설문지, 구글 잼보드, 멘티미터, 카훗 등에 대해 배우고 익혔다. 준비는 끝났다.

아이들과 함께 할 플랫폼으로는 가장 접근성이 쉬운 ZOOM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 방식을 단순하고 간단하게 하기로 하였다. 화면으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했다. 점차적으로 다양한 소통 도구들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시작하려니 두려웠지만 아이들을 믿기로 하였다. 아이들에게 가입 설명을 해주고 바로 다음 날 실시하였는데 아이들 29명 모두 ZOOM에 접속해주었다. 아이들이 너무 기뻐했고, 이렇게 아이들을 볼 수 있어 행복했다. ZOOM 수업에서의 유의사항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ZOOM 수업을 하는 게 처음이라 많이 어설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많이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실수하거나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으면 서로 보듬어 주면서 알려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하였다.

아이들은 8시 50분부터 접속하였고, 9시까지 접속을 완료하려고 노력하였다.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서로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점점 더 가까워짐을 느꼈다. 그러다가 친구들을 기다리며 독서를 하기로 하였다. 아이들은 자신이 읽을 책을 펼치고 친구들이 모두 들어올 때까지 책을 읽었다. 아이들이 다 들어오면 화면을 켜고 출석체크를 하였고, 화장실에 간다거나 개인적인 일을 할 경우에만 화면과 소리를 끌 수 있도록 하였다. 얼굴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였다.

9시 10분 정도부터 10시까지는 <아침열기>로 서로 알아가며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우리 학급만의 약속을 정하였다. 자신이 원하는 우리 반의 모습을 생각하며 가치 카드에서 가치를 선택해보았다. 선택 후에는 2명씩 소회의 서클을 만들어 우리 반에 필요한 가치와 그 이유를 서로 이야기 해본 후에 4명씩 소회의 서클을 하였다. 4명이 협의하여 하나의 가치를 선택했다. 전체가 다시 모여 최종적으로 효도, 존중, 배려, 책임, 협동, 열정이라는 가치를 정하고, 다 함께 약속의 말을 만들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책임감 있게 협동하고, 열정적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5학년 6반!’ 아이들은 “와!!” 하면서 즐거워했다. 나도 놀라서 아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었다. 이렇게 5학년 6반 29명과 선생님인 나, 총 30명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감을 느꼈다. 서로 손을 잡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10시 10분부터 11시까지는 <복습시간>으로 하고, 우선 1학기 수학을 복습하였다. 1학기 모든 단원의 자기점검평가를 실시하여 아이들이 무엇을 가장 어려워하는지 파악하고 복습할 단원을 결정했다. 수학 교과서를 화면에 띄우고 아이들이 주석 작성하기를 통해 친구들에게 풀이를 설명해보기로 하였다. 선생님은 코멘트와 정리를 하기로 했다. 아이들이 손들기를 표시하여 발표하였고, 쑥스러워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주석 작성이 힘들 경우에는 선생님이 대신 작성해 줄 수 있으니 부담을 갖지 말라고 하였다. 아이들은 잘 참여하였고 귀를 쫓긋 세웠다. 물론 처음에는

수학 시간이 되자마자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고, 물을 마시고 온다고 하는 등 뭔가 부산한 느낌이 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기도 하였다. 그리고 5학년 2학기 사회는 ‘역사’ 부분이라서 지속적인 복습이 필요하였기에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여 교과서를 읽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면서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에 노트 정리를 하였다. 탐구활동의 경우에는 사회의 서클로 관련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발표해보는 활동을 하였다. 모둠 활동을 하며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조율이 안 되어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다 함께 평화롭게 해결하는 게 바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며 학급 약속처럼 한 걸음씩 나아갔다.

더욱 자신감이 생기고 즐거워져 <아침 열기>의 친해지는 시간에는 ‘읽고 있는 책 소개하며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문장이나 소절 읽어주기’, ‘나를 칭찬하는 발표하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말하면 그 말을 다 함께 해주기’, ‘나의 꿈과 그 이유 발표하기’, ‘나의 버킷리스트 말하기’ 등 반 전체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생님인 내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 교사로서 해줄 수 있는 다양한 조언들을 해주었다. 또한 마이크 손동작, 하트 손동작 등을 토크피스로 하여 토크피스를 전달하는 제스처를 하며 이야기를 이어나가니 아이들도 즐거워했다.

11시에는 <마무리> 활동을 하였다. 아이들이 다 나갈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었다. 눈치 게임을 하며 나가는 활동도 자주 하고 있는데, 17번까지 말한 게 최고 기록이다. 마지막까지 남은 친구와는 오늘 수업이 어땠는지, 잘 지내고 있는 지 등의 상담도 하였다.

이렇게 우리 반은 원격수업 날에 항상 ZOOM과 e학습터를 병행하면서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다. 나는 교사로서, 이 마음과 이 열정을 그대로 간직하며 아이들의 흥미와 적극성이 줄어들지 않도록 늘 연구하며 여러 선생님들께 더 많이 배우고 싶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나, 선생님, 학부모님 모두가 손에 손을 꼭 잡으며 다 함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싶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원격수업! 그 새로운 도전과 아쉬움, 그리고 고마움

탐동초등학교 교사 한석진

얼마 전 퇴근길에 올해 1월 초에 결혼한 죽마고우를 우연히 만났다. 35년 지기이지만, 서로 직업도 다르고 사는 곳 역시 달라 1년에 기껏해야 한두 번 정도 얼굴을 보는 정도라 만날 때마다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얼싸안는 사이지만, 되도록 대면 접촉을 자제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서로의 주먹을 살짝 대는 것으로 반가움을 표시했다. 정말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의 생활 곳곳을 전과는 확연하게 바꾸어 놓았다.

모든 학교가 바쁘게 돌아가는 2월 말, 새로운 학년과 학급을 배정받고 학년부장으로서 1년간을 함께 지낼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학년 교육과정과 평가계획을 작성하느라 정신이 없어야 할 시기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대유행을 하여 여러모로 불편한 마스크를 쓰고 3월 초 개학이 되어 아이들의 목소리로 시끄러워야 할 학교에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내내 지속되었다.

‘곧 나아지겠지, 금세 학생들이 등교를 하겠지, 올해 만날 학생들은 과연 어떨까?’ 하는 내 생각과는 달리 점점 개학이 늦춰지더니 드디어 4월 16일(목), 그렇게도 기다리던 학생들과의 만남 대신 ‘온라인 개학’이라는 이름으로 아직 얼굴조차 모르는 학생들에게 담임교사로서 매일 5~6교시를 맞이해야 했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을 올해의 이 어색하고도 기괴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2003년에 교사로서 첫 발을 내딛었을 때에는 매일 학생들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 주말과 방학이 참으로 싫었다. 작년까지는 우리 반 학생들에게 매 교과를 잘 가르치고, 학생들과의 라포(rapport) 형성이 유능한 담임교사로서의 첫 번째 조건이었다면, 올해는 소위 ‘디지털 시대’에 매 교과의 성취기준을 잘 담아 온라인 수업자료를 만들고 탑재하는 것이 유능한 교사의 척도가 된 것이다.

우선 현실에 적응해야 했다. 10년 넘게 대학에서 강의를 해온 탓에 PPT나 동영상 등을 제작하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동학년 선생님과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스마트’한 교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았다. 원격수업을 해본 경험은 없지만, 다행히 각종 수업 기기들을 잘 다루는 선생님들과 협의하여 온라인 수업 탑재 사이트를 ‘클래스팅(classting)’으로 정하고, 담당 과목을 나누었다. 그리고 자신이 담당한 과목의 수업 내용을 서로 검토하고 조언을 하면서, 자신이 아는 것을 서로에게 하나씩 가르쳐주는, ‘교사이자 튜터, 학생의 심정’으로 학생들이 없는 나날을 보냈다.

18년째 5~6학년 학생들만 가르쳤고, 그동안 교과서 집필과 외부 강의 등을 해왔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은 충분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오랫동안 고학년 학생들만 가르쳐와서 그런지 굳이 교재연구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학생들을 대면했을 대의 일이지 올해처럼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처음 경험했고, 대부분 집에만 있을 학생들에게 대면수업과 거의 근접하게 매 과목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다.

다행히 내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수원시에서 낙후된 지역이라 가정에서 원격수업 기기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므로 처음에는 쌍방향 수업에 대한 요구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과제 제시 및 검사형’의 방식으로 원격수업의 틀을 정한 후, 해당 과목의 수업 내용을 클래스팅에 미리 탑재한 후, 답임교사가 매일 학생들의 수업 결과를 확인했다. 다행히 우리 반의 경우에는 매일 클래스팅의 출석과 매시간 학습 결과를 꼼꼼하게 체크한 결과 클래스팅에 접속하지 않거나 과제 등을 하지 않은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원격 수업 기간을 보내고, 6월 11일(목)부터 주 1회, 홀수와 짝수로 나뉘어 등교 수업을 시작했다. 25명의 학생들이 1주일에 단 한 번 등교를 하니 학생들과 라포 형성을 하는 것보다 우리 학교에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없기를 기도하며 늘 조심하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2학기가 되어도 코로나-19는 잠잠해지지 않아 주 1회 등교는 계속 이어졌고, 9월 21일(월)부터 원격 수업일에 1시간씩 쌍방향 수업을 하고 등교 수업 일에는 학생들과 만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 교사로서 제자들과 꾸준히 소통을 해서 그런지 어른이 된 여러 제자들과 전화나 메시지로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는데, 올해처럼 전화기를 붙잡고 산 해가 과연 있을까 싶다. 원격수업 일에는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는 쌍방향 수업을 위해 9시부터 수마(睡魔)에 빠져 있는 학생들의 알람 시계 역할을 해야 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주부터 주 3회 전체 학생들이 등교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 걱정은 되지만, 내 학생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기쁨이 앞선다. 학생들이 없는 텅 빈 교실에 홀로 있는 나! 이게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1명도 없을 것이다. 자식이 있어야 ‘부모’요, 학생이 있어야 ‘교사’인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18년째 교단에 있으면서 매년 학생들에게 수업 외에도 ‘좋은 팝송 듣기, 주제 일기 쓰기, 학급 홈페이지를 이용한 서로의 생각과 좋은 자료 나누기, 한국사 동아리 운영’ 등 내게서 배운 지 오래된 제자들이 꼭 기억할 정도로 매년 열심히 학생들과 라포를 형성했고, 나의 학생들에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올해와 같은 상황에서는 내가 늘 해오거나, 해주고 싶은 것을 거의 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못내 슬프다. 정말 이렇게 1년을 보내면 서로에게 무엇이 남을까 하는 아쉬움과 슬픔이 교차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매일 학생들의 과제수행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잘한 점은 칭찬하고, 틀린 것은 하나하나 고쳐주며 잘한 학생들에게는 매일 칭찬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이러한 나의 관심과 노력을 인정하고 감사함을 표하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볼 때마다 다시금 새로운 기운이 솟는다.

매일 등교를 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시켜야 하는 교사는 원격수업에서도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비록 내가 타고난 문과 출신이라 기기 다루는 것에 서툴렀던 내가 수업을 위해 각종 기기 다루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이용해 원격수업과 쌍방향 수업을 하는 올해의 내 모습은 지금까지 고학년 학생들을 오래 가르쳤다는 자만심과 경험에만 의존했던 나를 바꾸어 놓았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허둥댔던 내가 지금은 능숙하게 수업자료를 만들고,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는 내가 대견스럽다. 물론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지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절대 한숨을 쉬지는 않을 것 같다. 분명히 난 ‘디지털 시대’에 성장한 ‘스마트한 교사’가 되었으니까!

점점 교직에 대한 회의와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내가 올해의 이 코로나-19 시국을 통해 학생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림다는 생각을 정말 오랜만에 했다. 비록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교사로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해준 올해를 정말 잊지 못하고 그런 점에서 감사하다.

예단할 순 없지만, 내년에도 올해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 올해는 이 상황을 처음 겪는 거라 당황하고 허둥댔지만, 내년에는 이미 올해의 경험이 있으니 원격수업과 쌍방향 수업, 그리고 대면 수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 단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수동적인 교사가 아니라 내가 만날 학생들을 위해, 그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미리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진짜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교사’가 아닐까?

'온라인 수업'의 격동기 2020년, 그 속에서 신규교사가 살아남는 법



갈매초등학교 교사 김희진

Step1.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3월에 첫 발령을 받은 신규 교사, 4월에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교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이 상황에 학교는 혼란 그 자체였어요. 수업 플랫폼을 정하는 것, 플랫폼 안에서 수업을 구성하는 방법 등 모두 학교에서 고민해서 결정해야 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모두가 두렵고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상황을 즐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찾기도, 만들기도 하고,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수업에 대한 의견을 받아 부족한 부분을 고쳐나가기에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제 진심을 알아주더라고요. 얼굴 몇 번 보지 못한 담임 선생님인데도, 스승의 날에 아이들이 e학습터 쪽지와 게시글로 우리 반을 위해 열심히 수업 해주시는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겨주었습니다.

2학기에 접어들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zoom)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zoom에 대한 첫인상은 부담 그 자체였습니다. 적응해서 체제를 갖췄는데 또 다른 플랫폼에 적응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니 아이들과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자유롭게 나누며 수업할 수 있어 훨씬 만족도가 컸습니다. 아이들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제가 물어보지도 않은 zoom 수업 후기를 작성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아이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열심히 수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신규 교사인 제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크게 느낀 게 있습니다. 단지 온라인 수업에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지만요. 교사가 애정을 갖고 수업을 준비하고, 즐겁게 수업해야 아이들도 수업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수업,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 두려워 말고 정면으로 맞서 즐겨보세요! 아이들보다 선생님께서 더 행복해지실 거라 확신합니다.

Step2.

실수도 자산이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자.

저는 수업에 다양한 온라인 도구, 활동들을 적용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도구나 활동을 수업에 도입할 때는 수업이 제대로 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도구 사용법, 유의점들을 먼저 알려주고 수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장난을 치기 시작하면 수업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처음 도입하는 수업이었습니다. 한 개의 프레젠테이션에 모듈별로 각각의 슬라이드를 배정해놓고, 모듈은 배정된 슬라이드에 활동 결과물을 만드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업 중에 아이들이 다른 모듈의 슬라이드를 삭제하는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껏 만든 결과물이 갑자기 사라진 모듈은 기분이 상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 수업은 구글 프레젠테이션이 무엇인지 경험만 하고 끝난 수업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 반은 모듈 활동 결과물을 만들 때 구글 프레젠테이션보다는 최소한의 틀을 갖춘 다른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할 때는 슬라이드가 아니라 모듈별로 프레젠테이션을 따로 만들어주어야겠다.’ 등 한 번의 새로운 시도, 그리고 실수로 우리 반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수업 도구 종류, 도구 제공 방법, 도구 사용법 등을 고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온라인 수업 협력 도구, 활동 등을 시도하면, 그 시도 속에서 점점 더 우리 반 특성에 맞는 온라인 수업을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1~2가지 도구만 사용하면 교사와 아이들이 그 도구에 익숙해져 편하긴 하겠지만 아이들은 점점 지루해하고 수업에 흥미를 잃어갈 수도 있습니다.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도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수업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수업을 위한 발판이 될테니까요.

Step3.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교육의 3주체, 학생-교사-학부모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 이뤄지면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아이들이 학습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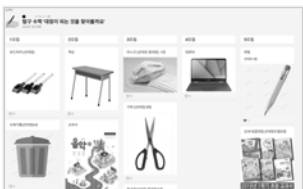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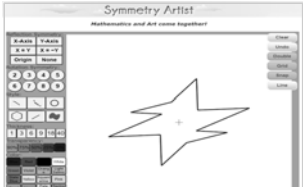
온라인으로 한 학습을 등교일에 교사가 모두 확인해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저희 반 한 학부모님께서도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제게 연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 연락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혼자서 고민하며 앓던 문제인데, 먼저 손 내밀어 주셨으니까요. 집에서 하는 온라인 수업, 교사와 학부모 간의 신뢰와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계획할 때 항상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 의논합니다. 온라인으로 하기에 막막한 수업도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어느새 재밌는 수업으로 탈바꿈되곤 합니다. 혼자서 하려 하지 말고 동학년 선생님들과 협력하세요. 온라인 수업의 힘들은 절반으로 줄고, 질은 두 배로 높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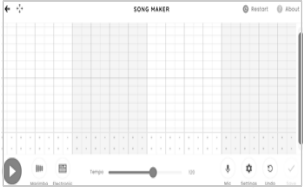
저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아이들의 의견을 종종 묻습니다. 지금까지 한 온라인 수업 중 어떤 활동이 좋았는지, 또 이유는 무엇인지 묻기도 하고 온라인 수업에서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인지 묻기도 합니다.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가 아이들 입에서 나옵니다. 그 대답을 수업에 녹여내면 제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더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격동기에 꽃피운 우리 반 온라인 수업(활동) "Best 3"를 소개합니다.

1) 수학 : 5-2-3. 합동과 대칭 / 배움 주제: 대칭이 되는 것을 찾아봅시다.

활동1	생활 속에서 대칭인 것 찾아보기	모둠별로 zoom 소회의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생활 속에서 대칭인 것을 찾습니다.
활동2	<p>찾은 대칭을 정리하여 발표하기</p> 	<p>찾은 대칭의 사진과 대칭의 종류를 패들렛에 작성합니다. zoom 대회의실로 돌아와 모둠별로 발표합니다.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의견을 나누며 상호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p>
활동3	<p>선대칭도형, 점대칭도형 그려보기</p> 	<p>'Symmetry Artist' 사이트에 들어가 선대칭도형, 점대칭도형을 직접 그려보며 선대칭도형, 점대칭도형의 성질과 선대칭도형, 점대칭도형 그리는 법을 직관적으로 이해합니다.</p>

2) 음악 : 5-2-3. 즐겁게 신나게 / 배움 주제: 음악에 따라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 지 알아봅시다.

<p>활동1</p>	<p>나만의 음악 만들기</p>  <p>‘Song Maker’ 사이트에 들어가 나만의 음악을 만들어봅니다.</p>
<p>활동2</p>	<p>친구들이 만든 음악을 듣고 감상평 남기기</p> <p>페들렛에 내가 만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고, 친구들이 만든 음악을 듣습니다. 친구들이 만든 음악을 들은 후, 음악을 들으며 느낀 기분을 댓글 창에 작성합니다.</p>

3) 실과 : 5-2-5. 가정생활과 생활 안전 / 배움 주제: 다양한 식재료의 맛에 대해 알아봅시다.

<p>활동</p>	<p>식재료 맞추기, 오감 다섯고개 준비물 : 식재료 1가지</p> <p>한 사람이 자신이 준비한 식재료를 오감으로 소개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감 힌트를 통해 친구가 준비한 식재료가 무엇인지 맞춥니다.</p> <p>예) 당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 당근의 색 또는 모양(주황색, 긴 모양)을 말하거나 당근의 일부만 보여줍니다. • 촉각: 당근을 만졌을 때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매끈하다.) • 청각(ASMR): <u>zoom</u> 비디오는 <u>끄고 음소거는 해제한 상태로</u> 당근을 먹는 소리를 친구들에게 들려줍니다. • 후각: 당근 냄새를 이야기합니다. (흙냄새가 난다.) • 미각: 당근 맛을 이야기합니다. (달다.)
-----------	--

Final.

더 멀리 바라보기.

저는 이제 단순히 온라인 수업에 대한 고민에서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혼합 형태인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등교(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서도 각 수업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또 블렌디드 러닝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은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등입니다. 이렇게 미래 교육에 대해 앞서서 고민한다면 조금 더 빨리 아이들과 새로운 교육에 발맞출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온라인수업, 위기를 기회로 ~!!



아인초등학교 교사 이창재

4월 16일 온라인 개학이 확정되면서 선생님들도 더욱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말만 나오고 있었던 쌍방향 수업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토의가 이루어지고, 태블릿 PC 수요조사 및 배부로 인해 정신이 없기도 했다. 하지만 정말 걱정이 됐던 점은 과연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했을 때 교실에서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였다. 이 문제 때문에 Zoom이나 Teams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직접 실행해 선생님들끼리 참가도 해 보고, 온라인 학습을 관리할 수 있는 사이트도 선정해야만 했다.

6학년에서는 EBS 온라인 클래스와 e학습터 등을 놓고 고민했는데, 디지털 교과서 및 위두랑 등과 연동이 가능한 e학습터를 선택했다. 무엇보다 수백만의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다. 온라인 개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학년에서는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먼저 e학습터를 운영했다.

본격적으로 개학을 준비하면서부터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지가 다시 문제가 되었다. 쌍방향 수업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고 몇몇 부작용도 보였다. 화상을 통해 수업을 듣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 대책이 필요했다. 그렇다고 e학습터 자료나 유튜브 영상을 그대로 쓰자니 선생님들이 보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 또한 아이들과 만나지 못하는 만큼 목소리나마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다 학년부장님이 만드신 입학식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개학식을 이 정도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인지 학년 선생님들끼리 전 교과를 나누어 맡은 과목에 대해 직접 영상을 만들기로 했다.

나는 여러 과목 중 수학을 맡게 되었다. 학년부장님과 다른 선생님 수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내 목소리에 맞춰 PPT를 녹화하는 식으로 수업을 만들었다. 임용 시험 때 지도안을 짜던 것보다 더하게 교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아이들에게서 나와야 할 반응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대본을 짤 땀 머리가 아팠다. 교실에서의 수업과 다르게 아이들의 오개념이나 수준을 바로 파악할 수 없기에 더 어려웠던 것 같다. 지도서를 보며

대본을 짰 뒤에는 교사의 발문은 내 목소리로 녹음하고 학생들의 발문은 네이버 클로바를 이용해 목소리를 만들었다. PPT를 만들 때도 지도서와 함께 온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자니 부족한 점이 보여 수정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평소에 영상 편집을 조금씩이나마 해 봤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다 보니 실제 수업보다도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선생님마다 수업을 만들어가는 방식은 모두 달랐다. 사회를 담당하신 선생님께서는 마이크를 가져 오셔서 디지털 교과서와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 실제 교실 수업처럼 진행하셨고,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수업을 만드시는 선생님도 계셨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영상을 만들면서도 계속 의견을 나누다 보니 서로에게 배울 점이 참 많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덕분에 나도 다양한 아이디어로 현재까지 영상을 만들 수 있었다.

이제 온라인 개학에서 2주가 지나고 분수의 나눗셈 단원을 거의 끝마친 상황이다. 영상을 업로드하면서도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항상 남는다. 아이들이 설명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교실에서처럼 바로 확인이 안 되다 보니 가르쳐놓고도 불안함이 남는 것이다. 그나마 아이들이 열심히 과제를 해서 올리는 걸 보면서 꾸준히 듣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사이트 이용이나 학습과 관련하여 학부모와도 소통이 자주 이루어지다 보니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한 카페에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에 대해 칭찬하는 댓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동안의 어려움도 잊힐 정도로 기분이 좋았다. 얼른 상황이 진정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웃으며 칭찬해줄 수 있는 새로운 봄이 얼른 찾아 왔으면 좋겠다.

(대분수)÷(자연수)를 알아볼까요

[1~2]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1 □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4\frac{2}{7} \div 6$ 을 계산해 보세요.

방법 1 $4\frac{2}{7} \div 6 = \frac{30}{7} \div 6 = \frac{30}{7} \div 6 = \frac{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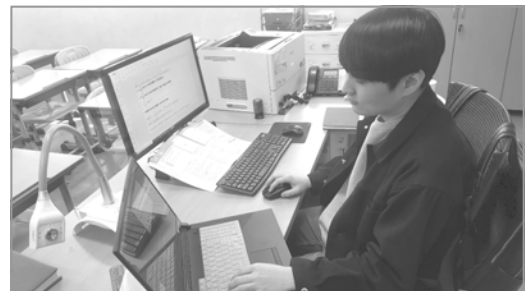
방법 2 $4\frac{2}{7} \div 6 = \frac{30}{7} \div 6 = \frac{\quad}{7} \times \frac{1}{\quad} = \frac{\quad}{\quad}$

이승만 대통령 해보니까
너무 좋아 계속 하고 싶어!
헌법도 바뀌가며 계속 독재

이승만 선거 못 이길것 같아
부정행위 - 컨닝, 대리시험

=

1. 실제 교실 수업과 같이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어 주세요.
2. 매일 접속하고, 학습·과제 성실하게 참여합니다.
3. 글을 올릴 때는 상대방을 배려하며 올려주세요.





자체 제작 콘텐츠 활용 및 쌍방향 수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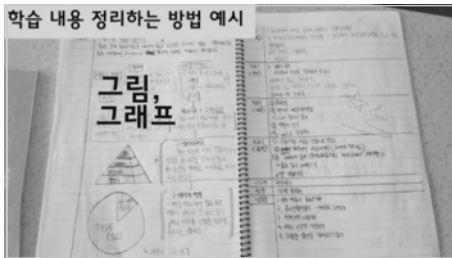


원격수업 질적향상을 위한 동학년 공동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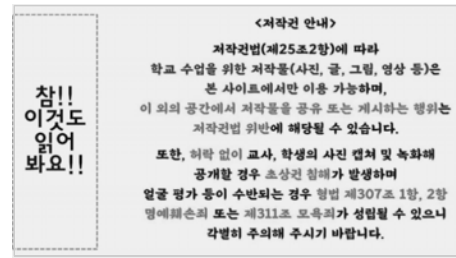


원격수업 활용을 위한 강사로 학교자체 연수 실시

학생관리를 위한 온라인 부담임제 운영



원격수업 배움공책 활용



저작권 교육 별도 실시

4. 28. (화요일)	1	수학	■ 1.새 차리 수 (어느 수가 더 클까요) EBS 방송 (9:30-10:00) 시청하기 - 수학책 22-23쪽 읽고 확인하기	수학 22-23쪽	교과서
	2	수학	■ 1.새 차리 수 (어느 수가 더 클까요) - (수학의원리) 16-17쪽 읽어 배운 내용 확인하기 - 부모님께서 점검하여 확인해주세요.	수학 원리 16-17쪽	수업자료집
	3	통	■ 1.양봉장속 나 (꿈을 꾸고자 해2) EBS 방송 (10:30-11:00) 시청하기 - (꿈의나침) 30 양봉장이 시청하여 따라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9271515bba) - (나침) 31기 31기 수학 교육영상) 시청하여 따라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9271515bba) - (꿈의나침) 31기 31기 수학 교육영상) 시청하여 따라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9271515bba)	통 24-27쪽	준학원
	4	형제	■ 전로교과 - (전로교과 커리어)에 관하여 "전로교과" 페이지 (https://www.career.go.kr/jr/travel/online/jrnet) - (전로교과)에 나와 내용을 정리하기 - 집에 갈과 나침 자료를 확인하기(예: 목욕, 잠자기, 놀이, 여행 등) - (전로교과)에 나와 내용을 정리하기 - 집에 갈과 나침 자료를 확인하기(예: 목욕, 잠자기, 놀이, 여행 등)		

원격수업 전용 주간학습 제작

교사수업일지	
일시	3월 23일
교사명	장소 4학년 반 온라인클래스
학습주제(과제)	
수업평가 (피드백/소통)	
[특수교육] 권장도서 읽기 - 4학년 권장도서, 관심있는 책 찾아 탐색하기- 주 단위, 월 단위 독서계획 서에 있는 책 읽고 쓰기 - 코로나 예방 학생 생활 수칙 안내 - 긴급적 외출 자재하기 (외출 시 마스크 꼭 착용하기) - EBS 초중사이트(primary.ebs.co.kr)에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생활지도/업무처리	
*수업감독 일주 및 과목별 지수 확인 *교내 4학년 담당구역 환경정화 *부장회의 사항 학년에 전달 *이달리대를 이용한 온라인 학습안내 *온라인 학습에 관한 피드백 및 대체학습 상담	

교사수업일지	
일시	3월 24일
교사명	장소 4학년 반 온라인클래스
학습주제(과제)	
수업평가 (피드백/소통)	
[전로교과] 나의 꿈 - 나의 꿈에 대해 생각하고, 관련직업 찾아 조사하기 [예제] 직업 진기탐색 - 진기탐색을 위한 우리의 삶이 꿈이 되고자 하는 꿈을 위한 학습활동 - 4학년 권장도서 안내(4학년 수준에 맞는 책 읽기 지도)	

교사별 원격수업 일지 작성

나는 컴퓨터가 싫다



나눔초등학교 교사 문수지

나는 컴퓨터가 싫다. ‘싫었다’라는 과거형이 아니다. 여전히 ‘싫다’. 디지털 문명은 내가 마음을 열기도 전에 급속도로 사회에 퍼졌고, 적응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디지털 문명을 온몸으로 거부한다. 급변하는 디지털 문명 속에 나의 안정된 모든 것을 꺼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2월, 스트레스는 시작되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소프트웨어교육, 스마트교육이란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피한다. 나에겐 업무분장에서도 가장 피하고 싶은 기피업무 1순위가 ‘정보기기관리’ 업무이다. 그만큼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것은 나에게 불안과 초조함을 준다. 그러나 동학년 선생님들은 과학과 소프트웨어교육에 대단한 열정이 있는 분들이셨다. 교육과정 안에 이미 코딩교육을 넣을 때부터 나의 마음은 괴로웠다. 존경하는 동학년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즐겁게 추진하시는 코딩교육을 차마 반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받아들였다. 그러나 마음은 무거웠다.

기다리던 3월, 개학이 이뤄졌다. 작년 1년을 교과전담으로서 보낸 터라, 나는 학급 아이들과의 만남을 간절히 기대했다. 반편성 목록을 받자마자, 나는 포스트잇에 ‘000야, 안녕’이란 인사말을 손글씨로 적어 학생들이 앉을 자리에 붙여줬었다. 그러나 포스트잇이 붙여진 빈 책상과 의자를 앞에 두고 4월 16일이 되어서야 개학을 했다.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전염병은 학교를 죽은 공간으로 만들었다. 학생들의 소리가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럽게 들려야 하는 학교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3월의 교실은 매우 차가웠고 적막했다.

2월에 밤 9시까지 남아서 동학년 선생님들과 재구성한 교육과정은 물거품이 되었다. 당장 온라인 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재구성을 버리고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 열린 마음이었던 동학년 선생님들은 ‘zoom’과 ‘유튜브 스트리밍’까지 제안했다. 컴퓨터라면 질색했던 나는 실시간으로 내 모습이 공개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불안한 디지털 문명에 내 개인정보들이 나도 모르게 떠다니는 것은 더욱 싫었다. 따라서 실시간 화상 및 스트리밍이 아닌 과제형 수업 플랫폼인 ‘클래스팅’을 학년에 제안했다. 동학년 선생님들은 나를 배려해주었고 우리는 클래스팅으로 수업을 만들기 시작했다.

클래스팅은 과제형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탁월한 플랫폼이었다. 차시별로 과제를 올리면 해당하는 과제 페이지에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과제를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교사만 확인할 수 있어 서로의 과제를 볼 수 없다. 뿐만아니라 학생들이 수업 단계별로 페이지를 넘기며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을 만들 수 있다. 온라인 개학 전인 4월 6일부터 우리 학년은 학생들의 클래스팅 적응을 목표로 하여 방학과제의 연장선으로 간단한 과제를 하루에 하나씩 내기 시작했다. 따라서 온라인 개학일인 4월 16일부터 학생들은 바로 클래스팅을 통한 온라인 수업에 적응할 수 있었다.

교사와 학생 모두 클래스팅 과제형 수업에 안정을 찾아갈 무렵, 우리는 고민을 시작했다.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잡고 학생들의 과제 진행 상황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했으며, 과제를 검사하다가 하루를 보내기도 했다.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당장 과제 검사가 너무 바빴다. 하루에도 6차시 수업의 과제 여부를 확인해야 했으니, 매일 A4용지 학생 명부 한 장에 동그라미가 빼곡할 정도였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자, 학년 부장님께서도 실시간 수업을 제안하셨다. 한 시간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말씀에 나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다. 다행히 2월에 ‘zoom’과 ‘유튜브 스트리밍’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끼리 ‘zoom’을 시도해보았다. 그 때 한참 서로 헤매고 헤매 끝에 나 또한 어느 정도 다룰 수는 있게 되었다. 교사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했듯이, 학생들에게도 ‘zoom’ 적응기간이 필요했다. 먼저, 창체 시수 2시간을 할애하여, 1시간은 과제형 수업으로 ‘zoom’에 대한 방법을 학습하게 했고, 1시간은 ‘zoom 입·퇴장 실습 및 마이크·스피커·카메라 기기 확인’을 해보았다. 그리고 교육과정 내에서 최대한 학습에 대한 부담이 덜한 부분을 찾아보았다. 마침 국어 1단원 ‘마음을 나누며 대화해요’에서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는 적용 차시가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실시간 수업의 첫걸음이었다.

‘고민 상담’하니 ‘보이는 라디오’가 떠올랐다. 학생들이 나처럼 ‘zoom’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기보다는 즐거운 것으로 접하길 바랐다. 따라서 ‘보이는 라디오’처럼 학생들에게 사연을 받고, 신청곡도 틀어주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었다. 나는 학생들에게 미리 고민과 신청곡을 받았고, 실시간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고민을 공유하고 공감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오랜만에 학생들의 얼굴을 보니 좋았다. 그리고 서로 눈을 맞추고 마음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 첫인사도 얼굴을 보지 않고 전화로 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날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행복했다.

동학년 선생님들 또한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셨다. 6개월 만에 학생들과 서로 눈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수업을 하는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사실 한 두 번 시도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시간 수업의 기쁨을 맛본 후, 우리 학년은 바로 매주 금요일 ‘온책 읽기 수업’을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원래는 ‘슬로리딩 프로젝트’로 재구성했던 1학기 교육과정이 있었으나 과감히 버리고 우리는 ‘온책 읽기’로 방향을 틀었다. ‘실시간 수업’에 적응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학습 부담 있는 교과 수업보다는 깊게 천천히 책을 읽는 데 목적을 두는 ‘온책 읽기’를 시작한 것이다. 매주 금요일 2시간씩 만나 우리는 총 12장으로 구성된 책을 1장씩 읽어나갔고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업 패턴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 우리는 학생들과 ‘zoom’의 다양한 기능들과 ‘padlet’, ‘jamboard’, ‘google presentation’도 시도해볼 수 있었다. 컴퓨터 타자연습도 힘들어했던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도구에 있어 차근차근 천천히 접근해나가니 금방 따라왔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신기한 일이다. 아이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어서인지, 배움에 있어 확실히 어른보다 속도가 빠른 것 같다.

‘zoom’을 통한 실시간 수업과 ‘padlet’과 같은 온라인 학습도구는 우리의 수업 범위를 넓혀주었다. 매주 금요일 ‘온책 읽기’수업을 고정하여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해나가면서 학생들이 잘 적응하는걸 보니, 우리는 조금 더 욕심이 생겼다. 각 교과별로 그동안 배워서 연습해온 온라인 학습도구 ‘padlet’, ‘jamboard’등을 활용할 차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특히 과제형 수업에서는 일방적인 전달과 학습, 확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도, 오롯이 혼자 학습 및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학생들도 힘들었다. 그러나 실시간 수업은 서로 소통이 가능하고 온라인 학습도구는 꼭 만나지 않더라도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zoom’의 소회의실 기능은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인해 협력·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이 줄어 걱정이 많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모듬활동이 가능해지고 학생 스스로 프로젝트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자, 우리는 2학기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준비로 1학기 때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및 실과 시간을 활용하여 '동영상 편집', '미리캔버스 활용' 등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컴퓨터 활용 능력을 익히게 했다. 그리고 여름방학 과제로 '타자 200타 연습'을 내주어서 컴퓨터 타자와 친해질 수 있도록 했다. 나도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 그 기능들을 익히게 되었다.

2학기에 우리가 준비한 프로젝트는 크게 3가지 프로젝트이다. 첫 번째는 '민주시민 프로젝트'로서 기업과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프로젝트 '녹색권리, 미래를 바꾸는 우리들의 행동 원칙!'이다. 두 번째는 '학교 중간놀이장 공간 구성 프로젝트'이다. 마지막 프로젝트는 '서찰을 전하는 아이 슬로리딩 프로젝트'이다.

먼저 '녹색권리, 미래를 바꾸는 우리들의 행동 원칙!'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해진 환경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 프로젝트를 직접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 학급에서 정한 프로젝트는 '플라스틱 병뚜껑과 라벨지를 모아 보내기'이다. 사례 조사 시간에 발견한 '플라스틱 방앗간'이라는 곳은 분리수거가 안되는 병뚜껑같은 작은 플라스틱을 모아 직접 녹여 치약짜개를 만드는 곳이다. 이 단체와 협력하여 병뚜껑을 재활용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라벨지가 붙은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됨을 인식하게 되어, 라벨지를 아직도 붙여 내보내고 있는 기업들에게 라벨지를 모아 보내는 과정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전달할 예정이다.

두 번째 '공간 구성 프로젝트'는 우리 학교 중간놀이장 공간을 리모델링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건축가와 학생들이 끊임없이 소통하는 프로젝트이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서찰을 전하는 아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여러 교과와 성취기준 및 활동을 재구성하여 다양한 활동 중심의 수업을 구성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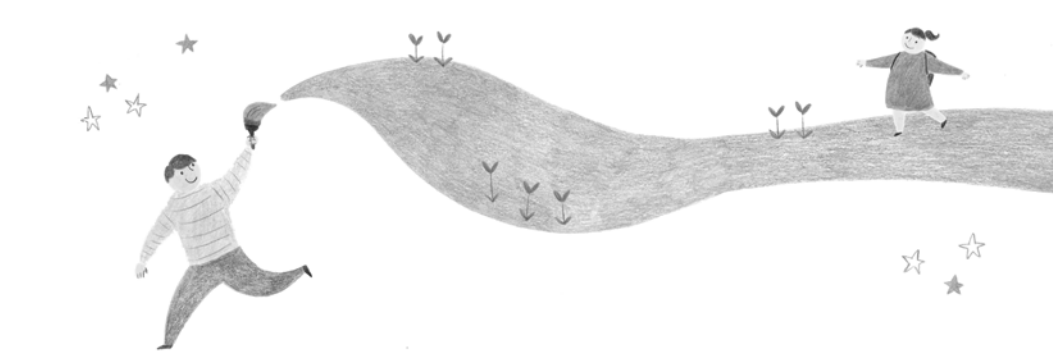
설 틈 없이 달려온 지금, 나도 학생들도 정말 많이 성장했다. 정확히 말하면 4월부터 7개월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나도 학생들도 생각지도 못한 온라인 학습 상황으로 인해 많은 것을 배웠다. 어제 학부모 상담 주간으로 인한 전화 상담에서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셨다.

“코로나-19로 인해 물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 아이를 보면 오히려 성장한 부분도 많아서 좋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컴퓨터, 스마트폰 모두 올해 처음 접해본 아이인데 컴퓨터 활용 능력이 크게 늘었고, 뿐만 아니라 맞벌이인 저희 부부가 전혀 봐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학습을 해나가는 걸 봤을 때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정말 공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는 정말 힘들었다. 솔직히 아직도 매번 바뀌는 일정에 지칠 때도 많다. 그러나 급변하는 상황 속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우리는 많이 성장했다. 나 또한 ‘크롬’이라는 것조차 몰랐고 ‘google’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google’계정을 만들어 온라인 학습과 관련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 적어도 학생들을 학습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이 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인 나도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컴퓨터를 싫어했지만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접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새로운 수업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다보니 대면수업보다 오히려 온라인 학습 안에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업들도 발견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나는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여 학생 주도 학습을 추구하는 블랜디드 러닝에 대해 알게 되었다. 좋은 기회로 그동안 해왔던 수업들을 정리하여 블랜디드 러닝 수업 사례 강사로서 강의도 해보고 블랜디드 러닝 수업도 공개할 수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컴퓨터는 싫다. 어제도 코딩 특강을 듣는 데 간단한 코딩 수업이라고 다들 말씀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 어색하고 싫었다. 그러나 생각보다 ‘못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깨달았다. 컴퓨터와 정말 친하지 않은 나지만 함께 연구해주고 알려주는 동료 교사가 있고, 믿어주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있고, 학습 활동을 잘 해내가는 기특한 학생들이 있다면 컴.알.못도 무적이 된다.



6학년 1반의 추억, 오늘도 이렇게 만드는구나...



장현초등학교 교사 권진경

“선생님! 저 또 튕겼어요.”

“선생님! 저 마이크가 안돼서 말을 못해요.”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오늘도 아침부터 어김없이 핸드폰의 문자와 카톡은 불이 난다. 줌 회의실에서 튕긴 친구들과 마이크가 안되는 친구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는 알림이다. 답장 보내랴, 모니터 쳐다보랴 오늘도 나의 손과 눈은 정신이 없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준비하면서 걱정이 많았다. 처음 다뤄보는 웹캠과 ‘줌’이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익숙지 않은 나의 기기 다루는 실력...이 모든 것이 어렵기만 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기계치다. 기계를 잘 다루지도 못하고 내가 손댄 기계들은 멀쩡하던 것들도 고장 나 버린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기계를 멀리하며 꼭 다뤄야 하는 기계들은 설명서를 아주 꼼꼼히 읽고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하며 남들보다 몇배의 시간을 투자해서 익혀야 한다. 정말 숨기고 싶었던 나의 이런 모자람이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엄청난 고생을 하는 중이다.

오랜만에 6학년 담임을 맡게 되면서 많은 기대와 떨림으로 2월부터 준비했다. 꾸준히 연락하던 대학생 제자와 2월에 통화하면서 코로나-19로 대학생활이 많이 바뀔 것 같다는 대화를 했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괜찮아질 거라는 대화로 마무리 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연락하는 제자를 또 만들어야겠다. 올해 6학년 친구들과 재미있는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런 나의 기대는 3월 개학이 미뤄지면서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 학생들 얼굴도 못 보고 전화 통화만 하면서 시간이 자꾸 흘렀다. ‘애들이 곧 등교하겠지’라는 기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등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으로 점점 굳어졌다. 온라인 학습도, 콘텐츠 제공 수업도 내가 먼저 지쳐갈 때쯤 학교 선생님들이 먼저 움직이셨다. 더 이상은 안되겠다, 우리도 빨리 쌍방향 수업을 준비하자고 슬슬 시동을 걸어주셨다. 나도 그 움직임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빨리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다.

교장, 교감 선생님의 지원과 선생님들의 추진력으로 쌍방향 수업을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필요한 기자재들을 구입하고 교실에 설치하면서 기대와 함께 걱정이 앞섰다. 나는 정말 유명한 기계치다. 이런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다루지? 거기다 수업까지 어떻게 하지? 이런 나의 고민과 걱정은 본격적인 쌍방향 수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매일 날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쌍방향 수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달라고 수업시작 한달 전부터 안내했다. 그러면서 나는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온라인 수업을 위한 준비를 했다. 기자재를 다루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업 기법, 그리고 화상 프로그램을 수업에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까지 각종 연수를 통해 습득하기 시작했다. 물론 나에게 쉬운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새로움' 투성이었다. 교실에서 학생들과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할 때는 너무 쉬웠던 일들이 온라인상에서는 전혀 쉽지 않았다. 수업 자료를 만들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고 피드백을 하고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

그렇게 나의 '고군분투 온라인 수업'이 8월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학교는 7월부터 제반 시설을 준비해서 8월 2학기 개학과 동시에 쌍방향 수업에 돌입했다. 다른 학교 교사 친구들이 다들 놀라워했다. 너희 학교는 벌써 시작하냐고.... 하지만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미 나부터가 쌍방향 수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이렇게라도 아이들을 빨리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물론 1학기 때 학생들이 주1회 등교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4일 동안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처음 시작은 정말 엉망이었다. 줌 회의실에 입장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시스템의 문제인지, 와이파이의 문제인지 회의실에서 튕기는 아이들이 많았다. 심지어는 호스트인 나도 튕졌다. 제시간에 입장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그래도 안 들어오면 어머니들께 연락을 했다. 처음 일주일 동안 수업에 입장하지 않는 또는 입장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4-5명이었다. 참여하고 싶지만 집에 와이파이가 잘 안되거나 기자재가 잘 되지 않아 입장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했든가...출석체크부터 시작한 우리반의 줌 수업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안정되어 갔다. 물론 나의 온라인 수업 기술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3주차가 되니 줌 회의실에서 튕겨 나가는 학생들도 점점 줄어 들었다.

시스템이 안정되니 나는 다른 고민이 생겼다. 어떻게 하면 온라인 수업을 더 재미있게, 더 활기차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수업에 참여하게 만들 수 있을까? 초등학교 마지막 6학년

시기에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정말 나의 고민은 끝없이 이어졌다. 고민의 시간은 인간을 성장시키는 가장 고통스럽지만 효율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나의 고민들은 나를 계속 연구하게 만들고 노력하게 만들었다. 끊임없이 수업 자료들을 찾아보고 온라인상에서 학생들과 재미있게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 해매게 만들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찾으면 찾을수록 재미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았다. 알면 알수록 신기한 온라인 수업 기술들이 속속들이 보였다. 점점 내가 ‘스마트’해지는 것 같은 생각에 스스로 너무 뿌듯함을 느꼈다.

오늘 아침에는 쌍방향 수업을 하다가 눈물이 났다. 국어 수업 주제가 ‘발표 영상을 만들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였다. 과제를 내준지 몇 일 되지 않아 학생들이 모두 과제를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밤부터 아이들이 만든 영상을 나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받아 확인하는 중에 가슴이 울컥했다. 주제가 ‘졸업을 기념하는 영상 만들기’였다. 코로나-19로 6학년 생활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이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영상을 만들었다. 6년 동안의 사진을 모으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졸업을 앞두고 하고 싶은 말을 인터뷰 하기도 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영상들을 ‘줌 회의실’에서 공유하며 아이들과 함께 봤다. 정말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데 아이들에게 들킬까 애써 참았다. 그런데 우리반에서 가장 듬직한 남자 친구가 “아! 나 눈물 날 것 같아”라는 말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뺨 터지고 말았다. 아직 졸업이 두 달 남짓 남았지만 우리반 아이들은 이렇게 6학년을 마무리하면서 졸업을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 안쓰럽고 또 미안했다.

지금은 3일 등교수업을 하고 2일은 쌍방향 수업을 하고 있다. 등교했을 때 나는 늘 아침마다 학생들에게 말한다.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매일 등교하면 좋겠다고, 그럼 너희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반만의 추억을 만들고 있으니 우리 행복하지 않니? 라고 나와 학생들에게 주문 아닌 주문을 외우고 있다.

오늘 아침 줌 회의실에서 눈물을 보인 것도 ‘6학년 1반의 오늘의 추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매일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있다. 10년뒤, 20년뒤 우리반 친구들은 오늘을 어떻게 기억할까? 지금 모두 힘든 시기라고 투덜대기보다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지금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기계치인 나는 올해 열심히 노력해서 기자재를 다루는 것에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고,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움을 공부하고 경험했다. 우리반 아이들은 학교를 많이 나오진 못했지만 나름의 방법으로 졸업을 맞이하고 있다. 다음주에는 또 어떤 추억을 만들어 줄까? 등교하는 학생들도, 줌 회의실에 있는 학생들도 모두 나를 설레게 하는 아이들이다. 그래서 오늘이 더욱 소중하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2020년 정보부장의 한 해

한내초등학교 교사 정혜진



나는 18년차 담임교사이자, 정보부장만 7년차이다.

시간을 거슬러 2020년 2월, 코로나-19 시작으로 인해 학교는 등교개학을 하나마나의 시점으로 돌아가 우리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한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카더라 통신이 무성했던 시점이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시점이어서 모두 다 갈팡질팡할 때 밀려야 본전이지 하는 마음과, ‘먼저 알아야 학교에 안내할 수 있으니까’라는 생각으로, 원격학습 플랫폼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sns에서는 구글클래스룸, e학습터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이 떠들썩했다. 먼저 구글클래스룸에 대해 알아보니, 지스윗이 있으면, 학교계정은 무제한 클라우드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우리 학교는 다행인 것인지, 작년 디지털교과서연수 받는다고 학교계정으로 지스윗 신청해두었던 생각이 났다. 지스윗으로 학교 계정 들어가서 동학년 선생님들 가입 및 인증시켜서 권한드리고, 구글클래스룸 개설, 아이들 가입시키는 법, 파일 다운로드 안 되게 공유하는 법 등 먼저 공부했었다.

그 후 학교는 원격학습플랫폼 선정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었다. 우리 학교는 학교홈페이지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 선택은 타 학교들이 이 학습터를 선택해서 서버혼란이 왔을 때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것 또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다 보니, 학교에 배정된 서버 용량은 한정되어있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릴 수 없다는 점과, 아이들 과제를 댓글로 받았을 때 홈페이지

서버에 저장용량이 꼭 차 더 이상 저장이 안된다는 점들의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이 건으로 교육청에 엄청 민원 전화를 했었다.

학교 홈페이지를 결정한 순간부터, 다시 플랫폼을 선정하자는 단계로 돌아가기 싫어 내 나름대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구글클래스룸에 촬영영상을 올리고, 그 곳에서 링크만 가지고 오면 되겠다.』, 『교육청에 서버 용량 증설해 달라고 하자.(용량 조금밖에 증설안됨.)』, 『맷글로 과제 받는 것은 다른 방식을 찾자.』

각 학년에서는 학부모, 학생과 소통하기 위한 통신수단을 결정했다. 학년마다 정말 다 달랐다. 이알리미, 카톡채널, 핸드폰문자, 하이클래스, 네이버밴드등 우리 학년은 카톡채널이었는데, 모든 통신수단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카톡채널은 1대1일 상담처럼 사용할 수 있고, 널리 알려진 프로그램이어서 그런지, 초창기 시작하는 프로그램보다 오류가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단점은 전체문자 발송하려면 별도의 유료가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게 된 정보를 교사 연수를 통해 학교 지스윗 가입시켜 관리자 권한받는 법, 구글클래스룸에 자료 올려 링크 받아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법에 대해 연수해드렸고, 또 동료교원들은 반디캠 녹화하는 법, 목소리 더빙프로그램, 뱀믹스 편집프로그램, 촬영장비등 3월 4월은 동료 교원들의 연수 나눔으로 바쁜 학교였다.

또 하나, 학부모들에게 대여하였던 스마트기기사업, 정말 힘들었다. 신청한 학부모님들께 일일이 연락해 가정에 스마트폰 없는 가정만 대여하는 것이라고 확인 전화한 후 대여했다. 4월 한 달은 이 사업하느라 힘든 정보부였다.

4월 교과서와 원격학습 꾸러미 배부 후 이루어진 우리 학교 원격등교 개학방식은 링크와 원격학습꾸러미, 과제 피드백으로 이루어졌다. 내가 맡은 학년은 2학년으로, ebs로 수업을 해도 되지만, 1,2학년 선생님들의 공통의 의견으로, 우리 학교 저학년은 자체제작이나 링크 수업으로 결정하였다.

그렇게 정착된 4월, 5월을 보내던 중 동료교사들 사이에서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되니,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다. 나는 무제한 데이터여서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선생님들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런 저런 공문을 보다가 미래형 교실 네트워크사업 공문을 보게 되었다.

이 사업으로 학교 와이파이존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교육과정부장님께 의견을 냈고, 선정

되었다. 교육청에 계획서 낸 모든 학교에 소소한 금액으로 모두 지원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말 소소해서 그 금액으로는 학교 전체 와이파이를 힘들었다. 교장선생님께 도움 요청드렸다. 각 교실이 아닌 복도에 몇 개씩 설치하여 중첩구간 만드는 것, 또 와이파이 가격 직접 알아보고, 업체에 금액 조율해서 와이파이 공사를 진행했다. 선생님들께서는 너무 좋아하셔서, 뿌듯했고, 교장선생님께 감사드렸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등교개학이 되었고, 등교 개학일에 장학수업준비처럼 진짜 이것저것 준비하여 아이들에게 즐거운 등교수업일이 되도록 하였다. 그렇게 1학기를 보내고, 방학 중 거꾸로 교실이라는 연수를 듣게 되었다. 이 연수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본적인 이론은 직접 만든 영상으로 가정에서 과제로 듣고 오고, 활동 중심의 수업을 교실에서 하자》는 취지의 미래형 교실운영방향에 대해 담은 연수를 듣게 되었다. 나는 이 연수를 들으면서, 현재 우리 학년의 원격수업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7,8월달 SNS에서는 원격수업에 대한 불만들이 학부모, 교사들간에 쏟아지고 있었다. 1학기에 나의 생각은 기존 잘 만들어져있는 수업 링크 찾아서 올려주기, 정말 없는 것은 더빙프로그램 이용한 자체제작하는 쪽이었다. 이 거꾸로 교실 수업연수를 듣고 나서 내가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8월말 교육청에서 실시했던 디지털네트워크 2주간 줌 연수를 통해, 다양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항상 멀게만 느껴졌던 미래형 교실 수업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두 가지 연수프로그램으로 내 목소리와 내 지도방식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매 차시마다 수업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고, 내 수업링크를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였다.

2학기 등교가 시작되고, 아이들이 내 목소리임을 알게 되면서, 아이들 호응도가 정말 좋았다.

“선생님, 유튜버세요?”

“진짜, 저도 오늘 가서 꼭 들을게요.”

“선생님, 저 구독이랑, 좋아요, 눌렀어요.”

아이들은 등교시 수업방식과 영상 수업방식이 동일해서 더 효과적으로 느끼는 것 같았다.

또한, 우리 학교는 2학기부터 쌍방향수업을 시작하기 위해 7월부터 웹캠을 학급마다 모두 구매해드렸다. 좀 더 화질이 좋은 걸로, 좀 더 싼 가격에 구입하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구매하였다. 9월달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개학이 중지되었을 때, 우리 학교는 쌍방향수업도구인 줌에 대해 먼저 실행해본 교사들의 나눔 연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저학년교사들 사이에서는 학생들이 아직 어려 스마트폰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EBS시청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 그리고 원격학습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가정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환경이 안 되는 집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 문제점에 대해 주변 학부모님들의 의견 수렴 등을 했다.

“해 주기만 하세요. 환경은 우리가 만들게요. 선생님 얼굴 보고 수업받고 싶어요.”

이런 의견들은 부장회의 때 전달되었고, 쌍방향 수업은 시작하나, 각 학년, 각 학급마다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안내장을 발송하였다. 쌍방향수업을 어느 수준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도 《각 학급마다 교원들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수업을 운영하자》라고 결정하였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자 하는 선생님들께서는 다양한 시도로 수업나눔을 하였고, 각 자의 방식대로 수업을 운영하였다.

지난주 우리반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현재 운영되는 쌍방향 수업에 대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대체로,

“처음 시작시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제 시간에 일어나 아이들이 수업대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짧은 과제 확인이 아닌 1시간 30분정도의 수업으로 그 날 핵심수업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 한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 가족과 함께 쌍방향수업에서 했던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았다. 이렇게 쌍방향 수업을 해 주면, 꼭 등교수업 아니어도 되겠다.”

라는 의견을 주셨다.

나는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서 활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교사이기도 하다. 새로운 기계에 대해 알아보고 기자재 구입에 대해 관리자님께 말씀드렸을 때, 응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신 우리학교 관리자님께 감사드린다는 마음을 항상 표현하곤 한다. 또 어떤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다음주부터 저학년은 주4회, 주1회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올 해 정보부장, 학년부장하면서 엄청난 회의와 기자재구입, 스마트기기대여사업, 원격학습 플랫폼 정보 제공 및 연수, 자체 학년 영상 제작, 등교수업준비, 쌍방향 수업준비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했다.

오늘 했던 일들이 내게는 미래의 자산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는 정보과학학년부장의 한 해였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는 마스크 속 얼굴이 반갑구나



안흥초등학교 교사 이운경

2020년.

10년을 압축해놓은 1년처럼 흘러가 버렸다.

인간은 성장하고 사회는 변화한다.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빨라지고 있어서, 그 변화의 바람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며 진화해야 한다. 물론 학교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 교사들은 요즘의 아이들, 요즘의 학부모님과 소통하며 교육의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눈에 띄게 뛰어난 교사는 못되더라도 내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그래도 좋은 선생님 만나서 알차게 한 해를 보냈다’라는 기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나를 애써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더 힘든 한 해였다. 코로나-19가 점점 가깝게 느껴지고 온라인 개학, 재택근무가 시작되는 경험을 하면서도 곧 모든게 제자리를 찾을거라 기대했었다. 단지 시작이 좀 늦어질 뿐, 곧 작년과 비슷한 올해가 시작될 줄 알았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원격수업에서 깊은 연구 없이 기존의 영상들만 찾아 도입하면서도 마음이 그리 무겁지 않았던 이유가 말이다. 곧 아이들이 작년처럼 등교하기 시작할거고, 수업결손이 보이는 부분들은 더 열정적으로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코로나-19는 찾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어찌다 등교일에 만나는 아이들은 예상보다 많은 것을 ‘모른다’고 대답했다. 부랴부랴 수업에 필요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공부하고, 교육과정의 내용을 원격수업으로 가르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예전보다 아이들로 북적거리는 날은 적어졌지만, 학교는 더 바빠졌다. 40분 수업을 위한 영상을 만들다보면 두세시간은 훌쩍 지나갔다. 자주 만날 수 없는 아이들과 보내는 등교일은 더 알차게 구성해

야 하기 때문에 수업내용 선별과 재구성은 필수였다. 전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초등학교의 특성으로 인해 교재 연구에 필요한 시간은 늘 부족했고,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던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사들은 뭉치기 시작했다. 동학년 단위로 과목을 나눠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서로 의견과 자료를 공유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갈등이 있기도, 힘겨웠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성장했던 것 같다.

설마설마 했지만 올해 안에 전면 등교수업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무게가 실렸고,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계속되었다. 아이들의 안부를 물을 수 없는 것이, 아이들과 소통할 수 없는 것이 문제였다. 교사와 학생의 소통과 피드백을 위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답이 될거라는 생각에 동의했지만 문제가 있었다. 해 본 적이 없으니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연습할 시간이라도 좀 있으면 좋으련만 아이들을 마냥 기다리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조금 먼저 실시간 화상 수업을 시도했고, 학교에서 내 역할은 방법을 먼저 익혀서 동료 선생님들에게 전달해드리는 것이었다. 선생님들에게 쌍방향 수업 도구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며 ‘될때까지 도와드리겠다’ 말씀드릴 때에는 비장한 마음마저 들었다.

“애들아, 잘 지냈어요? 우리 화면으로라도 마스크 벗고 만나니까 더 반갑구나.”

아이들과 처음 화상수업을 진행하던 날에는 웹캠 앞에서 어찌나 어색하던지. 카메라 렌즈를 봐야 하는데 눈길은 자꾸 화면 속 아이들을 향했다. 화상수업을 부모님도 함께 보고 계실지 모르는데, 혹시나 수업 영상을 녹화하는 아이가 있는건 아니겠지? 걱정이 앞서면서도 마스크를 벗은 얼굴을 서로 마주하고나니 반가우면서 서글펐다.

여기까지가 과거형의 이야기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던 2020년은 이제 저물어가고 있는데, 아직 ‘코로나-19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속수무책으로 상황에 휩쓸리고만 있지는 않다는 것, 원격수업이 우리 교사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뛰어난 전문가들이 코로나-19를 물리칠 방법을 내놓을 때까지, 우리는 지금껏 쌓아온 토대 위에 더 나은 교육의 성과를 올리고 모양을 다듬으며 아이들을 지키면 되는 것이다.

화상수업을 통해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된 선생님들이 자랑스럽고, 화면 속에서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어주는 아이들에게 감사하다.

애들아, 화면 속에서라도 마스크 벗은 얼굴을 만날 수 있어 반갑구나!

쌍방향 원격수업



영중초등학교 교사 이지희

보이나요? 들리나요?

인터넷 선으로 연결되어 만나는 곳

소리가 안 들리는 곳, 소리 없는 아우성

화면이 보이지 않는 어둠에 이름 석자만 덩그러니

키보드를 두드리고 마우스를 움직여도

너와 나의 거리는 모니터 30cm이지만

실제로는 몇 km 떨어진 곳

학교와 집 사이에 장막이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곳을 한줄기 빛처럼 인터넷 선으로 통과하여

나에게 닿기까지 가깝지만 멀게 느껴진다

매일 아침 외치는 소리 “보이나요? 들리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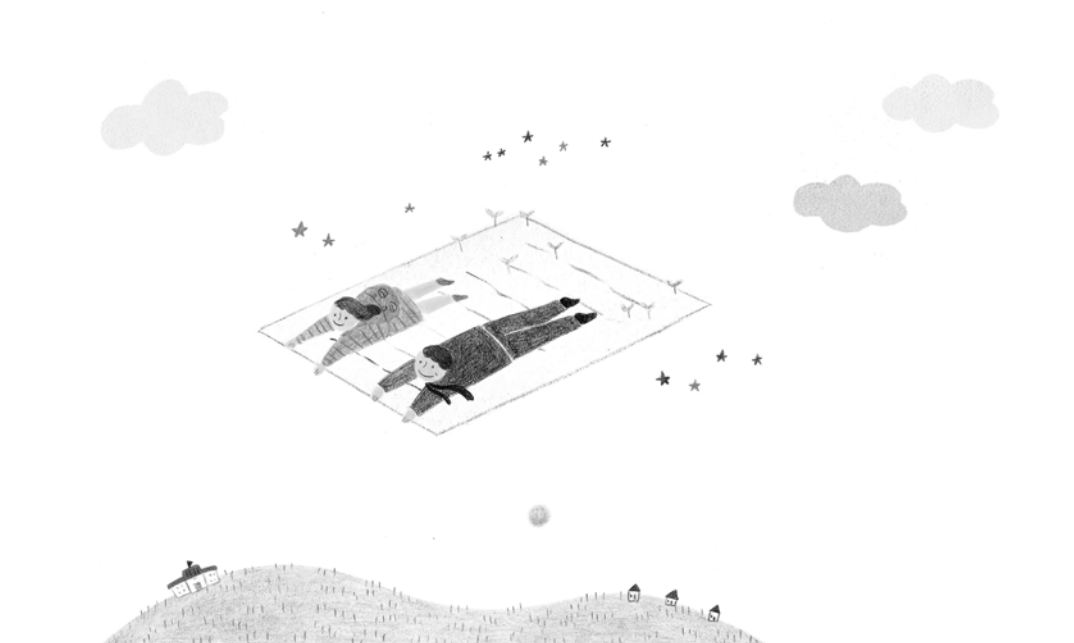
흔들리는 화면으로 뿌영게 보이는 화면으로 학생이 보인다.

오늘도 힘들지만 힘차게 공부한다

갑자기 사라지는 화면으로 학생이 보인다

집 배경만 보이는 빈 화면

학생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
나는 알 수가 없지만 다시 돌아온 학생과 함께 힘차게 공부한다
갑자기 학생이 사라진다
‘어’ 학생이 보이지도 학생의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는다
다시 들어와서 힘차게 공부한다
질문에 발표하는 학생의 목소리가 울린다
동굴에서 마이크로 말하는 것처럼
오늘도 힘들지만 힘차게 공부한다
어서 빨리 학생들이 보이는 곳으로
나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그 곳으로 돌아오길 기다린다
오늘도 쌍방향 원격수업을 한다



언택트(Untact) 시대, 그래도 컨택트(Contact)



덕산중학교 교사 함 훈

최고의 방역활동 언택트

코로나-19는 우리의 삶과 일상을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았다. 한 달 이상 지속된 개학 연기와 등교-원격수업을 번갈아 가며 반복된 학사일정은 학생들과 일선의 교사들에게 혼란을 주었지만 언택트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본으로 한 방역활동은 가장 확실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는게 자명했다. 그러는 와중에 학생과 교사의 대면만남에서 형성되는 라포(Rapport)를 기대하기는 힘들었고 다만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을 해치지 않고 가정에서 안전한 일상을 보내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처음 겪는 전염병 위기 상황은 교직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가장 큰 변화는 원격수업이었다.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체육교과는 대면만남(신체접촉), 신체활동, 교사의 관찰을 핵심으로 하는 교과였고 그러한 활동이 전면 중지된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준비하는 것은 여간 막막한 일이 아니었다. 결국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며 언택트와 개인연습을 골자로 하는 뉴스포츠, 스포츠 스태킹에서 답을 구했으며 같은 공간에서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땀흘리고 소통하고 싶었던 나만의 욕심은 접어두기로 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었고, 최고의 방역활동은 바로 언택트였기 때문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교직사회의 일원이다.

처음의 막막함과는 다르게 수업준비와 원격수업의 진행은 순조로웠다. 원격수업과 관련된 각종 연수, 학교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 플랫폼, IT장비의 개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얻은 언택트 체육수업 방식과 수업자료 공유가 수업준비의 막막함을 해결해주었다. 개학 연기 상황이 지속될 때, 학교의 존재와 역할

에 대한 의구심을 품은 일부 시선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우리 선생님들은 정체성의 위기가 생길 수도 있는 그 상황을 원격수업 시스템 정착의 계기로 삼으셨다. 우리 선생님들의 자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심지어 대한민국 교사로 교직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부심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마침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발생한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의 비위, 전공의 진료중단 파업 등과 비교하건대, 교직사회의 하나된 순수함과 열정은 실로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따뜻한 스마트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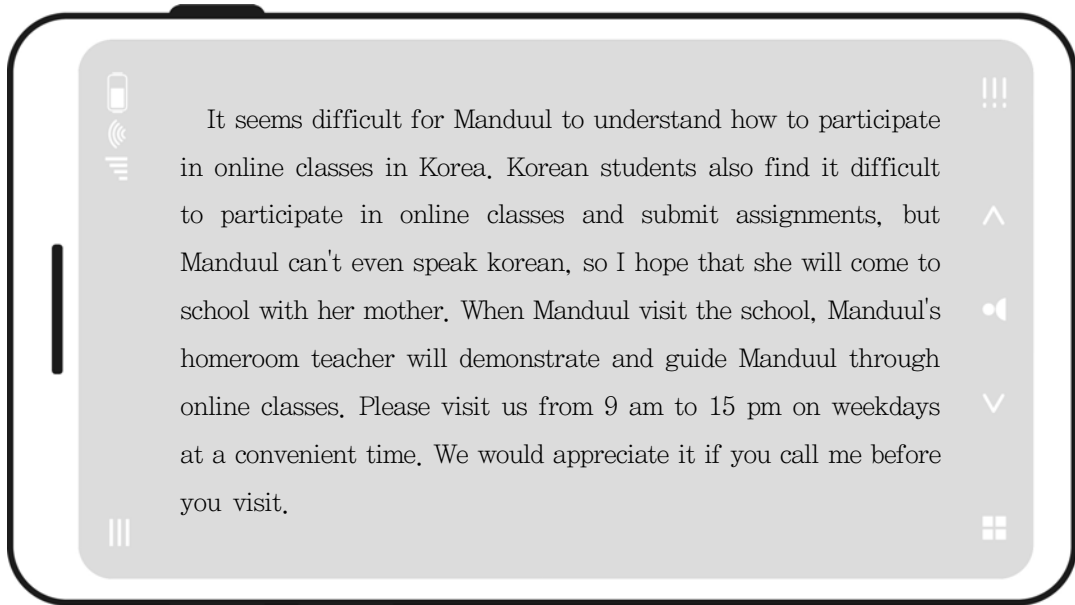
나 역시도 교직경력 2년차의 순수함과 열정으로 가득찬 교사였을까? 학생들과 전화로 주고받는 목소리, 문자로 주고받는 대화가 뭔가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교내 방역활동, 원격수업 플랫폼과 원격수업 문화의 정착, 교과특성과 언택트 방식을 모두 고려한 수업내용의 선정 등 나에게 주어진 일을 등교-원격수업 상황변화에 알맞도록 차분하게 해결해 나갔다. 하지만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 하나, 아니 한 명 있었는데 ODBAYAR MANDUUL. 우리반의 몽골인 여학생 ‘만돌’이었다.

만돌은 원격수업 아침조회 출석체크도 하지 않았고 콘텐츠 활용 수업의 과제도 가뭇에 콩 나듯 제출해서 각 교과 선생님들의 주요인물이 되어있었다. 나 역시도 ‘어디 등교해서 보자’라는 마음이 짝트고 있었는데 매일 같이 전화했지만 만돌과는 고사하고 부모님도 전화를 잘 안 받으셨다.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만돌의 ‘I don't know, I'm sorry’문자 또는 영어를 할 줄 아시는 만돌 아버지의 부재중 확인 전화가 왔고 서로 “OK?”, “OK!”만 자신있게 주고 받는, 전화를 끊고서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그런 글로벌한 대화를 나누기만 했다.

만돌이 아니더라도 원격수업 플랫폼을 이해시키고, 등교기간에 비해 여러 생활습관이 불규칙해진 학생들에게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전화통화는 필수였는데 점심 무렵이 되면 늦잠을 잔 학생, 과제제출을 깜빡하고 잊어버린 학생, 스마트 기기에 문제가 생긴 학생 등등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과 모두 통화를 완료했고 스마트폰은 어느새 따뜻해져 있었다. 그러고선 한숨 돌리면 만돌의 영어 문자를 확인하거나 짧은 영어 대화를 주고 받는, 만돌 아버지와의 그 전화통화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만돌 아버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진전이 있었는지 점점 만돌과의 통화횟수도 늘어났고 나는 그 전화통화가 부끄러워 교무실을 떠나 교실에서 전화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OK?”, “OK!”만 자신있게 주고 받는 그 전화통화를 말이다.

우리 만나요! 아이 원트 콘택트? 콘택트?

나는 결단을 내려야했다. 웃픈 이야기지만 영어 실력의 부족으로 인해 짧은 영어를 계속 구사할 수도 없었을뿐더러 게으름과 부족한 능력 탓에 단기간 영어실력을 늘릴 수도 없었다. 만돌의 영어실력도 그렇게 능숙해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내 노력부족을 합리화해주기도 했다. 답답함은 커져갔고 누적된 미제출과제의 양과 교복, 식자재꾸러미, 원격수업 IT장비 지원 등등 여러 행정처리를 위한 안내는 쌓여만 갔다. “선생님 이제 영어 안 할꺼예요! 만돌은 한국에서 지내고 있고, 한국말 배워야 합니다. 우리 만나요! 아이 원트 콘택트? 콘택트!” 만돌을 학교에서 보리라 마음먹고 내뱉은 말이었다. 속이 시원했지만 그러고서는 다시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영어로 번역하여 만돌과 만돌 아버지께 보냈다. 이 좋은 시대에 인터넷을 통해서 번역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왜 대화로만 소통하려 했는지 후회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나는 만돌을 만나기로 했고 학교에 오거든 그간 쌓아두었던 일들을 다 해결하게 하고 돌려보내리라 마음먹었다.



ODBAYAR MANDUUL(만돌)과 부모님께 보낸 영어 문자메시지

수줍음 많은 몽골 소녀

만돌은 등교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아님 두려움 때문인지 아침 일찍 학교에 도착했다. 처음 만난 만돌은 “안녕하세요.”라는 어색한 한국말과 함께 공손하면서도 수줍게 인사를 했고 나는 나도 모르게 활짝 웃으며 우리 학교의 인사말 “사랑합니다.”로 답례를 하고 있었다. 그날 만돌에 대한 그동안의 오해를 풀 수 있었다. 아버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 유학중인 학생이어서 늦은 오후에서야 통화가 가능했던 것이고 아버지, 어머니, 동생 둘. 이렇게 온 가족 5명이 한국에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영어로 공부하시는 아버지 덕에 나와 조금이나마 소통할 수 있었고, 어머니는 한국어, 영어 모두 서툴러 연락을 피하셨다고 했는데 만돌도 서툰 한국어와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부끄러워 영어로 문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에선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럼에도 나는 단호해야만 했다. 그간에 밀려온 과제가 쌓여있었고 외국인 학생의 부적응이 만돌 개인에게도 학급 분위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읽기, 쓰기, 듣기 등 한국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50% 미만이라는 점을 서로 확인했지만 만돌은 구글 번역기와 짧은 영어, 손짓으로 질문해가며 밀린 여러 가지 것들을 차근차근 해결에 나갔다. 정 모르는 과제에 대해서는 빈 칸으로 남겨두는 것으로 합의를 보면서 말이다. 원격수업 과제제출과 각종 안내를 전달한 하루가 지나고 나서 나는 만돌이라는 이 특별한 학생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작년에 한국에 와서 아버지의 박사 학위취득 후 몽골에 돌아간다는 것, 한국에서 일하시는 어머니를 대신해 만언니로서 동생 2명을 집에서 돌보고 있다는 것, 가족이 지어주고 한국에서 불리길 원하는 이름은 ‘김지연’이라는 것, 몽골에서는 줄곧 학급회장을 하며 학업성적도 우수한 모범생이었다는 것, 한국 학교에서는 부진아로 취급될 수 있어 걱정된다는 것, 장래희망은 몽골 대통령이라는 것.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서야 만돌, 아니 지연이는 단지 수줍음 많고 한국에 적응 못하는 외국인 학생이 아니라, 학업에 대한 포부와 함께 포용력, 영특함 마저 지닌 한국 유학과 몽골 엘리트 학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관심과 지연이 본인의 한국 학교문화 적응에 대한 의지로 인해 우리 둘의 만남, ‘컨택트’는 원격수업 기간임에도 매주 2회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로 했다. 홀로 학교에 온 지연이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 해결하지 못했던 각 교과별 과제를 제출하기도 했고, 국어 선생님의 한국어 특별과외, 소소한 일상을 한국어로 대화하는 담임교사와의 프리토킹 시간을 꾸준히 보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홀로 학교에 나와 빈 교실에서 차례로 마주하는 선생님들의 요구와 내 나름대로는 학교 적응과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배려한다고 했던 것이 지연이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겠다 싶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연이는 학교에 잘 나와주었고 간단한 대화는 불편함 없이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원격수업 기간을 알차게 보냈다고 자축할 무렵, 우리 학교의 등교 일정도 확정되고 어느새 등교한 학생들로 학교는 활기를 띠었다. 나 또한 기다리던 학생들을 학교에서 만나게 되니 적당하게 기분 좋은 긴장, 견딜만한 육체적 피곤, 뭉클하게 차오르는 보람을 한데 섞은 생동감을 느끼곤 했다. 하지만 지연이는 초등학교 졸업 후 급격하게 바뀌어 버린 학교문화와 방역활동·수업이 혼재된 그 생경한 상황에 적응하기 어려워했다. 한 두번 지각을 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연락이 두절되어 결석한 날이 생기게 된 것이다. 오후 즈음이 돼서야 지연이에게서 온 문자메시지 한 통의 요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학교에 오지 못했다는 것, 아버지가 몹시 슬퍼하는 까닭에 연락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지연이 아버지께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한 통의 문자만을 남기고 조만간 전화 통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짜장면에 담긴 이야기

지연이 아버지에게서 온 답장 메시지와 한국어를 잘하시는 지연이 고모와의 전화를 통해서 지연이의 거짓말은 들통나고 말았다. 지연이는 집에서 두 동생을 돌봐야 하는 역할로 피로감도 쌓여있었고, 어느덧 사춘기에 접어든 나이였다. 게다가 등교개학이 되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될 것을 기대했을텐데, 막상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채 제자리만 지킬 뿐 교실은 어색함으로 가득차 있었으리라. 나였어도 참 학교 가기 싫었겠다 싶었다. 아버지와 함께 학교에 온 지연이는 많이도 혼이 났는지 아버지의 등쌀에 크게 고개 숙이며 인사하고서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것 같은 표정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한 목소리로 “선생님,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부모님께 혼이 나고 풀이 죽어 학교에 온 모습이 안쓰러워, 되려 내가 더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다.

하루는 지연이가 우리 반의 다른 친구들 3명과 함께 원격수업 기간에 등교해야 했는데, 어느덧 점심 시간이 되고 말았다. 급식도 제공되지 않는 그때, 나는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도 있으면서 특별한 감정을 자아내기로 유명한 음식인 짜장면을 시켜 먹기로 했다. 단, 오늘 등교한 ‘원격수업 과제제출

특공대'들은 밀린 과제를 다 제출하고 가야만 했다. 이때 나는 지연이가 한국에서 짜장면을 처음 먹어 본다는 것과 짜장면이 입에 잘 맞았는지 남김없이 다 먹은 것을 알았다. 지연이가 한국어 프리토킹을 하면서 들려준 몽골의 전통음식은 맛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입맛에 맞았던 짜장면에 대해서 더 설명해주고 유명 가수의 노랫말처럼 짜장면에 담긴 한국인들의 정서와 사랑에 대해 말해주고 싶었지만,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그 마음을 접어두었다. 나중에 지연이가 더 커서 한국 문화를 많이 이해하고 사제시간의 정을 깨닫게 된 날이 온다면 하려던 그 말을 꼭 해주리라 하면서 말이다.

우리의 컨택트는 계속된다.

지연이는 내가 편해졌는지 늦은 시간에도 문자를 보내왔다. “내일 학교 가요?”, “과제제출 어디서 해요?”, “내일도 줌(zoom) 수업이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선 마지막에 꼭 보내는 파봉 이모티콘.

한 달 남짓의 1학기 등교기간은 교실 안의 어색함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2학기 들어 겨울을 맞이하는 지금에서는 어느덧 친구들의 얼굴과 이름도 서로 익히고 교실도 시끌벅적해가는 듯하다. 그 익숙함과 시끌벅적함 속에서 나는 마스크 너머 아이들의 미소를 보곤 한다. 지연이도 친구들 틈에 슬쩍 끼어 어울리기도 하며 처음의 당황한 표정보다는 교실 안에서의 동선과 몸짓에서의 여유, 마스크로 입을 가렸음에도 여실히 드러나는 미소를 보여주곤 했다. 모범이 되는 어른 또는 친구의 언행, 나와 다른 생각을 이해하는 넓은 마음,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기술, 진심에서 드러나는 표정과 몸짓, 가족이 아닌 사람과 눈빛을 나누며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는 정... 이런 것들이야말로 지연이를 포함한 우리 아이들이 미소 짓게 해주는 것들이 아닐까? 학교에서 컨택트를 통해 나눌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컨택트 공간으로 남아야 할 최후의 장소가 있어야 한다면 그곳은 바로 학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의 미소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으며 나와 지연이가 그러했듯이 언어, 문화, 세대의 장벽을 넘어 소통할 수 있었던 공간이 바로 학교였기 때문이다. 끝으로 덧붙이는 분명한 사실 하나, 아무리 언택트 시대라고 한들 원격수업 기간에도 계속된, 먼 훗날에도 계속될 우리들의 컨택트가 있다라는 것.

신규교사의 원격수업 적응기



남양중학교 교사 송예림

신규교사로서 부푼 꿈을 안고 들어선 교실은 코로나-19로 인해 텅 빈 상태였다.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원격수업을 맞이하게 되었다. 막막함에 연락드린 은사님께서는 “나도 모든 것이 낯설다. 원격수업에서는 나도 너와 같은 신규야.”라며 걱정을 내비치셨다. 시시각각 변하는 등교 일정 속 고생하시는 선배 선생님들과 학교에 나오지 못한 채 지루해하는 아이들, 난감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빈 교실을 꾸미고 문자 및 전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아이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만나는 것이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언제 끝날지조차 모르는 원격수업의 시작이었다.

막막함을 덜고자 먼저 한 일은 시중에 출간된 원격수업 관련 서적을 읽고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었다. 다시 임용시험 2차 준비를 시작한 느낌이었다. 원격수업이라고 하니 대형 학원의 인터넷 강의 등 교사 중심 수업이 먼저 떠올랐는데, 수많은 아이를 데리고 어떤 방식으로 학생 중심 수업을 진행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다. 무엇보다 모둠 활동도 어렵고 아이들을 자주 만날 수 없다 보니 학생들의 이름과 얼굴을 외우는 데도 오래 걸리게 되고 플랫폼에 가입 및 적응시키는 등 번거로운 점이 있었다.

마침 교사 커뮤니티에 한 선생님께서 원격수업 교사연구회를 모집하고 계셨다. 신규 교사이긴 하지만 용기를 내어 원격수업 교사연구회 ‘커넥티처’에 참여하게 되었다. 교사연구회 활동을 하며 매주 원격수업과 관련된 다양한 게시물을 제작하여 다른 학교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현직 교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원격연수 운영을 돕기도 했다. 연수비는 전부 기부했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 희생과 열정을 바탕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분량상 다 쓸 수는 없지만, 정년을 앞두시고도 활발히 원격수업을 연구 및 진행하고 계신 수석 선생님과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및 자발적 교원 연수를 통해 구글 클래스룸, 패들렛, MS팀즈, 멘티미터, 아이캔노트 등 다양한 온라인 수업 툴을 배우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었다. 책에서만 보던 집단 지성의 힘을 체감하며 협업을 통해 더 나은 수업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원격수업에서 Zoom의 화면 공유, 손들기, 비밀 채팅 기능을 통해 아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가자 주식 기능을 활용하여 퀴즈를 진행하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뿌듯했다. 교내 대회인 ‘릴레이소설쓰기대회’도 원격으로 진행했는데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링크를 보내고 소설을 쓰는 게 보이도록 비디오를 켜놓도록 했다. 완성작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취합했는데 다들 열성적으로 참여해주었다. 교과주간에는 교과 선생님과 ‘문학 작품의 재구성’을 주제로 소설 〈소나기〉에 대한 북 트레일러를 제작 및 발표하는 수업을 기획했다. 원격수업 기간에는 정보 교과와 연계하여 영상 제작 방법을 설명하며 북 트레일러를 제작하도록 돕고, 등교수업 기간에는 학생들이 북 트레일러를 발표하고 동료평가(피드백)를 진행하며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 및 의사소통 역량을 발휘하도록 했다.

2학기부터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전면적으로 이뤄졌다. 조회부터 종례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링크를 올리고 아이들이 모두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교무실은 콜센터와 같이 변했고 나도 내가 앵무새인지 교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자가진단했니? 늦지 말고 수업 들어와라.”라고 반복하는 일이 잦아졌다. 온종일 원격수업을 듣느라 지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섰지만 힘들고 지치는 건 교사인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중 작은 깨달음을 준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반에는 평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원격수업에 자주 결석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매시간 이번 교시에는 아이가 무사히 수업에 참여했을까 걱정이 됐고, 교과 선생님께서도 결과처리가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죄책감까지 들곤 했다. 학부모님께도 여러 번 협조를 부탁드렸지만, 환경상 곤란하신 모양이었다. 고민 끝에 등교수업 기간에 아이와 개별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숙련된 노하우나 경험은 없었지만, 내가 먼저 속마음을 털어놓자 처음에는 “그냥요. 모르겠어요.”라는 형식적인 대답만 하던 아이도 서서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이는 자신의 꿈을 말하며 원래 호불호가 강한 편이라 관심 없는 과목은 공부하기가 싫다고 했다. 특히 원격수업은 매시간 스스로 접속해야 하니 자거나 판짓을 하다가 놓칠 때도 있다고 했다. 이야기를 들은 후 아이에게 미래에 지금 네 모습을 돌아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지 물어보았다. 그리고 꿈을 찾은 건 정말 훌륭한 일이지만, 교과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들어간 수업을 무시하는 건 예의에도 어긋날뿐더러 앞으로 너의

성장에도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다행히 아이는 대답을 곤잘 하며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이 스스로 수업에 성실히 참여해보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듣고 “우리 사람이니까 다시 흐트러지고 약속을 어길 수도 있어. 하지만 그래도 다시 널 믿어줄 거야.”라고 말해주었는데, 자신을 계속 믿어준다는 말에 살짝 놀란 표정이었다. 그 모습이 뭔가 쫄하기도 하고 긴 시간 상담에 성실하게 임해준 게 기특해서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상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 그 뒤로 아이는 원격수업에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있다. 전과 달리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이 그리 기특할 수가 없다. 나도 아이들도 원격수업이 처음이라 여전히 서툴고 벅차지만 그래도 서로를 믿으며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었지만, 이 또한 우리 교육이 미래 사회에 맞춰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원격수업을 통해 대한민국 교사의 저력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고, 나 역시 학생들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다. 오늘도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동료 선생님들과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주는 아이들을 보며 다시 힘을 내 본다.



신규교사, 온라인 수업의 닳을 올리다



광주중학교 교사 최수아

‘최종 합격을 축하합니다.’ 내 심장은 떨리다 못해 쿵 내려앉았다. 좋은 교사가 되겠다는 일념 아래 밤낮없이 공부하던 나날에도 끝은 있었다. 합격 발표가 고지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어느새 교무실에 앉아 있었다. 아직 임용시험에 합격했다는 얼떨떨함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첫 제자들과 만나게 될 3월을 목전에 두고 긴장감에 밤을 지새웠다.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이토록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시행착오가 차고 넘쳤던 1학기

등교 개학이 미뤄지고, 아이들과의 첫 수업을 골똘히 구상하고 있던 나는 가정학습 자료를 제작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해야 했다. 3·4월은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혼란에 빠진 시기였기에 정상적인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저 아이들이 게시판에 올린 과제를 꼼꼼히 읽고선 피드백이 담긴 댓글을 달아주는 수준으로 만족해야 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각급 학교들은 저마다 원격수업을 진행할 주요 플랫폼을 선정하기 시작했고, 우리 학교는 EBS 온라인클래스를 택했다. 과제 제시형 수업보다 더욱 효과적인 학습을 이끌기 위해서는 영상 제작이 필요했다. 공람 문서를 꼼꼼히 살피면서 원격 수업과 관련된 연수를 모조리 신청해 들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연수는 경기도 언어교육연수원에서 기획한 <쉽게 접근하는 온라인 수업 원격연수>였다. 해당 연수를 통해 얻게 된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실제적인 수업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을 습득해 나갔다.

1학기 때 내가 준비해야 했던 수업은 영화에 드러난 도덕적 이슈를 탐색하고 토론하는 주제선택 활동이었다. 영화 시청은 그렇다 쳐도, 토론 활동을 어떻게 온라인 수업으로 구현해 낼지 막막했다. 1학기 초까지만 해도 ZOOM이나 MEET 같은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플랫폼을 알지 못했기에, 온라

인클래스 내에서 토론을 구현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고민 끝에 온라인클래스의 토론 탭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받고, 이를 분류하여 수업 영상에서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게재 된 수업 영상은 비록 실시간은 아니었으나, 수업 자료가 띄워진 화면 한쪽에 교사가 설명하는 영상을 포함하여 실제 수업 현장과 유사하게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화면에 교사의 얼굴을 노출한다면 비록 온라인 수업 상황일지라도 학생들의 집중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

한편 나는 일주일에 8시간씩 순회교사로 근무하는 학교의 온라인 수업도 담당해야 했다. EBS 온라인클래스를 활용하기로 한 우리 학교와는 달리, 순회학교에서는 구글 클래스룸을 택했기 때문에 두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1학기에는 두 학교가 택한 플랫폼에 익숙해지는 데만 해도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다.

국회 교육토론회로부터 얻은 교훈

사회의 요구에 발맞추어 부지런히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원격수업이 지향해야 할 바를 확정 짓지 못해 혼란스러웠다. 그러던 와중 우연한 계기로 참석한 국회 교육토론회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였다. 열띤 토론이 거듭되면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문제의 핵심은 코로나-19시대에 생겨난 교육격차였다. 원격수업 상황이 이어지면서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가 크게 떨어지고, 이에 따라 수업 결손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문득 지금까지 내가 ‘교사의 입장에서’ 영상을 잘 만들어 배포할 생각만 했지, 그러한 수업 영상을 통해 학습하는 학생들의 입장까지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미쳤다. 수업 결손과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수업을 고안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위드(WITH) 코로나-19’ 시대는 블렌디드 러닝이나 거꾸로 수업과 같이 기존에는 혁신적으로 여겨졌던 교육 방식이 일상으로 편입되도록 도왔다. 중세시대의 흑사병이 봉건제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듯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오히려 기존 교육 체제에 산재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미래 교육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상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몰랐다.

2학기, ‘목표기반 시나리오’를 구상하다

온라인 수업 기간에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개개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막아야 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흥미를 갖도록 만들어야 했다. 여름 방학 내내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다. 모든 학생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을 구안할 수 있을까? 문득 한창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퍼붓던 교육연구의 요소를 활용하여 목표기반 시나리오를 구상해 보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목표기반 시나리오(GBS, Goal-Based Scenarios)는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관심을 가진 구성주의 모형으로, 학생들이 실제적인 맥락에서 시나리오에 따른 역할을 행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정해진 목표를 성취하도록 하는 교수학습모형이다. 이와 같은 모형이 네트워크 내 상호작용이 가능한 e-러닝, 즉 컴퓨터 기반 학습환경에서 특히 강점을 발휘한다는 것에서 모티브를 얻어 2학기 온라인 수업의 틀을 짜기 시작했다.

2학기 수업 테마를 “수아쌤과 떠나는 도덕 여행”으로 잡고, 각 소단원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여행하게 될 마을(이를테면 ‘북한 이해’ 마을이나 ‘통일 한국’ 마을) 지도를 만들었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가 남자 중학생들로만 구성돼 있다는 데 착안해 수업마다 달성할 수 있는 크고 작은 퀘스트를 마련하여 게임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했고, 학생들이 이를 달성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안했다. 최대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배움의 윤곽을 잡아 수업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각 마을 속에서 ‘여행자’ 역할을 맡게 되는 학생들은 NPC(도우미 캐릭터)인 교사의 도움을 받아 주어진 퀘스트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북한 이탈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설명할 수 있다>는 배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평양에 전학 간 남한 학생의 역할이 되어 보거나, 북한 이탈 학생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원의 역할을 맡는다. 상담원이 된 학생들의 조언은 구글 설문 등과 같은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주어진 학습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처럼 학생들은 가상 마을에 있는 광장이나 박물관, 마을회관 등에서 그때그때 역할을 바꾸어가며 자연스러운 학습을 이어나갔다. 목표기반 시나리오를 활용한 수업 영상은 학생들이 구글 설문이나 패들렛을 통해 제출한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제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을 포함하였다.

온라인 수업이 내게 선물한 것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지는 것은 신규교사인 내게 어마어마한 도전 과제였지만, 어려웠던 만큼 다양한 이점을 안겨주었다. 교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학생의 입장이 되어 ‘맞춤형 수업’을 고안하여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화면에 비친 나의 표정과 몸짓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는 자기 장학의 기회로 작용했다. 올 한 해의 경험을 통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지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형 교사로 한 발 나아갔음을 느낄 수 있었다.

무모한 도전이 내게 준 감동

충의중학교 교사 김순영



우리의 토요일을 책임졌던 장수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을 참 좋아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때론 무모했고, 때론 무리했던, 그들의 도전이 좋았다.
 실패하면 실패한대로 감동이 있었고,
 성공하면 성공한대로 짜릿함이 있었다.
 그들의 무리함과 무모함이 한데 어우러 무한 도전을 감행하고,
 그 도전은 늘 무한한 감동을 전해주었다.
 지난 2주간의 내가 그랬다.
 몰라서 용감했고, 용감해서 시작했다.
 무모했고 무리한 도전이었음을 안다.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건 나도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두려움이 차올라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미안함을 무릎쓰고 담임 선생님들께 도움을 청했다.
 기꺼이 주신 도움을 감사히 받았고, 그렇게 온라인 수업방을 열었다.
 땡땡 땡땡~ 아이들이 하나 둘 들어온다.
 이 녀석들이 존재하고 있기는 한지, 알 수 없었던 콘텐츠형 온라인 수업,

가끔 과제를 부여하고 받아본 아이들의 반응이 다였던 지난 수업과는 다른, 생동감이 느껴졌다.

아이들과 실시간 화상으로 만나 호흡을 맞추던 순간의 감동~

아이들이 잘 찾아 들어올까?

강의를 위한 공유 화면은 잘 보일까?

공유해준 영상은 잘 보이고 들릴까?

아이들을 초대한 나는 이래저래 걱정이 된다.

'잘 보이니?', ' 잘 들리니?' 묻는 말에

'잘 보여요', '잘 들려요' 대답해주는 아이들과 조금씩 호흡을 맞춰가며,

무사히 첫 수업을 마치고서야 안도의 숨을 내쉰다.

그러나 안도의 숨 뒤에 보이지 않는 한숨이 시작된다.

출석체크를 하고 '접속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연락을 시작 한다.

모르는 번호이니 안받는 녀석들이 제법 많다.

문자를 남겨보지만 회신율이 만족스럽지 않다.

결국은 담임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1주일은 버텨 본다.

2주차가 되면서는 담임 선생님의 도움없이 도전해 보기로 했다.

첫날부터 접속을 하지 않은 아이들이 속출한다.

아이들에게도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겠다 싶어 접속 못한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접속을 못한 이유를 물었다.

이 녀석들 이유도 다양하다.

그 이유들중 단언코 1위는, '몰랐어요~!!'

온라인 클래스, 학급 밴드, 교과 클래스룸에까지 올려놓은 대문짝만한 공지글,

제대로 읽지 않고 흘려 넘긴 녀석들이 대부분이다.

제 시간에 수업을 듣지 않고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놓친 녀석들이다.

2위, 잠들었어요~!!

아침에 출근하시며 깨워 주셨는데, 깜박 잠이 들어 시간을 놓쳤다는 아이들,
교과 선생님 전화에 어쩔줄을 몰라한다.

'죄송해요 다음부터 잘 들어올게요.' 말하는 아이들, 마음이 약해진다.

3위, 어떻게 접속하는지 몰라요~!!

접속방법을 여러차례 오리엔테이션 해주었지만, 여전히 접속방법을 모르겠단다.

등교했을 때 휴대폰으로 함께 연습도 했었는데, 집에서는 접속 기기가 다양하다보니,
또 해매는 아이들이 나온다.

아이들도 처음 해보는 실시간 수업이니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지 이해가 된다.

이 아이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

'학교로 오세요'

다른 반 실시간 수업을 진행할때 교실로 와 함께 수업을 듣기로 했다.

교실에서 기기 접속부터 수업 듣고 과제 제출까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전과정을 함께 체험하고,

다음주부터는 접속을 잘 하겠노라 약속을 하고서야,

녀석들을 보냈다.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휴대폰을 보니, 확인해야 할 문자와 카톡이 한가득이다.

아이들과 통화가 안되어 부모님과 통화를 하게 된 아이들이 여럿 있었는데,

걱정되신 부모님들의 문자도 여럿 보인다.

부모님께서 야단쳐서, 깨워서 보내주신 덕분에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수업 잘 듣고, 접속하는 방법도 배우고 귀가했다는 답과 함께,

다음주부터는 가정에서도 살펴봐 주십사 부탁도 드려본다.

이렇게 나는 2주간 20시간의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했다.

힘들었지만 열정적인 2주를 보내고 나니, 여러 감정이 교차한다.

화상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함께 한다는 느낌이 좋았다.

추수지도가 시간적,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조금씩 품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을 보면 보람찼다.

처음이란 긴장감과 두려움을 함께 경험한 우리라는 생각에,

강한 동지애도 생기는 느낌도 들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하며 우리는 또 한뼘 성장해간다.

어찌보면 무모했고 무리한 스케줄이었지만,

덕분에 아이들과 급~ 가까워진 느낌이다.

다음주에는 더 잘할 수 있을거란 자신감이 차오르는 순간,

아뿔사~!!

다음주는 등교하는 주간이다.

다음주에 만나게 될 나의 아이들이 기다려진다.

무모한 도전이 우리에게 준 선물같은 시간들 감사히 여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많은 경험들 기쁘게 맞이해 보자.

조금 부족하고 실수해도, 함께 돕고 배우며,

그렇게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어 보자꾸나.

사랑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실패와 회복적 교육



충의중학교 교사 한지수

2020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모두에게 처음인 것이었다.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 없다. 온라인 수업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도 겨우 익숙해졌다. 화면 녹화하는 방법부터 다양한 화면의 효과와 아이들에게 과제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구글폼, 네이버폼, 패들릿과 라이브 워크시트까지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것을 취해야 하는지 선택하는 것도 오롯이 현장 교사들의 몫이었다. 겨우 적응이 되려던 찰나에 쌍방향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라는 것은 안개 속에서 등불 없이 아이들을 이끌어나가라는 것과 같았다.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원격으로 수업을 해나간다는 것은 결승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서로의 존재만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았다.

그 속에서 지난달, 나와 우리 반 아이들은 어떤 한 사건을 겪으며 서로 단단해졌다.

그 주간에는 쌍방향 수업의 도입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는 교과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금요일 수업은 7교시까지 있는데 한 교시를 제외하고는 6교시가 실시간 수업이었다. 아이들은 꼼짝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어야 했으며, 선생님들께서는 빈 교실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실시간 수업을 위하여 동분서주 해야 했다. 우리 반 영어 수업은 그날 5교시였다. 아이들은 오전 내내 실시간 수업으로 지쳐서 잔뜩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영어 실시간 수업 안 하면 안 되나요, 오늘은 쉬면 안 되나요, 투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아이들에게도 휴식과 여유가 필요했으며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수업을 듣기란 누구에게는 희망 고문과도 같았다. 아이들은 입을 모아 차라리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듣는 것이 낫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아이들의 의견들을 수용하고 들어주고 싶었지만 처음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고 시도할 때에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5교시가 되어 아이들의 출석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을 갖고, 영어 수업을 시작하였다. 교과서의 대화문을 들어보고, 문장을 하나씩 보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한창 수업을 하다가 수업을 시작한 지 30분쯤 지났을 무렵, 어떤 한 아이의 마이크가 켜지며, 한 목소리가 적막을 뚫고 나왔다.

“아, 온라인 수업 X같네”

그 순간 아이들과 나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채팅창에는 물음표와 아이들의 뜨거운 반응이 오고 갔다. 나는 점점 표정이 어두워져 갔다. 하필 또 그날은 우리 반 출석률이 100%였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 아이에게 방금 뭐라고 했는지 다시 얘기해보라고 했다. 온라인 수업도 엄연히 학교 수업인데 만약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은지 되물었다. 실제 수업시간에도 그런 언행을 했다면 선도위원회 회부였다. 고의로 그랬건, 그렇지 않았건 교권침해이고, 스스로 수업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수업시간에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입힌 거라고. 수업은 녹화가 되고 있었다. 모두가 그 증인이었고, 그 아이가 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 명백히 기억하고 있다. 분위기는 점점 심각해졌다. 아이들은 모두 똑같이 카메라를 끈 화면이었지만 그 누구도 어떤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교사로서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혼내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남은 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아이들에게 절대 퇴장하지 말고 오늘 배운 내용을 각자의 자리에서 복습하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적막만 계속 흘렀다.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고, 수업이 끝나갈 때쯤, 7교시 자치 시간에도 또 아이들과 실시간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날은 아이들과 온라인으로 끝말잇기 대회 등 학급 단합을 위한 게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머릿속 계획은 모두 무산되었다. 어렵게 입을 떼어 그 아이에게 오늘 7교시가 끝나면 교무실로 오도록 이야기했다. 수업 중 치기 1분 전, 5교시 수업을 마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때서야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실시간 수업방을 우르르 퇴장하였고, 원래 혼자였던 교실 공간에 정말 혼자 남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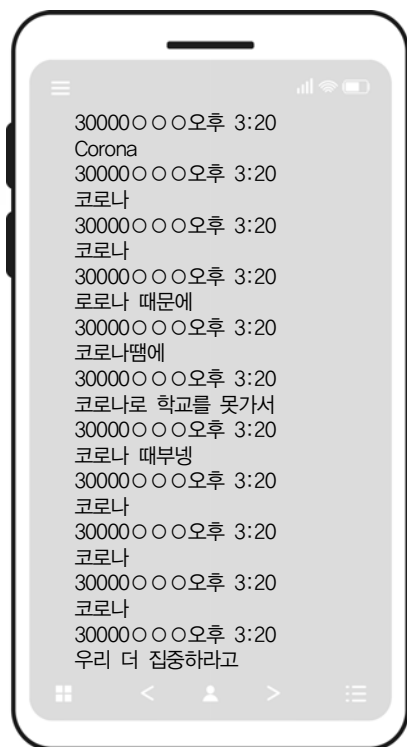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시 되뇌어보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온라인 개학을 시작하고 나서 끊임없이 노력해온 우리가 한 일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무엇을 위해 노력했고, 왜 이 일을 해온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우리는 왜 온라인 수업으로 영상을 만들고, 실시간을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교사로서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니었고, 모든 것은 코로나-19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다.

혼자 생각에 잠겨있을 때, 그 아이에게서 카톡이 왔다.

“선생님, 죄송해요.”

그 뒤에 내용은 자신이 어떤 상황이었고, 친구들과 있었는데 친구들이 온라인 수업 소리를 끄라는 등, 시끄럽다는 등 이야기하다가 마이크가 켜진 줄 정말 모르고 한 이야기라는 내용이었다. 그 아이도 자신이 의도하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교사로서 이럴 때 취해야 하는 태도는 공감과 이해와 수용이었다. 아이들이 오늘 하루 종일 온라인



수업을 실시간으로 듣느라고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그 상황에서 그 말이 나온 본인에게 놀랐을 것이다. 그 말이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들릴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아이들은 실수한다. 실수를 통해서 성장한다. 교사를 그것을 이해하며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르게 지도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7교시를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은 조금 전과는 달랐다. 상처를 받았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한다. 그 날 있었던 일은 그 날 풀어내는 지혜와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왜 이 상황에 있는 것인지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왜 우리는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을까? 그 누구도 마이크를 키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대답을 하기 시작했다.

↑ 실제 우리반 아이들이 대답한 내용

4월 9일 온라인 개학부터 온라인 수업이라고는 태어나서 처음 제작해보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밤을 새가며, 함께 온라인 수업 제작방법을 연구하고, 플랫폼을 정하고, 제작하고, 편집하고 영상을 올렸던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너희가 만약 선생님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은지 아이들에게

되었으면 좋겠는지, 스스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자신의 부족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스스로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반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이들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채팅창에 대답하였다.

수업시간에 욕설을 했던 그 아이는 자신의 단점으로 “근성이 부족하다, 집중력이 부족하다, 입이 험하다, 과제를 한 번도 안했다, 식욕을 참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순간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였다.

“자, 애들아, 그러면 우리 ◇◇의 장점을 이야기해보자”

아이들은 채팅창에 뜨겁게 반응하였다. 다리가 길다, 미소년과다, 웃기다, 빨리 인정할 줄 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등등 아이들은 정성을 다해 친구를 위로해주고 있었다.

우리의 7교시는 그렇게 훌쩍 지나갔다. 그 아이는 “선생님, 머리 감자 마자 갈게요!”를 남기며 7교시는 끝이 났다. 모든 것을 마치고, 아이들이 수업방을 나가자 깨끗한 물로 모든 것을 씻어낸 것처럼 속상한 마음과 화가 모두 씻겨 내려간 기분이었다. 그 아이는 정말로 금방 교무실로 달려왔다.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아, 한번 뺨은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다시 주워 답을 수 없어. 그래서 말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해.”

그렇게 한참 아이와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인사와 함께 학원에 갔다.

부장님과 있었던 일을 상의한 후에 그 아이는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회복적 교육을 하기로 하였다. “사이버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 교권침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등 아이에게 해당하는 조항들은 많았지만 우리는 모두 반성하고 있는 그 아이의 실수와 잘못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도와주신 부장님과 생활지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 다음 주에 회복적 교육은 잘 마무리 되었고, 아이의 부모님과, 아이와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는 이틀간의 교내봉사를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였다. 원래 계획되었던 끝말잇기대회 등 게임을 하지 못하고, 우리 반 수업을 방해한 것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우리 반 교실의 창문을 모두 뜯어내어 깨끗하

게 닦기로 하였다. 방과 후, 창문 닦기를 하고 있는 그 아이 주변으로 아이들이 모여들어 같이 도와주기 시작하였다. 아이들과 함께 창문 닦기도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의 또 다른 성장을 지켜볼 수 있었다.

올해의 아이들은 어쩌면 코로나-19가 키워낸 아이들인지도 모른다. 그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 스스로 많은 성취감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과 교사로서 스스로 성장하는 나를 발견하였다.

앞으로 수많은 실패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교사와 학생은 서로 함께 성장하는 존재이며, 그 배움을 멈춰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원격 수업은 어쩌면 우리에게 선물이었을지도 모른다.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하늘이 준 또 다른 기회인 것이다.



온라인수업과 공교육 그리고 퍼실리테이터와 교사



울곡중학교 교사 오선영

글로벌 보던 4차 산업혁명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가장 느리다는 학교가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급진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유감이지만 교육계에서 이런 속도전은 유래가 없었기에 반갑다. 지식은 이미 온라인으로 충분히 습득이 가능한 세상이다. 좋은 강의가 널리고 널렸다. 이미 누군가 만들어 놓은 강의만 잘 활용해도 수업의 질은 보장이 된다.

그렇다면 학교는 필요한 걸까? 교사는?

준비 없이 맞닥뜨린 온라인 개학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지만 덕분에 교육계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는 대표적 집단인 교사들은 이제 모두 유튜버가 되어야 하는 거냐며 불멘소리도 했지만 온라인 개학을 경험해 보니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술술 나오고 있다. 모든 일이 그렇듯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기 마련이다.

나는 이번 기회에 학교를 재정의 하고 사교의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백 년간 내려오던 학교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성찰해 봤으면 좋겠다.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금의 학교는 변화가 필요하다.

온라인개학을 맞아 내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학생 관리다. 아침에 출석을 잘했는지, 오늘 주어진 수업을 빼먹지 않고 다 들었는지 확인하고 게시판에 적힌 불편사항을 해결한다. 여기까지는 담임의 업무다.

수학교사로서는 온라인 수업을 위해 어떤 자료가 가장 효과적일지,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야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각자 다른 답을 유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 오히려 수업의 질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다. 나는 세상에 널린 자료 중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찾아서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것을 학습하고 나서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할지를 고민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구성원들의 생각에 맞서며, 한편으로는 독려하는 사람을 퍼실리테이터라고 부른다.

나는 지금 이 시기의 교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바로 퍼실리테이터라는 생각을 한다.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닌 정보를 조직화해서 학생들에게 최적의 상태로 가공해 제공하고 이들을 독려하는 역할이 참 마음에 든다.

실제 수업 시간이었다면 어땠을지를 떠올려 본다. 45분 수업 중 출석 확인 등 이런저런 정리를 위한 시간과 수업에 방해되는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는 시간을 합치면 못해도 15분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순수하게 지식 전달만을 위해 쓰는 시간은 30분 정도다. 효율성 측면에서 온라인을 따라갈 수 없다.

물론 나는 대면 수업의 장점도 알고 있다. 수업 중 아이들이 나로부터 자극받고 영감을 얻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기 때문이다. 친구들과의 협동 학습을 통해 훈훈한 사회생활을 경험해 보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역시 온라인이 불리하다.

세상 모든 일의 처음은 다 그렇듯 과도기의 부작용은 있다. 그러나 부작용이 무서워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발전은 요원하다. 4차 산업혁명이 이미 눈앞에 와 있지만 학교만 늘 뒤쳐지는 기분으로 살고 있었던 나는 그래서 이번 온라인개학으로 변화가 생기길 기대한다. 나 또한 전통적인 교사보다는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연습해야겠다.

두려움의 길



원일중학교 교사 이정진

I

벌써 1년이 되어간다. TV, 신문, 인터넷 게시판 곳곳에 새겨진 ‘코로나-19’라는 글자를 매만지며 생각해본다. 갑작스레 번져나가는 아픔들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였다.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오르내릴 때마다 마음은 불안해졌고, 확진자의 주소가 나의 주요 동선과 겹칠 때마다 내딛는 걸음 한발 한발은 멈칫거렸다. 먼 나라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 천재지변에도 하루 이틀 쉬던 학교에는 원격수업이라는 생소한 수업 방식이 들어오면서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II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은 소복소복 쌓여가고 있었다. 꽤 지나온 경력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것은 생활지도와 학교폭력 업무였다. 매번 같은 업무의 환경에 있다 보니 제자리 걸음을 걷는 느낌이 들었다. 수업도 제자리 걸음, 업무도 제자리 걸음. 변화가 없는 나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아이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지난 시간으로 다시 초기화하는 버튼같았다. 다행히 새로운 학교와 업무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긴장감을 주었고 업무에 변화를 주고 있었다. 2020년에 되면서 그동안의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바뀌어 새로운 학기의 판을 짜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시간이 지나니... 학사일정을 변경해야 했다. 다시 학사일정을 변경해야 했다. 내 잘못도, 교육청, 교육부 잘못도 아니었다.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의 시간은 지속되었다. 다시 두려움이 쌓이고 있었다.

III

발빠르게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왔던 선생님이 공식적으로는 한 분도 없었다.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지만 나 역시 가 본 길이 아니었기에 확신이 없어 머리가 복잡해졌다.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는데 전에 같이 연수를 받은 다른 지역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나의 생각에 힘을 실어 보았다. 플랫폼을 결정하고 학생들을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했다. 한번이 결정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식으로 고민하고 고민했다. 자주 바뀌는 결정에 선생님들도 많이 지쳐가는 것 같았다. 제대로된 연수물도 보조자료도 없었지만 꾸역꾸역 애들 모아주시고, 과목 개설해주시고, 수업 진행해준 선생님들 덕분에 차근차근 가상의 학교가 완성되고 있었다. 저마다의 공간을 만들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교육부보다 먼저 움직이고 다양한 정보와 공문도 발송해준 경기도교육청 도움도 많이 받았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교육부의 방침과 좀 달라 혼선이 있기도 했지만 잘 넘어갔다.

IV

1학기는 두려움과 긴장감이 줄다리기 하듯 팽팽하게 당기고 있었다. 이렇게 원격으로 진행되는 것이 뭔가 새로우면서도 끝나긴 할까하는 마음이 겹쳐지는 하루하루였다. 올해는 담임을 맡진 않아 아이들과 교감이 많지 않았고, 아직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을 온라인상에서만 만나는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렇게 코로나-19의 상황은 나아지질 않아 원격수업은 계속 이어지고, 나는 주사위 차레를 기다리는 듯 수업을 진행했다. 너 한번, 나 한번 그렇게 나도, 아이들도 뭔가 길을 잃은 느낌도 있었다. 그러다 첫 등교의 날 아이들을 보니 코끝이 찡했다. 아이들도 그랬을까? 그날의 마음가짐은 중요한 추억상자 속에 잘 간직해야겠다. 2학기는 쌍방향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수업자료를 만드는 것과 는 또 다른 경험이었다. 방학 동안 경험했던 실시간 쌍방향 강의 프로그램 사용법과 필기가 가능한 노트북은 큰 도움이 되었다. 아이들은 수업음이 많아 캠을 잘 켜지 못하였고 활기차게 웃고 있는 모습도 드문드문 보였지만, 나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고개 끄덕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다.

V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어느 영화에서 나온 대사 중에 하나였는데 두려움의 길 앞에 서 있을 때마다 머릿속을 맴돈다. 지난 세월 속에서 모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에 어둠 속에서 용기와 지혜를 찾곤 했다. 하지만 두려움이 깔려 앞을 볼 수 없는 일들도 막상 한 발 앞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았다. 걸어가지 않은 길은 항상 두렵다. 이번 원격수업의 과정 속에서 한 번 더 깨달은 바가 있다. ‘그래도 시도하는 것이 낫다.’ 였다. 답답함에서 벗어나는 것은 심호흡과 마음가짐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동료, 그리고 나의 두려움 속에서 작은 장점을 찾아 격려해야 할 것이고, 부족함이 느껴진다고 비교하지 말 것이며, 모르고 있다면 친절하게 알려줘야 할 것이다. 김구 선생님은 눈발을 어지럽히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람의 길이 어찌 그렇게만 될 수 있을까? 복도에, 교실에, 교무실에 찍힌 수많은 발자국의 흔적은 시간이 흘러 길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 수많은 발자국의 우리 경기 교육을 믿는다.

궁즉통(窮即通)



향동중학교 교사 구남희

2020년 3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이 쓰나미처럼 밀려 왔고, 정신없이 바뀌는 외부 조건에 맞춰 계획하고 뒤집고 또 계획하고 바꾸고 매일 매일 달려야 했다. 물론 아주 정신을 놓을 수는 없었다. 학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니까. 당장 아이들이 교실에 올 수 없는데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하기 이를 데 없었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이 말을 찾으면 「궁즉통(窮即通)」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의 해석보다 조금 깊이 있는 설명이 올려져 있다. 그대로 인용하면 「궁즉통(窮即通)」은 원래 『주역(周易)』의 근본 원리이다. 「窮即變, 變即通, 通即久」을 줄여서 「窮即通」이라 한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라는 뜻이다. 변화가 있어야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여기에 ‘궁(窮)’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우주의 변화 법칙인 『주역(周易)』의 원리는 ‘궁(窮)자가 ‘곤궁하다.’는 뜻이 아닌 ‘궁구하다’, ‘다하다’의 뜻으로 ‘최선을 다함’을 의미한다. 이는 곧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변화가 생기고, 변화가 생겨야 비로소 길이 뚫리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라야만 오래도록 지속된다.’는 우주 자연의 근본 법칙을 표현한 것이다.

당장 원격수업이라는 과제를 앞에 두고, 선도학교를 신청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다. 스무 명의 교직원들이 모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고민했다. 원격수업 플랫폼을 무엇으로 할 것이며, 원격수업에 필요한 수업 도구는 어떻게 마련하고, 학생들이 플랫폼에 들어와 수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온라인 학교를 구축하는 일은 막막함 그 자체였다. 다행히 우리 학교에는 구글클래스룸을 이미 구축하여 수업 시간에 활용하고 있는 선생님이 계셨다. 그 선생님이 주축이 되어 자발적이고 즉각적으로 ‘원격수업 전학공’이 결성되었다. 퇴근 시간도 잊고 개인 시간을 내주신 희생 덕분에 그리고 최선을

다해 원격수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학교는 조금 이르게 쌍방향 수업이 정착되었다. 얼마 전 원격수업사례 나눔을 하면서 간편한 출결 관리 tip, 토론 수업 방법, 영상 도구 사용법 등 각자 노력의 결과로 얻은 수업 노하우를 공유했다. 원격수업의 장점을 살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가 와도 활용할 다양한 수업 방식에 대해 토의하며 선생님들은 서로에게 무언가 대견함을 느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최선의 노력’은 지속 가능한 변화의 길을 뚫는 혁신의 새로운 출발일 것이다.

2021년 3월이 오면, 지금 상황보다 나아질 것인가? 막연한 희망보다는 구체적인 대책을 궁구(窮究)해야겠다. 이제까지 학교의 모습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빈틈없이 실행하는 시스템이었다.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문화가 있는 곳이다. 뒤집어 생각하면 유연함이 부족한 조직이고, 지침(공문)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고 실행하지 못한다. 위드 코로나-19와 같은 현재의 시점에서 철두철미한 계획, 예측을 전제로 하는 준비성, 그리고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은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없다. 너무 단호한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문제 해결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정답은 없고 최선의 답을 찾아야 하는 시대를 살아야 할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력이다. 문제 해결력은 생각하는 힘에서 출발한다. 학생을 학교를 바이러스로부터 최대한 안전하게 지키고, 학교가 학교로서 최선의 역할을 하려면, 지식보다 지혜를 가르치는 수업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부족한 어른으로서 아이들의 꿈이 어른들의 ‘라떼 꿈’을 닮지 않길 바란다.



좌충우돌

코로나-19 바이러스 저항기



세마중학교 교사 최승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 생활 전반의 변화가 비단 교육뿐일까?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 남아야 하는 절대 절명의 순간에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본질을 가슴에 품고 견뎌왔던 나의 좌충우돌을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며 지혜를 나누고 싶어 글을 시작한다.

하루의 일과를 끝마무리할 즈음이면 녹초가 된 영육이 곤한 휴식을 강력히 요구하지만 소위 워라벨이라는 바램도 코로나-19 이후로는 가능하지 않았으니 돌이켜보면 지금의 안정기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분주함과 늘 어딘가에 메여있어 평안하지 않았던 올 4월 16일이라는 전대미문의 교육적 변화의 날을 난 정확히 기억한다. 전통적인 교실 수업이 아닌 초유의 온라인 클래스라는 새로운 시스템은 교사와 학생들 모두 적응하기까지 꽤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다. 중1 담임인 나로서는 이제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에게 온종일 한 명 한 명 전화 상담을 하고 시스템 진행 방법을 일일이 설명함도 역부족이었다. 온콜 개설 방법, 교과서, 용어설명, 필요한 활동 신청하는 방법 등을 계속 설명하고 오류를 다시 상담해 주는 일들은 학교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한 반복의 기계음이 간절할 정도로 비대면의 전달은 힘든 과정의 연속이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푹푹한 녀석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부모님들의 협조 덕분에 숨고르기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던지 역시 교육은 교사의 전적 헌신 이외에 공동체 요소가 잘 뿔어져 나와야 원하는 시너지가 발휘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가장 힘들었던 것 중의 하나는 EBS 강좌를 얼마나 내실있게 듣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것이었다. 온라인 강좌의 특징을 살려 당일 듣기까지 허용해 줌에 따라 그 확인 작업이 퇴근후 까지 이어지는 일은 매우 힘든 노역에 가까웠다. 출근하면 거의 콜 센터를 방불케 하는 선생님들의 시끌벅적한 확인 전화와 무기력과 부적응 학생을 위한 전화 독려가 끝이 없었다. 또한 과제 미흡 및 필요한 교육적 전달사항

등은 정말 하루 종일 전자파와 친숙한 몇날 몇일의 결과는 고스란히 두통과 뭉치 모를 열감으로 이어져 '나만 환경 적응에 이리 힘든 걸까?' 라는 소심증이 생길 정도로 곤한 일상의 연속이었다. 진이 빠져 무기력감까지 발생하곤 했으니 긴 터널이 길긴 길었던 듯 하다. 그뿐이라? 아이들이 올린 과제에 일일이 답변하는 피드백의 과정도 녹록치 않은 일 중의 하나였다. '앗, 코로나야 빨리 없어져 버려'라고 외쳤으며 그간의 학교생활 패턴이 간절하기 그지 없었다.

바야흐로 2학기 ZOOM 수업으로의 도래는 또 다른 도전의 연속이었다. 갑작스럽게 컴퓨터가 셧다운 되어 혼란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때, 분명 집중하지 않고 있는 아이를 보며 심증은 있으나 물증 확보가 어려워 고민되던 일, 마이크를 켜 채 수업을 하게 하니 불예측의 강아지 소리와 집안에 계시는 분들의 생활 소음까지..(이리도 많은 변수들이 있다니..., 덕분에 함께 웃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수업에 따른 부작용도 순간 순간 느꼈지만, 지금까지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은 주변의 협조와 구축 되어진 시스템 그리고 가장 많이 고생한 우리 학생들을 보며 감사함과 적응하느라 애쓴 그 과정에 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칭찬을 마구 하고 싶어진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께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나름 익숙해지고 쌓여진 노하우를 더불어 나누며 이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1. 정해진 수업 시간에 줌을 켜며 등장하자마자 출결 댓글을 단다.
(5분 이내까지 출결에 반영)
2. 불필요한 출결 문제 발생 시 개별문자를 수업 시작 전에 하도록 미리 공지한다.
3. 엑셀 파일에 출결을 저장해 아이들의 출결 성실성을 격려하거나 겁박용으로 사용한다.
(의도적 파일 보여주기는 시간에 무신경한 아이들의 환기 차원에서 도움이 됨)
4. 수업의 흥미와 재미를 위해 배경을 교과목과 연결지어 바꾸면 재미가 솔솔
(나만의 수업을 그림으로 디자인하기도 함)
5. 교실수업처럼 필요한 기자재를 활용해 즐겁게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다만, 볼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 수업 진도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스케줄을 봐가면 시도)
6. 얼굴은 2/3이상, 필기할 땐 교과서로 카메라 비추도록 미리 안내, 등장하자마자 마이크 켜며 인사시작하도록 한다. (대답 안하면 녹화된 영상을 보여 줘 포트폴리오나 수행평가 반영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참여도 좋음)

집안이라는 긴장저하를 경계하며 시간과 약속의 개념을 오늘도 외치고, 열심히 참여한 아이들을 격하게 칭찬하며, 물리적 공간에도 리액션 좋은 아이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무리 한다.

고맙습니다.

feat. 〈별 헤는 밤〉



장당중학교 교사 김혜진

주말이 지나가는 봄 밤에는
별 님은 이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반짝이는 별들을 다 헤는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들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월요일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또다른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원격수업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감탄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격려와

별 하나에 위로와

별 하나에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 마디씩 불러봅니다. 어린 날 책상을 같이 했던 선후배들의
이름과, 오래 아는 다른 학교 선생님들의 이름과, 아이 어머니로 날밤 새며 자판 두드리는 선생님들

의 이름과, 고단한 동료 선생님들의 이름과, 꽃잔디, 노트북, 커피, PPT, 한문, '가도', '장계향',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이분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히 멀듯이,

선생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온라인'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SNS 위에

내 수업 하나 올려 보고

이웃공개, 일부 공개로 덮어 버렸습니다.

뜬 밤을 새워 만든 초보는

서투른 영상에 수줍어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지나고 올 학교에도 아이들 오면,

햇살 아래 연초록 잎들이 반짝이듯이

눈 비비며 만든 수업 위에도

선물처럼 추억이 무성할 거외다.

* 원격수업 준비하면서 고마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만든 자료와 시행착오의 과정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선생님들, 같은 과목이라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선생님들, 같은 학교 안에서 어마어마한 업무량에 시달리면서도 서로서로 힘이 되는 비타민 선생님들, 서투른 수업영상에 잘했다고 애쓰셨다고 따뜻한 말씀으로 응원하시는 선생님들 모두모두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를!



흰 천과 바람이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현화중학교 특수교사 정호연

매일 내리려는 너
매일 올리라는 나

매일 답답해하는 너
매일 잔소리하는 나

매일 주머니에, 휴지통에 넣으려는 너
매일 서랍에서 새로 꺼내오는 나

그래도
흰 천도, 너도 없는 조용한 교실보다

매일 흰 천으로 씨름해도
시끌벅적 너 있는 교실이 행복해

흰 천만 잘 씨줄래?
흰 천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수학의 세계로 국어의 세계로
흰 천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선생님이 바람이 되어줄게
선생님이 너와 함께할게

오늘도 잔소리로 시작하는 하루
성민아 마스크 코까지 써야지~!!!

新於智로 Synergy를 코로나-19의 선물



금곡고등학교 교사 정미정

Prologue.

어떠한 질병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는다.
또한, 그로 인해 세계사의 지도가 바뀌기도 한다.
콘크리트 건물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줄 알았다.

하지만 왕관(corona)을 쓰고 나타난 이 녀석(이후에도 코로나-19를 이 녀석으로 칭하려 한다.)은 절대권력으로 하늘을 닫고 국경을 잠그고 세상을 멈추게 만들었다. 우리가 몸 담고 있는 학교의 빗장도 이 녀석 앞에서는, 오랜 시간 붙잡고 있었지만 풀리지 않던 고차함수 문제처럼 느껴진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하루에도 수만명의 확진자로 인해 프랑스의 노천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기던 파리지엔느의 모습을 당분간 볼 수 없을 거라는 기사가 국제뉴스로 뜨고 있다. 우리와 힘을 겨루며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이 녀석을 생각하면 새삼 아무 일 없이 지나갔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지에 대해, 새삼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었음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는 요즘이다.

Episode 1.

지난 겨울! 언제 나의 삶에서 아이들이 없는 학교가 그렇게 쓸쓸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는가?
다시 만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 적이 있었는가?

청명한 하늘 아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렇게 그리웠던 것도 어찌면 처음이었다. 봄바람은 불어왔지만 아이들의 없는 교정에 봄은 그리 쉬이 오지 않았었고 약속되었던 시간보다 달력을 세 장이나

더 넘기고서야 비로소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Edu-poor’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삶의 대부분을 자녀 교육에 거는 학부모들의 기대는 공통처럼 비대해져 버린 그들의 불만과 함께 학교 현장에도 어김없이 불어닥쳤다. 저항 없이 입성한 점령군처럼 이 녀석으로 인해 학교 현장은 어수선하고 여전히 분주했으나 교사들의 그런 노고와 달리 늘상 아이들이 머물렀던 공간이 학교에서 가정으로 바뀐 상황은 많은 학부모들에게도 결코 유쾌한 일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더구나 정보격차와 생활 수준의 차이에 따른 보이지 않는 벽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내었다.

왕관을 쓴 이 녀석 이전의 아이들은 적어도 ‘교실’이라는 울타리 속에서는 동일한 일과표에 의한 ‘시간의 평등’은 주어졌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제해야 하는 일이 더 이상 학교만이 아닌 가정과 사회가 나누어 가지면서 우리는 또 많은 일들을 겪어내야만 했다.

나에게 있어 이 녀석이 준 선물이라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담임들이 겨우 명렬표와 전화상담을 통해 목소리로만 만난 아이들에게 교육현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서를 아이들 집에 직접 보내주겠다고 나선 일이었다. 교무실 한켠에 켜켜이 쌓아둔 교과서의 주인을 만나는 일에 대해 택배, 드라이브 스루, 워크 스루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혼재했었지만 지역의 특성과 여건상 위에 열거한 방법은 실효성보다 어려움이 더 많았다. 어쩌면 지금 생각해보면 다소 무모해 보였던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담임교사가 직접 가정방문의 형식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전달해 주는 쪽을 택했다. 물론 구성원 모두가 다 그런 방식에 대해 찬성한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교사가 무슨 ‘실험용 쥐’냐? 그런 짓 하다가 우리가 걸리면 누가 책임질 거며 ‘택배 기사’냐? 하는 비아냥거림도 없지 않았다. 더구나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널리 분포된 이 지역에서 출퇴근하느라 학교 근처의 몇몇 건물 이외에 아는 바 없는 익숙한 지명이지만 낯선 이 지역을 가야하는 일은 업무의 압박으로 느껴졌었다.

아직 어떠한 지침도 없었던 시점에 최소한 교과서라도 아이들 손에 쥐어줘야겠다고 시작한 이 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물로 주었다. 티맵이나 구글을 통해 모의 주행을 해 보고 주변 지리에 능한 교사에게 묻기도 하면서 가정방문이라는 단어가 너무도 낯선 2020년에 우리는 그 모험을 감행하였다. 어느 날 동료 교사에게 늦은 시간 전화가 왔다. ”부장님, 저 지금 000학생 집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요, 처음에 진짜 짜증나고 왜 내가 이런일까지 해야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책을 전해주겠다는 전화를 하니 “우리집 못 찾을걸요. 찾기 어려워요.”이렇게 말하던 아이에게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참내, 나는 뭐 가고 싶어서 가나? 가야 하나까 가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가기는 했는데 정말 그 집은 참 찾기 어려운 집이었어요. 문명과 동떨어진 듯한 그런 집에 살고 있는 아이를 생각하니, 교실에서만 만나던 기존의 아이들과 달리 아이 한명 한명이 보내는 학교 밖의 세상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졌던 편견들, 학교까지 오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나더라구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를 오가며 수없이 보았을 풍광과 만나면서, 이름 석자로 만났던 이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졌어요.” 이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이 에피소드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회고될 교사로서의 아름다운 한 장면이 새겨지는 순간이었으므로.

가정방문을 했던 교사들은 말한다. “아이들을 만나니 좋았어요. 가장 큰 이유는 그 아이들이 어느 곳에 살고 있는 지 제 눈으로 보고 아이를 만나고 온 이후 이 아이들이 정말 내 아이들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울림을 듣게 되었어요.”

#Episode 2.

단언컨대 이 녀석이 우리에게 준 선물(Present)은 현재(Present)를 살아가는 자세를 배우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어느 곳이나 사람이 있고 꽃이 있고 바람이 있다.

어느 곳이나 슬픔과 분노와 좌절, 폭력과 비열함이 존재한다.

삶은 마치 여행과 같아 여행을 떠나지 않았을 때는 여행을 꿈꾸고, 여행을 하고 있을 때는 이미 그 꿈을 이루었으니 우리는 결국 늘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익숙하고 정들었던 교육방식에서, 구글클래스룸, 줌, 팀즈 등 생경한 언어들과 만나 일상을 이루어가던 아이들과의 만남. 동료 교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새로운 수업 방식에 익숙해지기까지 어디인지 모를 길들과 만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으며, 가야만 할 곳이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곁을 내어주며 이 녀석으로 인해 무너진 일상의 현재(Present)는 어쩌면 새로운 시대와 만나게 되는 값진 선물(Present)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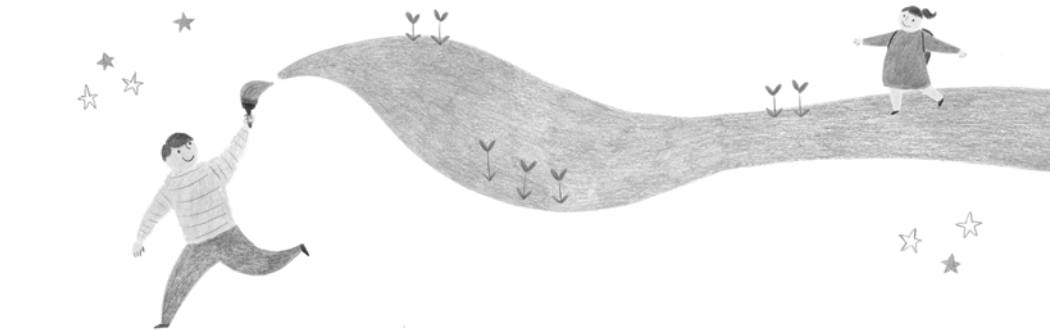
#Epilogue.

그동안 우리는 수업의 질 개선과 우리 자신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수없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이후의 교육현장만큼 언택트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변화에 맞춰 서로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다.

“ I'll do it some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See! There is no Someday. It's time to ride”

[할리 데이비슨 모터사이클] 광고 카피는 언제나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처럼 우리의 심장을 두드린다. 만약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모든 날은 Someday일 뿐이다.

지금이다. 모든 날이 Someday가 아닌 지금 바로 새로운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우리교육이 경기도교육청이 지향하는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집단 지성의 힘(新於智)으로 시너지(Synergy)를 창출해 가는 그 여정을 위해 오늘도 길을 나선다.



잊지 못할 2020년!



이중고등학교 교사 조선경

이제는 의례 아침 10시만 되면 궁금해진다. ‘오늘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명이나 나올까?’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

작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지난 2002년 중국에서 발생한 사스처럼 혼란한 시기를 거쳐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전염병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때도 그 전염병은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했고 우리나라에서도 4명이나 발생했다. 또한,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감염자가 8,273명, 사망자는 775명이었다. 그 후에도 신종플루,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돌았다. 그러나 그때의 상황은 지금의 상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점잖은 것 같다.

처음에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 하여 우한 폐렴으로 불리다 WHO에서 코로나-19(COVID-19)로 부르기로 결정된 코로나-19, 한국에서는 올해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하였다. 지금의 이런 상황은 누구라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며 심지어 우리나라와는 무관하다고까지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한국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후, 날이 갈수록 감염 환자 수는 늘어났다. 점점 일상생활이 통제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2월 중순이 지날 무렵에는 폭발적인 감염자가 발생하고 감염이 무서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무조건 피하게 되었다. 모일 수도 없었다. 나라 안은 물론 나라 밖으로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2월 말이 되니 학교에서 계획했던 교직원 연수나 신학기 준비를 위한 학생 소집도 모두 취소되었다. 3월 2일의 개학도 연기되었다. 교직에 들어온 지 30년도 훨씬 넘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 겪어봤다.

사상 초유의 재택근무가 시작되었다. 3월 9일로 연기한다던 개학은 그 후 몇 차례 더 연기되었다.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던 개학은 집단 방역을 위해 4월 9일부터 학교급별, 학년별로 온라인 개학을 한다고 발표되었다.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TV로 뉴스를 보며 수업에 대해 걱정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온라인 개학을 한다고 하니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 원격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나 깨나 걱정이었다. 내 생각에는 원격수업이란 EBS 강사들이 하는 수업이었는데 이젠 그것을 ‘내가 해야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마냥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우선 SNS로 다른 학교 교사들은 어떻게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기로 했다. 놀랍게도 언제 그렇게 준비를 했는지 벌써 원격수업을 작성하여 올리는 선생님들도 있었다. 충격이었다. 난 그동안 뭘 했는지 창피했다. 내가 담당한 고1 학년 학생들 개학일인 4월 16일이 점점 다가오니 어떤 일이 있어도 수업을 만들어야 했다. 내가 재직하는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온라인 수업 작성에 대한 안내와 연수가 있었다. 열심히 들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내가 따라가기에는 벅찬 부분이 많았다. 젊은 교사들은 금방 이해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러나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모르는 부분은 잘 아는 교사들에게 심지어 교직 경력이 짧은 선생님들에게도 무조건 물어보았다. 그래도 모르는 부분은 SNS에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았다. 고맙게도, 그들은 잘 설명해 주었고 수업 작성 비법도 알려 주었다.

교내 교과협의회도 여러 차례하고 수업 작성 앱과 카메라 거치대와 같은 부가적인 도구도 구매하였다. 동 교과 선생님들께 수업 작성 앱 사용법을 설명해 주기도 하였다. 내가 다른 선생님들께 앱 사용법 설명을 다 하다니 놀라기도 하면서.

원격수업 작성에 들어갔다. 작성한 수업을 올리기 위하여 온라인 클래스에 가입하는 절차도 매우 복잡했지만, 원격수업 작성은 피를 말리는 작업 같았다. 겨우 25분짜리 영상 수업을 작성하기 위하여 5시간도 넘게 보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녹음된다 생각하니 너무 긴장되고 부담스럽게 여겨졌다. 설명을 위한 필기를 하는데 손에 땀이 너무 나 몇 번이나 땀을 닦았는지 몰랐다. 소위 NG가 셀 수도 없이 일어났다. 우여곡절 속에 작성한 원격수업 영상을 작동시켜 보았다. 너무 어색하고 듣기에 거북했다. 평상시 수업하는 내 모습이 이러했나 보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애써 작성한 수업 영상을 폐기하고 다시 5시간 정도를 들여 작성했다. 이렇게 첫 수업을 위한 원격수업을 작성했다.

드디어 고1 학생들 온라인 개학 날 첫 수업 시간이 되었다.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지 확인해 보니

거의 모든 학생이 제시간에 수업을 듣고 있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울컥하는 감정이 생겼다. 온라인 개학 당시 우리 학교 교정 울타리에 벚꽃이 활짝 피었다. 애네들은 이렇게 예쁜 꽃도 못 보고 집에서 수업을 듣고 있겠다고 하는 생각에서였을 것이다.

수업이 원격으로 이루어지니 당연히 과제 부여도 원격으로 했다. 관심을 두고 방법을 찾아보니 이미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 관리 앱이 올라와 있었다. 이 앱을 이용하여 과제 올리기, 과제 제출 기간 설정하기, 확인 및 피드백하기가 모두 온라인에서 해결되었다. 오히려 원격수업 실시 이전보다 과제 확인을 더 꼼꼼히 하면서 빨리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았다.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모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은 수의 학생이 참가했다. 그런데 이렇게 과제 부여를 원격으로 올리고 확인하는 중 예기치 않은 일도 생겼다. 그 일은 어느 학부모가 나에게 전화를 한 일이었는데 본인의 자녀가 제출기한은 지났지만, 과제를 제출하고 싶어 하는데 제출기한에 걸려 과제를 올리기가 안되니 제한을 해제하여 과제를 제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다. 온라인으로 과제를 부여하는 것도 처음이지만 자녀가 과제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학부모의 전화도 처음이었다. 학생도 학부모도 모두 나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고 내 기분을 좋게 만들었다. 과제를 제출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물론이었다. 또 다른 건도 역시 과제와 관련된 전화였는데 이번에는 내가 담당하는 학생의 전화였다. 몇 번의 과제가 부여되던 어느 날, 전화하여 자기의 일은 아니고 친구의 일인데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학생이 참 귀엽다는 생각과 함께 웃음을 참기 어려웠지만 애써 진정하고 “너는 과제 올렸니?”라고 물었다. 그러자 자신은 제출했다고 대답했다. “잘했네!”라는 대답과 함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과제는 제출해야지!”라고 대답하니 “네,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6월 3일에 드디어 고1 학생들이 등교했다. 이 학생들 등교 전날 설레는 마음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예전에 개학 전날 느끼던 답답한 마음과는 다른 이상한 일이었다. 학생들 등교 날, 일찍 출근하여 학생들 발열 체크도 하고 거리 두기 안내도 하면서 내가 맡은 학생들은 누구일까 하고 추측도 해보았다. 학생들을 맞이하면서 보니 이 학생들이 하복을 입고 등교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 애네들은 고등학교 입학한다고 교복으로 동복을 맞추었을 텐데 그건 입어보지도 못하고 하복을 입고 등교했다.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을 만났다. 역시 코로나-19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 학생들도 교사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모습은 차분하고 사랑스러웠다. 인사를 나누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라고 큰소리로 인사했다. 대면 수업 첫날은 설렘과 흥분으로 보냈다.

격주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몇 번 했더니 1학기가 끝났다. 짧은 2주간의 여름방학을 보내고 2학

기를 맞았다. 이제는 원격수업이 단방향이 아닌 쌍방향 실시간 수업으로 바뀌었다. 처음 원격수업을 위해 영상 수업을 제작할 때처럼 스트레스도 받고 긴장하기도 했다. 쌍방향 실시간 수업 두 번째 시간에는 서버가 마비되었는지 연결이 끊겨 학생들이 전화를 많이 하고 교무실과 교실을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적도 있었다. 어느 날은 학생들은 전혀 내 말을 못 듣고 있는데 나 혼자 열심히 떠든 적도 있었다. 적잖은 실수가 있었지만, 곧 적응하게 되었다. 수업하기 전 출석 확인할 때, 거의 모든 학생이 착실하게 얼굴을 보였다. 수업을 들으며 질문할 것이 있으면 채팅 창에 쓰라고 했고 수업을 다 듣고 난 후 그날 배운 내용도 채팅 창에 써넣으라고 했더니 많은 학생이 생각보다 잘 참여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학생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수업을 들으며 별도의 컴퓨터로는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부분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였다. 수업 중에 장난기가 발동한 학생이 반 학생 전체가 보고 있는 화면에 하트를 그리며 낙서하는 일도 있었지만 귀여운 애교로 봐주기로 했다. 어떤 학생은 강아지를 안고 수업을 했고, 또 어떤 학생은 잠에서 금방 깨어났는지 잠옷 바람으로 수업에 임하기도 했다. 원격수업으로 누릴 수 있는 특혜인가보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고 그 시기도 예측이 어려운 이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불편하고 제약을 받고 있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 깨닫게 된 것도 많다. 교육은 위대한 것 같다.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수업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 당연히 대면 교육보다는 힘들고 불편하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교육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교사들은 말없이 해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몇 년 뒤에 생길 일이 조금 앞당겨진 것 같다.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심지어 생계유지도 어렵게 만드는 코로나-19, 그래도 우리는 힘든 것들을 해내고 있고 앞으로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현 경험을 바탕으로 더 훌륭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해보고 얼마 있으면 맞이하게 될 정년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은퇴 후 원격수업 이야기가 나오면 '나도 그 수업 해 봤어'라고 최소한 이러한 이야기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원격수업을 해보니 위축된 마음이 펴지는 것 같고 불투명한 미래에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올해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현실로 다가온 미래 교육



부천헤림학교 교사 최재혁

특수교육현장에서 아이들과 만난 지 벌써 4년째, 2019년 나는 처음으로 담임을 맡게 되었고 전공과 1학년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일상을 나누며 보람찬 2019년을 마무리하였다. 2020년 1월 초 외식서비스 전문교과담당교사로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했던 그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라는 생소한 이름의 질병이 우리의 일상을 침범했고 2020학년도 새 학기는 서로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채 시작하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특수 교육 현장에서도 대면수업을 대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교실 모습

이러한 와중에 2020학년도 부천혜림학교 임상장학 대상자로서 공개 수업을 준비해야 했다. 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유례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수업을 구상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과정별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업 제재 선정, 수업 방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임상장학 주제는 외식서비스 과목의 ‘드립백 커피를 활용한 나만의 창작음료 제조하고 소개하기’로 결정하였고 수업 방식은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수업 제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게 되면서 전공과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인 실습 교육이 어려워져 아쉬움이 많았는데, 다양한 시도가 허용되는 임상장학의 강점을 활용하여 이번 공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행하는 실습이 동반되는 활동을 선정하였다. 수업 계획에 따른 전시 학습과 준비물 제공 및 실습에 필요한 기물 사용법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실습을 통한 원격 피드백과 쌍방향 수업이 가능함을 실현해보고 싶었다.

또 우리 학교는 교육부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에 따라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었고, 특히 전공과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콘텐츠 활용, 과제 수행 활동이 모두 혼합된 형태로 수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원격수업 플랫폼 활용 숙련도가 높은 상태였으므로 공개 수업을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이 필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조명은 충분히 원격수업에 필요한 교구 및 장비를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감각장애학생들에게 치우쳐 있어서 발달장애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아쉬움이 있었다. 발달장애학생도 충분히 원격수업을 잘해낼 수 있다는 교사로서의 나의 믿음과 확신을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에 이번 임상장학을 더 열심히 준비하였다.

물론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다. 창작음료 제조 과정에서 뜨거운 물 사용이나 유리컵 사용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학생 본인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교사가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는 어려워 중도 포기하는 학생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적지 않은 시간 진행되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도 걱정되었다.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수업 장면

결과적으로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전공과 학생들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도구와 학교에서 미리 제공한 실습 재료가 담긴 학습꾸러미를 활용하여 주도적이고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였다. 학생 6명 중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순차적으로 영상을 공유하여 실습 과정에 대한 질문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언어적 지원을 제공하였고, 즉각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학생은 필요에 따라 순서에 상관없이 피드백을 제공하고 실습 과정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실습 과정에서 실제로 계획대로 되지 않은 학생도 있었으나 줌(Zoom)의 이모티콘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 간 쌍방향 격려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진행된 이번 공개 수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갑자기 마주하게 된 미래 교육에 관한 문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클래스룸(classroom), 줌(Zoom) 사용, 수업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요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블렌디드 러닝을 실현해볼 수 있었고 원격수업을 실시하면서 필연적으로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현실로 다가온 미래 교육 앞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 고민하고,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해본다.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



코로나-19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교육공동체의 성장스토리

원격수업으로 만난 미래교육 이야기

Ⅲ

학생



EBS, 줌 클래스, 등교



한류초등학교 1학년 전지효

오늘은 EBS를 보는 날

재미없다. 지긋지긋하다.

우리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반 친구들도 볼 수 없다.

오늘은 줌 클래스가 있는 날

떨린다. 심장이 쿵쿵쿵

내 목소리는 개미처럼 작아지고, 로봇처럼 몸이 굳어버렸다.

오늘은 학교에 가는 날

아주 많이 설렌다. 심장이 쿵쿵쿵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은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할까?

빨리 코로나-19가 끝나서

매일 학교에 가고 싶다.

친구들과 같이 공부도 하고, 신나게 놀고 싶다.

변신하는 우리집



갈매초등학교 2학년 강현우

온라인 수업이 좋다

일어나면 집이 학교가 된다.

TV를 켜면 우리집 거실은 교실이 된다.

온라인 수업이 끝나면 점심 시간이다.

우리집이 급식실이 된다.

세 걸음만에 학교가 되는 우리집이

나는 편하다.

온라인 수업의 장점과 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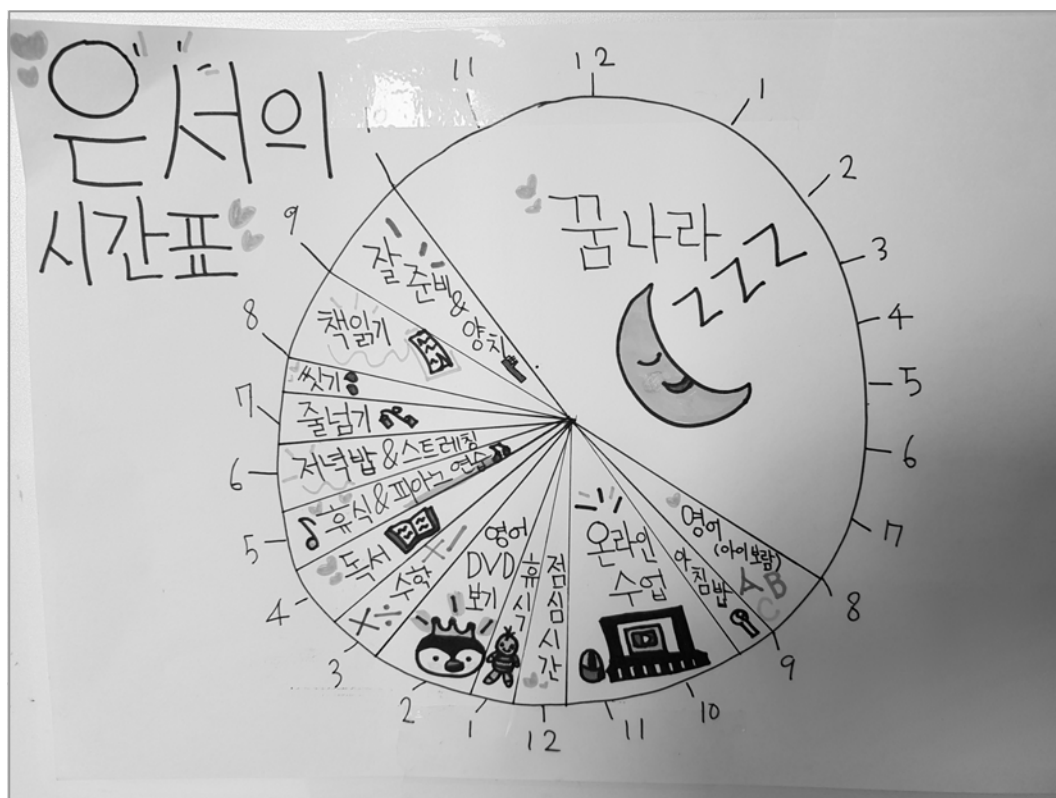
예술초등학교 3학년 류은서

겨울 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많이 설레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새로운 친구는커녕 3학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학교도, 새로운 선생님도 만난 적이 없다. 물론 친구들 얼굴도 본 적이 없으니 코로나-19가 정말 밉다. 학교에 가는 대신 집에서 컴퓨터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다. 그 전에는 컴퓨터를 써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제는 나 혼자 아침에 컴퓨터를 켜고 클래스팅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올려주신 수업을 듣고 숙제를 한다. 그래서 나는 온라인 수업의 단점과 장점을 생각해봤다.

먼저 온라인 수업의 장점은 무엇일까? 첫째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겁게 가방을 들고 갈 필요가 없다. 세수하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잠옷만 입고 바로 책상에 앉으면 되니 말이다. 이 점은 정말 편한 것 같다. 둘째로는 학교 갈 때는 엄마가 내준 숙제를 학교 가기 전에 먼저 해야 마음이 편했다. 그런데 학교를 안 가니 나 혼자 시간을 계획해서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학교 온라인 수업을 먼저 듣고 점심을 먹은 후에 여유롭게 다른 숙제를 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참 좋은 것 같다. 가끔은 공부하기 싫어서 놀고만 싶을 때가 있다. 그래서 나 스스로 계획표를 만들어봤다. 계획표를 책상 위에 붙여 놓고 차례차례 하면 마음이 뿌듯하다.

그렇다면 온라인 수업의 단점은 무엇일까? 먼저는 선생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참 좋았다. 선생님이 환하게 웃어주시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했는데 그것을 못 느껴서 속상하다. 지금은 온라인 수업에서 녹음해주신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면 서 선생님의 얼굴을 상상해본다. 두 번째 단점은 온라인 수업은 오랫동안 전자기기를 봐야 해서 눈이 나빠진다. 나는 겨울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다. 더 눈이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전자기기는 눈을 나쁘게 만든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중간중간 멀리 밖을 보고 눈 운동도 하곤 한다.

온라인 수업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봤더니 온라인 수업과 학교 수업을 비교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온라인 수업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난 빨리 코로나-19가 끝나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하고 싶다.



원격 수업



반석초등학교 5학년 양서정

“수업 들을 시간이야.”

엄마의 목소리가 종을 친다.

두 눈 동그랗게 뜨고

네모난 컴퓨터를 켜려본다.

머리가 빙빙 복잡해진다.

두 귀 종긋종긋 세우고

네모난 방문에 귀를 기울인다.

혹시 엄마가 들어올까?

콧구멍 실룩 쿵쿵대며

맛있는 냄새를 맡아본다.

오늘 점심은 무엇일까?

“야호, 오늘도 끝났다.”

나의 목소리가 종을 친다.

학교를 매일 가는 날이 오길



신흥초등학교 5학년 김예진

등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과제를 냈다. 수업은 일단 위두랑과 e학습터로 했다. 나는 위두랑, e학습터가 무엇인지도 몰라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새로 만들어서 했다. 그리고 e학습터로 수학시험도 보기도 했다. 그렇게 온라인수업과 등교를 번갈아서 약 3달 정도 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활동은 동아리 활동을 한 것이다. 1학기의 우리반 학급 동아리는 ‘페이퍼 크래프트’였다. 처음에는 종이를 잘 오리지도 못하고, 잘 접지도 못했지만 여러 번 해보니 처음보다는 나아진 것 같다. 6월 16일, 드디어 학교를 처음으로 가게 되었다. 짝수, 홀수로 나뉘어져 가는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학교에 오니 좋았다. 5학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같은 반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얼굴을 한 번도 못 봐서 그런지 어색했다. 우리 짝수 반에서는 급식을 먹는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었다. 그리고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됐다. 여름방학은 2주 정도이지만 그래도 방학이니 좋았다. 그렇게 방학을 보내고 9월 초부터 줌이 시작되었다.

줌에서 아침, 오후로 반 친구들,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나는 이미 영어학원에서 줌과 비슷한 앱으로 해봤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줌에 들어가는 것은 쉬웠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아 헷갈렸다. 그래도 선생님께서 하나씩 알려주셔서 하나씩 알게 되었다. 처음 줌으로 수업 할 땐 어색함도 있었지만 차츰 사라졌다. 그렇게 아침, 오후 시간에 줌으로 만나기 연습을 하고 드디어 줌으로 수업도 하게 되었다. 디지털교과서를 선생님이 화면공유를 하시면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풀고 주석기능도 활용해 풀어서 채점도 했다. 하지만 딴 짓하는 애들도 있다. 다른 곳을 보고 있거나, 딴 짓을 한다.

최근 코로나-19가 1단계로 내려가서 이제는 학교도 격주가 아닌 매주 가게 됐다. 학교는 매주 3번 짝수, 홀수로 나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짝수, 홀수가 다 학교에 왔을 때 애들이 많아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인원이 많아져 자리에 앉아있지만 해도 거리유지가 안됐다. 그래서 우리 반은 자리도 바꾸고 역할도 다시 정했다. 지난주에는 회장, 부회장도 뽑았다.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져서 학교를 매일 가면 좋겠다.

1년동안 바뀐 우리 삶

신흥초등학교 5학년 김 산



온라인 안에서 만날 수 밖에 없던 우리

너희 전부를 알기에 짧았던 시간

마스크 안에 너는 어떤 사람일까

화면 안에 보던 너와 같을까

아무 거리낌 없이 손을 잡고

공을 차고 웃을 수 있는 날은

언제가 될까

점심시간 마스크 벗은 너의 얼굴이

반가워 웃어본다

우리 반 우리 선생님

나는 가리지 않은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

점심시간 그 시간이 아까워 내 마음에

그 얼굴들을 담아본다

온라인 원격수업 & 줌 수업을 한 나의 소감



효동초등학교 6학년 박지민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매일매일 등교해서 수업하지 않고 EBS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했다. 처음에 온라인클래스로 원격수업을 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등교하는것이 아닌 컴퓨터 앞으로 가 온라인 학습을 하는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온라인 원격 수업을 하며 느낀 원격수업의 장점은 먼저 선생님께서 여러번 말씀하시지 않아도 뒤로 영상을 돌려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온라인 클래스 강의 영상 길이는 10~20분 정도여서 등교해서 수업하는 학교 수업시간보다 일찍 끝난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과제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학교에 등교해서 미술같은 과제를 완성하려면 어진 시간 내에 다 하지 못하거나 완성물이 생각보다 아쉽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집에서 하면 주어진 시간도 많고 집에 있는 많은 물건들로 과제를 할 수 있으니까 보다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

하지만 단점들도 있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학교에 등교해서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는게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는 것 보다 훨씬 재밌다. 또 체육이나 음악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하는 게 이해가 더 잘된다.또 원격 수업을 하다가 모르는것이나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선생님께 바로바로 질문을 해도 선생님께서 바로 답변해주시지 못하시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두 번째로 줌 수업을 하고 느낀점이다. 정말 아직도 첫 줌수업을 하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기대감과 긴장감을 잊지 못한다. 그만큼 줌 수업은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줌 수업을 하며 느낀 점은 우선 학교에서 등교를 할 때에는 모든 친구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는데 줌으로 수업을 하니까모든 친구들의 얼굴이 보여 색달랐다. 또 채팅 기능으로 모르는것이 있을 때 바로바로 물어보거나 선생님과 개인적으로만 채팅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체육시간에서 선생님과 따로 채팅을 해보았다.)

또 좁은 학교가 아닌 집에서 수업을 하는거라 줌 수업이 끝나고 바로 점심을 먹거나 하던 일을 마저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역시 즐겁기만 할 것 같았던 줌 수업에도 단점은 있었다. 일단 온라인상에서 친구들, 선생님과 만나는 거니 불편한 점이 많았고, 가끔 줌에서 튕기기도 하고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해서 끊기는 경우도 있어 불편했다. 또 쉬는시간없이 2시간을 한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수업을해서 좀 힘들었다.그래도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운데 이렇게라도 친구들을 만나고 수업을 할 수 있으니 좋았다.온라인 수업과 줌 수업이 일상이 된 요즘, 앞으로도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열심히 공부 할 것이며 어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져 학교에 더 많이 등교해 수업 했으면 좋겠다.



코로나-19가 나에게 준 능력과 과제



금광중학교 1학년 김우현

아침 7시 30분 알람이 울린다. 알람 소리에 이어 익숙한 목소리가 이윽고 날 깨운다. 엄마의 목소리다. 비몽사몽 눈곱이 붙은 채로 컴퓨터 전원을 켜고 즐겨찾기로 해놓은 자가진단시스템에 접속한다. 이어서 온라인클래스에 접속했다하고 동시에 곧 있을 아침 조회를 위해 미리 줌에 로그인 해둔다. 1학년 1반방에 가서 출석 체크를 하고, 아침 식사하기 전 남는 시간에 오늘 수업할 과목들을 미리 준비해둔다. 8시가 넘어서면 우리반 단톡방은 시끌벅적해진다. 먼저 선생님께로부터 자가진단, 출석체크, 조회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알림 문자가 온다. 자가진단이나 출석 체크를 하지 못한 친구들을 알려주신다.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친구들도 아침조회에 미처 접속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줌이 열릴 때 서로 서로 알려준다.(수업 때도 그렇다.)우정이 온라인에서도 싹튼다. 드디어 조회! 하루가 시작된다.

수업의 순서는 보통 이렇다. 줌을 이용한 쌍방향 수업을 먼저 한다. 노트북 카메라가 내 얼굴을 비출 수 있도록 먼저 각도를 조절하고, 두 동생들도 온라인 수업 중이라 이어폰을 끼고 음소거를 한다. 그리고 각 과목 선생님의 회의실이 열릴 때까지 대기한다. 줌이 끝나면 보충 영상도 있다. 과목에 따라서 재미있는 영상이 있어서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 수업 후 과제 제출이 있는데 과제 후 사진을 찍어서 각 과목 선생님 오픈 채팅방에 올린다. 오늘 수업이 끝나면 내 클래스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내가 들은 모든 과목에 완료가 떠있어야 한다. 나는 분명히 수업을 다 들었는데 완료가 안 떠서 다시 들어야 할 때 진짜 짜증난다. 종례 댓글을 다는 것으로 학교 일과는 끝났다. 학교 온클 수업이 다 끝나면 큰 산을 하나 넘은 것 같아서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학원 수업도 있다. 거리 두기 2.5단계 때는 학원도 쌍방향 수업이었다. 솔직히 학원에서 줌 수업으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놀랐다. 학원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가능했다. 과외 수업 받는 기분이었다. 선생님 목소리가 더 잘 들려서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귀에 더 쪽쪽 들어온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학원이 꼭

있어야 하나, 꼭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야하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애다.

오늘은 자율동아리가 있는 날이다. 친구들과 책을 읽는 소년들이라는 팀명으로 시와 소설, 낭독동아리를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쭈뼛이다. 오늘의 책은 윤동주다. 오늘 책 소개할 친구에게 며칠 전에 동아리 카톡방에서 시를 미리 공유 받았다. 밤 9시 30분, 친구들을 나의 회의방에 초대한다. 조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시를 읽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는데 그냥 이 시간이 재미있다. 비록 실제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친구들과 얼굴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즐겁다. 드디어 하루가 끝났다.

종일 연속적으로 줌과 영상 보기를 반복하다 보니 눈과 허리, 그리고 머리로 아프다. 솔직히 집에만 있으니 몸이 굳는 느낌이다. 이 느낌이 좀 익숙해지긴 했는데 적응하기 전까지는 좀 힘들었다. 화면에 비치는 내 모습이 신경 쓰여서 하품도 못하고, 기지개도 못 펴서 끝나고 나면 삭신이 쭈셨다. 하지만 사람의 적응력이란 참 대단하다. 일찍 일어나서 뻘뻘한 소재의 교복을 입고, 무거운 책가방을 멘 채 버스를 타고 매일 등교하는 것보다 며칠간은 편안한 집에서 활동하기 좋은 평상복을 입고 며칠간 수업 받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지 못하는 것은 아쉽다.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미션을 수행한다고 친구들과 몸으로 놀지도 못하고 1학년이 끝나간다. 그래도 얻은 것도 있다. 나는 사실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고 해도 그냥 그런가보다 생각만 했었다. 왜냐하면 IT강국에 살고 있는 내가 고작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까지 카톡, 게임이나 유튜브 영상 보는 것 밖에 없었다. 그런데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았다. 개인 이메일을 만들어 메일도 보내고, 줌 개인회의실이 나나 친구들에게 생겨서 친구들과 온라인 회의도 했다. 진로나 학습 사이트에 회원가입도 스스로 해보고, 자료도 찾아봤다. 풍경 사진만 찍던 내가 동영상도 만들어 편집까지 해봤다. 모두 온라인 수업 때문에 가능했다. 드디어 나도 IT강국에 사는 국민이 됐다.

사람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코로나-19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가 명확히 갈릴 거라고 이야기 한다. 백신이 생겨서 코로나-19가 끝나도 또 다른 전염병이 생겨날 것이라고도 이야기한다. 온라인 수업이 이제 숙명이 된 세상이 온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새로운 세상에서 내가 더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키워나갈 것이다.

원격수업 체험 수기



효양중학교 1학년 이무혁

영원할 것만 같았던 초등학교 생활이 끝나고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한창 들떠있던 저는 뉴스에 짧게 실린 기사 한 토막을 보았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내용 이었는데 저는 그냥 계절이 바뀌면 지나가는 감기쯤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1~2달 뒤,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로 유입 되고 전국적으로 크게 유행하더니 나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생소한 정책을 실행하더니 외출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방학이 늘어났다고 좋아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는커녕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마스크를 사재기 하는 사람, 코로나-19 시국에도 집단 모임을 갖는 집단들……. 사회는 혼란스러워져만 갔고 저는 그때가 되어서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중학교에서의 첫 번째 1년을 통으로 날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있을 때, 정부에서는 학교에서 선진국들의 교육 방식을 가르칠 때나 배웠던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을 해결책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학교를 못가고 제 생애 처음이고, 마지막이여야 할 온라인 클래스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야말로 시간여행을 해서 미래에 톡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컴맹이라 친구들이 하는 온라인 게임이나 sns도 할 줄 모르는 저에게는 미래하고 다를 점이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쓰신 출석확인 글에 댓글을 남겨서 출석을 하고,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학습지를 내려 받아서 과제를 하니 말로만 들었던 2000년도에 있었던 사이버펑크가 이런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선생님과 저희들 모두 처음이라 어느 것 하나 매끄럽게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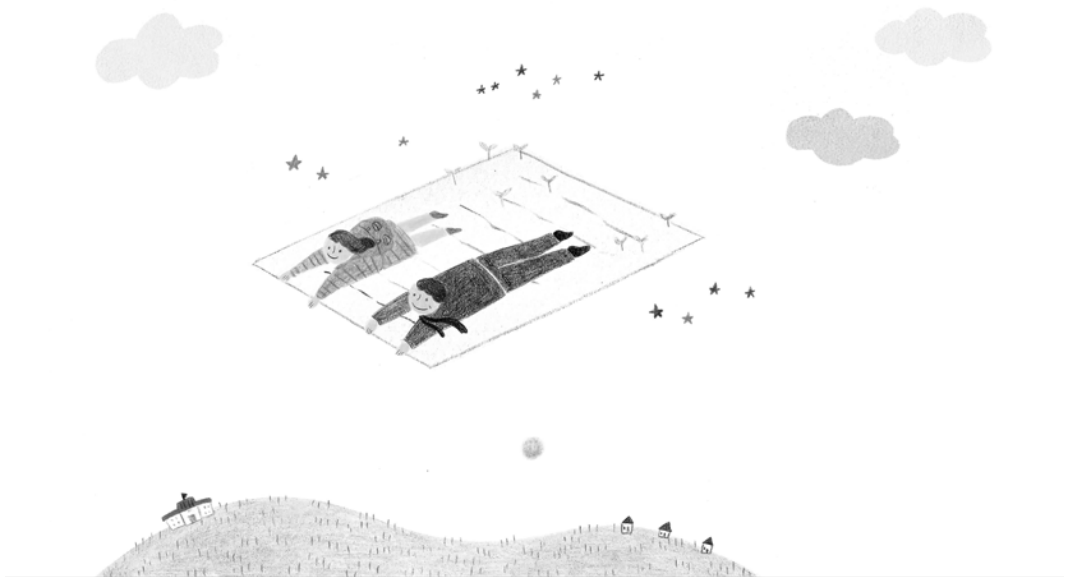
하지만 선생님들이 과제를 줄여주시거나 직접 영상을 촬영해 수업을 올리시면서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시자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됐고 학생들도 어쩔지 몰라 강의를 틀어 놓고 딴 짓을 했던 온라인 클래스 초기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즈음 줌 (ZOOM) 이라는 실시간 화상 채팅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선생님들은 애써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시고 우리들에게 보다 생동감 있는 수업을 해주시기 위해 많은 수업을 줌으로 진행해 주시면서 온라인 클래스를 할 때는 보지 못했던 친구들과 선생님의 얼굴을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하고 선생님들이 경험이 쌓이시면서 노하우가 생기시자 온라인 클래스만의 장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클래스만의 장점으로는 우선 쉬운 정보 입수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는 선생님이 많은 인원의 학생들에게 하나의 모니터로 보여주시다 보니 뒷자리에 있는 친구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나 사전이나 대상을 검색할 때에는 선생님이 헤매시는 경우도 있었고, 부끄러움을 타는 친구들은 발표 할 때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온라인 클래스는 선생님이 놀 공간만 만들어 주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놀아도 된다고 하시는 느낌이라 저희가 선생님들과 같이 수업을 만들어 가는 기분 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인이 군대를 떠나면 군인이 아니듯, 학생이 학교를 떠나면 학생이 아니기에 학교가 그리워 질 때 즈음, 코로나-19 사태가 많이 잠잠해져서 학교에 며칠 간격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어린 동생들이 있어서 혹여나 제가 전염병에 걸리면 저 뿐만 아니라 동생들 까지 생명이 위협해지기 때문에 현장체험 학습을 써서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교과서로 공부를 했습니다. 겨우 갈 수 있게 된 학교를 못 가게 된 것은 아쉬웠지만 집에 동생들이 있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2주 쯤 공부를 하고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하는데 진도가 어떤 과목은 빠르고 어떤 과목은 느려서 애먹기도 했었고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 물을 저만 받지 못해서 당황한 적도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이 저를 따로 신경 써 주시고 수업 자체도 쉽고 재미있게 진행해 주셔서 진도에 뒤떨어지거나 이해 못해서 애먹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장체험을 쓸 수 있는 날짜가 얼마 남지 않고 코로나-19가 조용해지자 부모님은 학교에 가시는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지 일 년이 다되어갔지만 등교해본 적은 없었던 저는 첫 등교하기 전날 밤에 너무 설레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등교 날 코로나-19 시국에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했던 저는 기대와 설렘 반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제가 처음 본 학교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서로의 몸을 잘 건들지만 앓는다는 것 만 빼면 제가 기억하던 학교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활기참고, 선생님들은 평소처럼 수업을 진행 하시는 모습을 보니 새삼 여전히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게 느껴졌었습니다. 수업은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져있었던

저에게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선생님들은 바로 질문에 답을 해주시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시니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잘 되지 않았던 즉각 피드백이 이루어 졌고 살아있는 지식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서도 선생님들의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등교 전 스마트 폰 어플로 자가진단, 교문에서 발열 체크, 수업이 끝 날 때마다 환기시키기, 항상 급식 먹기 5분 전에는 발열 검사, 하교 할 때도 정문 까지 지도해 주시니 우리가 보호 받는 기분이 들어서 안심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면 지금의 상황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직 전염병에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저 역시 마스크 잘 착용하기, 소독 잘하기 등.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될 그날을 꿈꾸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 뼨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원격수업



하남중학교 2학년 김용호

2019년 12월 중국, 전세계를 휩쓸 신종 바이러스가 발견된다. 나는 처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마스크 벗고' 학원에서 공부 중이었다. 문자를 처음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계를 휩쓸게 되고, 무엇보다 학교를 못가고, 시험을 못 볼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했다.

2020년 2월, 대한민국의 첫 '코로나-19' 펜데믹을 일으킨 신천지 사태가 일어났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마스크' 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사람이 있는 어디에서든지 쓰기 시작했고,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4월 16일, 우리는 설레는 첫 학년의 시작을 온라인 수업(위두랑)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학교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고, 적응도 잘되지 않았다.

사실 온라인 수업을 하며 확실히 언택트 수업은 한계가 있다고 느껴졌고, 수업의 효과도 확실히 저하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렇게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만남도 몇 번 가지지 못한 채, 1학기가 끝났다. 2학기에는 조금 다른 수업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바로 실시간 대면 수업(줌) 이었다. 실시간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시간 맞춰 수업 링크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2학기의 줌 수업은 확실히 학생들에게 확실한 수업 효과를 줄 수 있었던 것 같다.

줌 수업을 할 때, 카메라를 켜지 않아서 출석 확인이 되지 않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수업을 할 때 게임을 하는 친구들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리들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의도치 않게 열려버린 '온라인 시대'에 적응해가며 결국엔 지필평가(기말고사)도 보고, 진도도 문제없이 나갈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2020년이었지만, 꼭 배우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꼭 우리에게 최선의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하나되어 우리 모두 한 뼨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좌충우돌 원격 수업 성장기



하남중학교 2학년 김현담

오늘도 어김없이 휴대전화를 켜다. 링크를 타고 시간 맞춰 들어가면 수업이 시작된다. 옷만 다르지 매일 같은 모습의 친구들과 선생님이 보인다. 코로나-19로 매일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은 마이크를 켜고 말도 쉽게 하고 카메라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지만, 처음엔 나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어색했다.

언젠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학기가 시작되고 평소처럼 위두랑으로 과제를 제출하던 도중 이제부터 몇 개의 과목은 실시간 줌 수업으로 바뀔 거라는 소식이 들렸다. 이미 1학기 때부터 줌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드디어 우리 학교도 시작되는구나 싶었다.

실시간 줌 수업 첫날, 아직 친하지도 않은 친구들 사이에서 카메라를 켜는 것이 부끄러웠다. 친구들도 그랬을 것 같다. 그래도 나는 눈 한 번 딱 감고 카메라를 켜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카메라가 계속 신경 쓰이는 것이었다. 수업 내내 나는 몸을 가만히 있지를 못했다. ‘머리는 안 이상해 보이려나 팔은 올리는 게 나올까 내리는 게 나올까 혹시 눈 사이에 눈곱이 끼었진 않으려나’ 등의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또 마이크를 꺼놓고 열심히 대답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그러나 하루 이틀 수업을 하다 보니 어느새 나는 실시간 수업에 적응되어 있었다. 자세도 편해지면서 수업에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다. 반면 내 친구 중 몇몇은 수업 시간에 몰래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하기도 하고, 누구는 수업 내용에 집중을 잘 하지 않는다고 했다. 솔직히 나도 수업이 지루하고 힘들면 그냥 화장실 간다고 하고 바로 뒤에 있는 침대에 확 누워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꼭 참는다. 수업에 소홀하다가 시험과 수행평가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고 싶진 않기 때문이다.

현재는 한, 두 개의 과목 빼고는 전부 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확실히 과제만 제출하는 위두랑과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 1학기 땐 집에서 맘 편히 놀다가 과제가 밀리거나 겨우겨우 제출했다면, 실시간 수업에선 그런 걱정이 필요 없어졌다. 다만, 실시간 수업은 계속 책상 앞에서 앉아 수업을 들어야 하니 너무 힘들다. 안 그래도 집에만 있어서 답답한데 정말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만 같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오히려 위두랑 과목이 있으면 반갑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몇몇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물어 보신다. “그래도 학교 나오니까 집에만 있는 것보단 더 낫지?”라고….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는 줌 수업이 더 좋다. 대면 수업 때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이미 내 몸은 줌 수업에 이미 적응이 되었고, 등교할 때보다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이다. 실시간 수업을 할 땐 출석체크도 해야 하고 대부분 일찍 수업을 끝내주시는 편이라 실질적인 수업 시간은 30분 정도였는데, 학교에서 온전히 45분 수업을 꽉 채워서 들으면 확실히 지친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얼마 전에 학원 선생님께서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할 경우 생길 문제점들을 말씀해주셨다. 먼저 많은 학생이 직접 학교에 갈 때보다 더 공부를 안 하게 되어 평균 실력이 하향 평준화된다는 것이다.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실력 차이가 확 벌어지게 돼서 이제 중간은 없어질 거라고 했다. 결국,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학업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을 싫어했고, 또 막상 세우게 되면 잘 지키지도 못했다. 게다가 집 안에는 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휴대전화, TV, 컴퓨터 등…. 숙제를 할 때도 계속 신경 쓰이고 게임을 하고 싶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기말고사도 점점 다가오고 시험 수준마저 쉬워지고 있어, 공부를 대충 겨우겨우 하는 습관이 쌓이다간 앞으로 크게 후회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예상하듯이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종식되긴 힘들 것 같다. 하루빨리 백신 개발에 성공해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날까지 나는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곳곳이 버티며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을 향해 계속 전진할 것이다.

내가 바로 1세대 학생이다!



하남중학교 2학년 박세은

2020년 나의 중학교 생활 2학년에 들어가면서 나는 새 학기의 로망을 또다시 떠올렸다. 떨리는 마음으로 교문 앞을 들어서면 반갑게 맞이하는 선생님들과, 같은 반이 되었다고 반기며 다가오는 친구들. 하 상상만 해도 행복하다. 그렇게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새 학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행복한 상상도 잠시. 갑작스러운 불청객이 찾아오면서 나의 로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 불청객은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점점 늘어만 가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의 2학년 학교생활의 앞날은 킁킁 무소식이 되었다. 정말 많이 기대한 나의 2학년 학교생활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학교에 갈 수 없게 된 나는 이 땅에 태어나 처음으로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 물론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인터넷 강의는 자주 들어봤어도 학교 수업을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한다니..... 정말 놀라웠다. 내가 바로 이 세상에서 온라인, 원격수업의 첫 시작을 맞이한, 1세대 학생이 된다는 것이다!!

대망의 첫 온라인 수업 날이 되었다. 나는 너무 당혹스러웠다. 인터넷도 온라인 수업을 시행한 게 처음이라 그런지 당황했나 보다. 전국적으로 많은 학생이 ‘위두랑’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해 수업하려고 동시접속을 했는데 아니 글썄, 서버가 터진 것이다. 기다리던 학교생활도 포기하고 첫 시작이라 긴장했던 온라인 수업 첫 시간마저도 서버가 터지다니. 역시 처음이 제일 힘든 건가 보다. 시간이 지나 정상적으로 돌아온 플랫폼 덕분에 우리는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과목별로 영상을 보고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데, 온라인 수업이 처음일뿐더러 컴퓨터에 능숙하지 못한 나는 과제 제출 버튼마저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나고서야 나는 능숙하게 과제 제출도 하고, 영상도 챙겨보면서 필기까지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나는 점점 ‘피곤한데 그냥 출석 체크만 하고 한 시간만 쉬다가 과제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태해져만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지 하나를 하였다. 내용은 이랬다. ‘다음 주부터는 위두랑이 아닌 줌을 통해 원격 수업을 합니다.’ ...망했다. 평소에 나라면 보는 사람도 없고 집에서 자유롭게 수업할 수 있어서

대충 씻고 잠옷 차림으로 누워서, 앉아서, 엎드려서 편한 자세로 수업했는데 줌으로 수업을 한다니. 위두랑이 아닌 줌을 통한 수업이라면 카메라를 켜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쌍방향 수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에게는 정말 청천벽력같은 소리였다. '일찍 일어나서 씻고 밥도 일찍 먹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수업을 해야 한다니...' 1년 전 일반적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던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을 읽었더라면 아마 정신 나간 애라고 했을 것이다. 그만큼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수업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위두랑으로 수업하던 게 익숙해진 나에게 줌 수업은 정말 힘겨운 도전이었다. 그렇게 줌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친구들도 적응이 되지 않았는지 한동안 침묵의 수업 시간이었다. 더군다나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이해했는지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없으실뿐더러, 시간이 매우 촉박하여 진행을 매우 빨리 하셨기 때문에 한동안은 필기를 자주 놓쳤고 결국에는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께 따로 연락하여 질문하는 일이 번번이 발생했다. 줌 수업은 적응이 힘들어서인지 위두랑으로 수업하는 게 너무 그리웠다. 아니, 그냥 1년 전에 그렇게 가기 싫다고 외쳤던 학교가 너무너무너무 가고 싶었다.

그렇게 나는 몇 개월이 지나도, 아직도 원격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경험한 원격 수업은 정말 적응을 하려고 해도 너무 어색했다. 그렇다고 해서 원격 수업이 싫은 것만은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원격 수업은 적응하는 게 가장 힘들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학생들이 공감할 만한 아주 큰 장점이 있다. 원격 수업은 외부가 아닌 학생들 개개인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으로써 수업이 끝나면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큰 이동 경로 없이 바로 본인의 일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소에는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는 데만 20분이 걸리고, 옷 갈아입고 간식 먹고 바로 학원을 가야 했는데, 원격 수업 덕분에 학원가기 전까지 시간이 널널해져서 부족했던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원격 수업이 아직도 힘겹게 느껴지는 나는 학교가 너무 가고 싶어지기만 한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중학교 수업시간이 초등학교 생활 때 비해서 많이 늘어났고, 규칙도 엄격해지고, 무엇보다도 친구들을 보면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아니면 매일매일 가야 하는 학교생활에 지쳐서인지 이상하게 학교가 가기 싫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국적으로 학생들은 비대면으로 수업하게 되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자기주도학습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비대면 수업이라서 너무 좋았다.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편하게 수업할 수 있어서. 그런데 가면 갈수록 혼자서 수업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러다 보니 막 옛날 생각이 들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하고, 모르는 건 옆 친구에게 물어보거나, 교무실로 가서 질문도 하고, 학생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공동체 생활이 너무 그리웠다. 처음이었다. 학교생활이 그리웠던 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나의 좌충우돌 원격 수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원격 수업은 나에게 처음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공동체 생활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준 계기인 것 같다. 앞으로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다시 정상적인 등교가 이루어진다면 학교를 매일매일 활기차고 즐겁게 다닐 수 있을 것만 같고, 열심히 다닐 자신이 생겼다. 힘든 시기에 공부하는 것 자체가 버겁고 지치겠지만 정상적인 등교를 위해 우리 모두 힘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내자!

나의 코로나-19 성장기



하남중학교 2학년 이희원

몇 달 사이, 많은 것들이 변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면 모두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뿐이고, 너무도 갑작스럽게 내 주변의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확 바뀌어 버렸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원격 수업 또한 지속되고 있다. 불과 몇 달 전만해도 원격 수업이란 새로운 수업 방식에 낯설어했다. 2학년이 되어 치루게 될 첫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만으로도 버겁게 느껴졌던 나에겐 코로나-19는 정말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다. 더군다나 이전까지는 등교 수업이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공부했다면 이제는 오로지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 기본적으로 학습 태도 또한 많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원격수업을 시작한지 두 달쯤 지나가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마음만은 어떤 수업형태든 더 잘할 수 있다는 열정이 가득했고, 대충하면 안 된다는 마음의 질책을 느끼고 있었다. 시간은 잔인하리만큼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나는 그 속에서 아무 것도 못하고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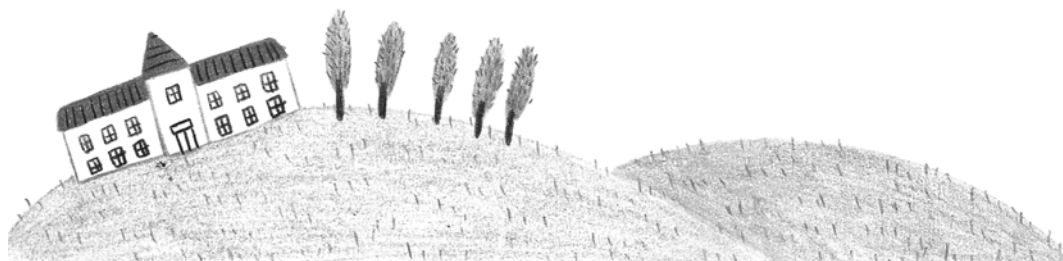
내 생애 첫 시험을 치르고 나서야 무언가 한참 잘못되었음을 깨달았고 다시 한번 나의 문제점을 돌아보게 되었다. '언제까지 원격수업을 낯설어 할 것인가?' 나 스스로 답답함을 느끼고 괴로웠다.

최근 들어서는 부모님과 고등학교 진학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대화도 하였다. 코로나-19가 내게 가져다준 가장 큰 변화는 내가 나를 다듬는 법을 터득했다는 것. 코로나-19로 갑갑할 나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상을 꾸리기 시작했다. 의욕이 사라져가는 생활을 바꾸기 위해 유치원 졸업을 마지막으로 서랍에 넣어 놓고 쓰지 않았던 크레파스를 꺼내 그림을 그리거나 서점에서 책을 사 읽는 등 평소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들을 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나는 즐거움을 느꼈다. 하루를

무의미하게 흘러버리지 않고 알차게 보내려고 노력했다. 물론 공부도 빠트리지는 않았다. 마냥 놀기보단 하루하루 정해진 공부량을 채우고, 그 뒤에 나만의 시간을 보냈다. 나는 이 위기를 새로운 실험의 장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학습 방법에 도전해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기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괴로움을 통해 나는 원격수업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을 얻게 되었다.

어쩌면 지금 즐겁다고 느끼는 이 마음도 얼마 안 가서 지치고 짜증나고, 막막할지도 모르지만 그때마다 무기력해진 자신을 보듬고 격려하고 쉬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또 다시 그렇게 하루하루 즐겁고 부지런하게 살다 보면 언젠간 코로나-19가 없던 예전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생활했던 일상. 힘들어도 진짜 조금만 참자. 금방 끝날 것이고 거의 다 끝나간다. 5년전 메르스가 지나갔듯 지금의 코로나-19도 언젠간 지나간다.



혼자서도 잘해요, 나의 원격수업 성장기



하남중학교 2학년 임명규

안녕하세요? 2학년 4반 임명규 학생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어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정말 많은 삶이 바뀌었습니다. 전국의 학교들도 4월부터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비대면으로 수업할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저는 여러 명이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수업할 것이라 생각하였고, 과연 수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위두랑’이라는 학습사이트를 통해 컴퓨터로 원격수업을 하게 되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평소에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상황이라 좀 당황했습니다. 회원가입, 영상 재생, 과제 제출 등 사용 방법과 수업 진행 방식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익숙해졌고 조금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학기가 되자, ‘ZOOM’이라는 새로운 수업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위두랑’은 일방향으로 내용을 전달받는 방식이지만 ‘ZOOM’은 쌍방향으로 대화하며 수업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해서 보다 더 실감 나는 수업이 가능했지만 새로운 수업방식을 다시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ZOOM’ 수업은 ‘위두랑’ 수업 대비 학습 시간이 길어졌고, 긴 시간 동안 계속 모니터를 바라봐야 했으므로 눈이 상당히 피곤했고 목, 허리, 엉덩이가 계속 아팠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다 보니 수업에 집중도 잘 안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등교수업이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계속 발생하였고 등교수업이 언제 정상화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의 이러한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극복하고 적응하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모니터 탓에 눈이 피곤한 것 같아서 아버지께 상황을 말씀드렸고,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저를 위해

새로운 노트북을 사주셨습니다. 새로운 노트북은 화질이 좋았고 오랜 시간 동안 수업을 들어도 눈이 덜 피로했습니다. 또한, 수업을 할 때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규칙적인 수면시간과 식사 시간을 지켰고, 쉬는 시간에는 간단한 체조를 하였습니다. 화상수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주변이 산만하지 않도록 방 안에 노트북을 두고 수업에 참여하였고, 수업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어느덧 11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이제는 일상화되었고, 이러한 수업에 잘 적응하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잘 극복하고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도 이 평범하지 않은 현실에 잘 대처하여 평범한 삶으로 훌륭하게 극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과거에 평범하게 생각했던 학교생활, 친구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것가를 깨닫습니다. 언젠가는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고 다시 그 평범한 삶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의 그 평범한 삶이 나에게 얼마나 특별한 삶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겠습니다.



2020년이 안겨준 커다란 숙제



하남중학교 2학년 양예원

2020년,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지난해와 별반 다를 것 없이 학교에 가서 자기소개를 하고, 친구들과 친해지기에 바쁜 새 학기 첫날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익숙하고도 당연했던 생활들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채, 2020년의 반이 훌쩍 지나가버렸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처음 등장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렇게 코로나-19의 여파로 바뀐 우리의 일상들 중 학생인 나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현실은 무엇보다도 수업이었다. 대학입시를 비롯해 초등, 중등, 어린이집 등 학생들의 교육을 어떤 방안으로 실현하면 좋을지 생각하던 교육부는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실시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거나,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출하는 형식의 원격수업 방법을 제안했다.

원격수업 초기에는 수업 시간 배분, 의사소통의 부자연스러움 등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다. 또래친구들의 대다수는 원격수업보단 학교에 직접 가서 실시하는 대면수업을 더 선호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대면수업을 선호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아래의 두 가지로 간추릴 수 있었다.

첫째, 원격수업은 집에서 하는 실시간 수업이므로 수업시간에 자꾸 딴 짓을 해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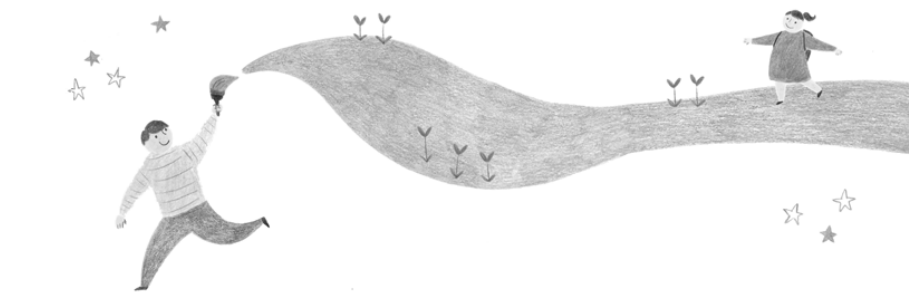
둘째,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만나 서로의 관심을 이야기하고, 수업시간 친구들과 모둠활동 등을 하며 재밌게 수업을 듣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 또래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서로의 관심거리를 공유하던 공동체 공간인 학교가 없어진 것과 같아 원격수업에 재미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고,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참여도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이였다. 이외에도 인터넷 연결의 불안정함, 시스템적 오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참여가 어려운 것이 원격수업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원격수업의 장점도 없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나 핸드폰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들을 빨리 찾아 적절한 곳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실제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 소극적인 학생도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원격수업은 우리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개인의 의지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만약 코로나-19가 이대로 장기간 지속된다면 선생님들께서는 원격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사용할지를 연수나 강의를 들어 역량이 더 커지실 것 같고, 인터넷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은 물론 시스템적 오류 등을 완벽히 제거해서 더 이상 오류는 나지 않을 것이라 본다. 이때 학생들은 무엇보다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원격 수업에 성실히 임하는 자발적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2020년, 원격수업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안겨 준 커다란 숙제인 것 같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우리가 생각을 모으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원격수업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다. 원격수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자.



10년 뒤의 나에게



하남중학교 2학년 최지우

안녕? 지금은 2020년 10월 27일, 점점 가을이 깊어가고 있어.

원격수업 2주에 등교수업 1주에서, 등교수업 2주가 되면서 오랜만에 등교를 했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집-학원-집-학원’ 생활을 반복하고 있어. 그때는 어때? 백신이 개발돼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이전처럼 잘 생활하고 있지?

지금 모두가 백신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진 지 1년 정도 되어가고 등교를 하도 안 했더니 등교 일수를 셀 수 있을 정도야. 갤러리를 정리하면서 작년에 찍은 사진을 봤는데 급식실에서 친구들이랑 장난치는 사진, 운동회, 축제 때 사진들을 보니까 정상수업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어느정도 원격수업에 익숙해진 것도 같아.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6시간, 7시간씩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눕고 싶고, 제시간에 못 들어가서 찢찢매기도 하고, 튕겨지는 건 일상에다가 마이크 안 끄고 노래 불러서 정말 당황하고, 카메라 끈 줄 알고 잠옷 입고 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제시간에 잘 들어가서 수업도 열심히 듣고, 다들 이제는 잘하는 것 같아.

선생님들께서도 처음에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끊기지도 않고 채팅으로 개인 생각을 남기다 보니, 발표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기도 해. 아직도 선생님들의 “카메라 끄면 결석 처리입니다~!”하는 말씀이 끊이지 않지만 말이야.

다른 친구들도 이제는 정상수업 계속하는 게 상상이 안된다고 하더라고. 웃어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원하는 시간에 다시 본다거나 등·하교 시간을 줄여서 내가 편한 시간에

나만의 방식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서 '자기주도학습'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하지만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너무 나태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들어. 매일 수업 1분 전에 일어나 허겁지겁 준비하고 수업에 들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은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게을러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일부러 요즘에는 새벽에 산책도 갔다 와. 스스로 생활습관을 만들고 실천하는 게 뿌듯하면서도 이런 건 처음이라 맞는 건가 싶기도 해. 그렇지만 이런 경험은 모두가 처음이고, 모두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 이니까 다들 나랑 마찬가지로 힘들 거라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불공정하다거나 공부를 원격 수업이라 못했다는 그런 생각은 안하려고 하고 있어.

새 학기의 설렘,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설렘,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움... 뭐 그런 것들이 없어서 아쉽기는 해. 확실히 친구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시간이 거의 없는 건 맞거든. 학기가 끝나가는데 같은 반 친구들 중 말 한마디 나뉘보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 실시간으로 선생님들께서 이야기할 시간을 주신다고 해서 만나는 것만 큼 즐거운 대화를 나누지는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안전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모두가 고민하고 있어.

그때는 어떻게 수업하고 있니? 나도 정말 궁금하다.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장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살려냈을지. 이렇게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있듯이 그때도 지금보다 더 잘하고 있을 거고, 더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상황도 그땐 그랬지 하면서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이 편지를 읽는 날이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어. 항상 몸 건강하고 주변 사람들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 대면 수업이든 비대면 수업이든 어떤 상황이 닥쳐도 열심히 해볼 게 내가. 그럼 이제 자러 가야겠다. 안녕!

-2020년 10월 27일에 최지우가 -

공유 모자를 쓴 물고기 두 마리



갈매중학교 3학년 심규비

낮선 듯 흥미롭게 온라인 수업이 내게 다가왔다. 미래를 예측하던 사람들은 환호하며 자신들의 예측이 맞았다고 탄성을 질렀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달라질 교육 환경을 예측해왔고, 그들의 이야기를 즐겨 읽던 나는 상상만 같았던 예측들이 맞아 떨어졌음에 놀라울 뿐이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학교 교육의 환경도 확연히 달라졌다. 전염병의 세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몸부림과는 다르게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교육의 환경. 질병과 싸워야 하는 인간의 처지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그러하다 보니 매일매일 전달되는 디지털 세상의 콘텐츠 교육과 선생님들이 제시하는 과제 그리고 비대면의 수업방식이 흥미롭다.

지난 1년여 동안의 수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을 꼽으라 한다면 난 단연 영어 수업을 꼽을 것이다. 그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수업은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작품을 완성하였던 수업이다. 그동안 손으로만 그리던 그림을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그리고, 정교하게 완성할 수 있었던 수업은 변화된 수업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한 편의 영상을 본 후 우리에게 그림 한 장이 전송되었다. 물론 그것은 영상속의 그림이었으며 손으로 그리는 정통 방식의 그림이 아니었다. 영상 속 일부를 받아 내가 상상하는 뒷이야기 스토리를 설정, 나머지 그림을 이어 그리는 작업이었다. 우선 선생님이 올려주신 영어 책을 동영상 을 통해 시청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그 동영상에 나왔던 그림들 중 마지막 컷을 과제 앱에 제시하였다. 그 후 작업은 순수 창작 활동으로써 자신이 스토리와 그림을 완성하는 것. 사실 교실에서도 이러한 수업은 늘 해왔던 방식이다. 하지만 교실 공간이었다면 종이가 나누어지고, 채색 도구가 주어졌을 것이다.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색연필이나 색 펜을 이용해서 그것을 칠하며 종이로 된 형태로 제출하기.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던 순간부터 유치원 교육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과 현재의 중등 교육을 받는 동안 줄곧 이어져 오던 방식이다. 아마도 비대면의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방식은

아주 편안한 수업 방식으로 고착화 되어졌을 것이다. 그 안에서 창의력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산하기란 한계가 있음이 맞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면 수업을 할 수 없으며 그러하다 보니 내 손에는 선생님들이 나누어주는 종이가 쥐어져 있지 않았다. 대신 내가 영상을 만지고, 다듬는 작업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디지털 창작 활동을 해야 했던 것. 난 설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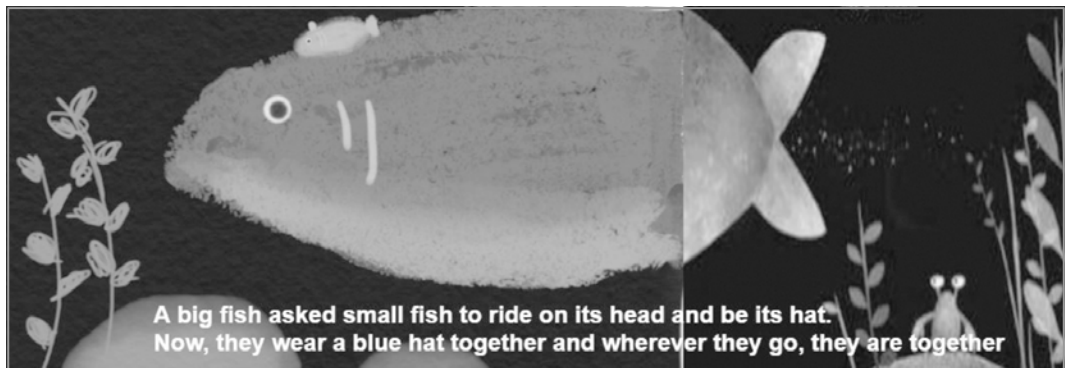
책의 주제는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쓰는 아주 작은 모자를 훔쳐갔을 때,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쫓아간다면 엔딩은 어떻게 될까?’였다. 나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등의 심상하고 평범하며 위협적인 엔딩으로는 설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스토리를 설정하고 싶었고 공유를 실천하는 물고기를 탄생시키고 싶었다. 하여 큰 물고기 위에 작은 물고기가 올라타는 그림을 그리고 모자를 같이 쓰고 다니는 공유그림을 완성했다. 그 둘은 늘 웃을 수 있으며 어디든지 함께 다닌다는 뒷이야기를 선택했다. 이것의 모티브는 늘 내가 생각하던 ‘공유경제’에서 따왔다. 평소 나는 공유경제에 관심이 많다. 왜 하나의 소유를 내 것으로 국한시켜 그것을 소유하고자 할까? 그것은 경제성의 낭비이며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보다 많은 것을 생산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불편한 진실을 만들어 낸다. 차라리 하나를 나누어서 사용하면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들. 난 그것들을 내 작품 안에 녹여 넣고 싶었다. 그것은 자연을 대하는 태도이자 예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평소에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기를 즐겨하는 나는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었다. 하여, 온라인에서 그림을 그리는 수업이 아주 반가웠고,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 9년 동안 학교를 다니며 많은 과제들을 해왔지 않은가? 하지만 이렇듯 수업시간에 실시간, 온라인으로 한 적은 없었기에 이 경험이 반가웠고, 행복했다.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서 꼭 수업을 듣기만 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더 폭넓은 수업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더불어 수업을 마치고 과제를 제출하면서는 ‘동화책 작가를 두 번째 직업으로 해봐도 좋겠어.....’라는 새로운 도전 계획도 세워 보았다.

원격수업은 우리가 선택하여 얻은 교육 환경이 아님은 맞다. 어쩔 수 없이, 밀리고 밀려서 시작하게 된 디지털 원격수업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언제고 받아들여야 했던 교육 환경 아니던가? 나는 그 시대를 맞이한 세대가 되었고, 그것을 운이 나쁜 세대라 말하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반대로 운이 좋은 세대라 말하려 한다.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척하며 실시간으로 잘 활용해 본 운 좋은 세대로 정의하고 싶다. 하여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보다 합리적이고, 함께 이루는 일들을 더 많이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탄생시킨 공유 모자를 쓴 물고기들처럼 우리도 이제 혼자서가 아닌 함께

이루어야 하는 일들이 더 많음을 몸으로 알아버렸다. 이것이 내가 경험한 원격 수업의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어른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눌하지 않으며, 어른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심각한 사회를 살아가지 않을 세대라는 것이다. 우리는 공유 모자를 함께 쓰고 세상을 헤엄쳐 갈 지혜를 알고 있으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만들어 낸 ‘공유 모자를 쓴 물고기 두 마리’의 일러스트와 스토리를 전달하고자 한다.)



나의 소망이 절망이 된 오늘



충의중학교 3학년 박정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전염병이 확산되자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나는 줄곧 집에서 수업을 듣는 미래를 바라곤 했었다.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온라인 클래스에 접속해 모니터 화면으로 개학식을 하고, 선생님들의 얼굴을 보며 신기해했다. 온라인 수업은 등교수업과 매우 달랐다. 질문이 있으면 교과방에 글을 올려야 했고, 출석과 종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몇몇 수업은 선생님의 얼굴도 못본 채 인강을 들어야 했다. 처음에는 첫눈을 본 강아지 마냥 좋아서 뛰어다녔다. 수업도 금방 끝나고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다. 난생 처음 오랜 시간 동안 모니터를 쳐다보려니 눈이 아프고, 많은 프린트를 뽑아야 했다. 학교를 가지 않으니 생활이 나태해지기도 했다. 수행평가를 부실하게 준비하게 되고, 심지어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는 와중에도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이제는 너무 학교가 가고 싶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고, 학교 급식이 그립고,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싶었다. 개학이 연기되고 연이어 현장 체험학습, 합창대회, 운동회 등이 모두 취소되어가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 기술 책에서 본 발전된 미래 사회 모습에서의 온라인 수업을 부러워하던 과거의 내가 미워지기 시작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지만 언제나 나는 적응이 힘들다. 그렇지만 학교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을 내가 거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린 순간은 지금 이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평소에는 몰랐을 선생님, 친구들, 학교의 소중함 그리고 답답한 마스크는 존재하지 않는 시절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영영 사라지지 않아 마스크를 계속해서 쓰고 다닐 수도 있다. 그러므로 조금은 변화된 태도로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의 나태함에서 놀랐다. 다시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 비록 선생님과 대면해 수업을 듣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학교에서 그랬듯이 성실하게 수업에 임해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모두가 처음인 온라인 수업



충의중학교 3학년 최민서

2020년 새해부터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감염성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퍼졌다. 이로 인해 사상 최초로 개학을 연기하며 온라인 수업 제도를 도입했다. 이것은 학생들이 계속된 개학연기로 인해 나태해진 생활방식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는 제도였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발표가 난 뒤 선생님들은 바쁘게 준비했을 것이고, 탄식하는 학생, 걱정하는 부모님까지 등 다양한 반응이 일어났다. 그 당시 나는 '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한 편으로는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는 방안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는 미래에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을 할 수도 있으니 연습한다고 생각하라고 말했다. 이 말에 만약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을 한다면 선생님과 친구들을 자주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조금은 아쉬울 것 같았다.

시간이 흘러 첫 온라인 수업 당일이 되었다. 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 수 없어 일찍부터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정각이 되고, 강의를 들으려는데 재생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많이 당황스러웠다. 처음에는 이를 대비하지 못한 EBS를 탓했다. 그러다가 생각해보니 EBS측도 이런 일이 처음일 것 같아서 기다렸다. 2시간 동안의 기다림은 힘이 들었다. 그래서 일단은 쉬기로 했다. 밥을 먹으면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재생이 되었다. 내일은 서버가 터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들었다. 다행히 서버는 나날이 좋아졌다. 렉이 걸리는 횟수도 점차 줄어들었다.

온라인 수업은 아무래도 등교수업보다는 집중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이전과 다르게 이동수업이 없고, 수업시간도 줄어들었다. 한 달이 지나고 온라인 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게 되었다. 어떠한 일이나 제도에는 늘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등교수업과 온라인을 병행하면서 반대하는 사람과 좋다는

사람이 많이 갈렸다. 온라인 수업은 보았던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어 좋았고, 등교수업에서는 들을 기회가 한 번뿐이라는 생각에 집중하며 들었다. 우리가 가장 편안해하고, 쉬고, 잠까지 잘 수 있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듣다가 너무 졸려 졸아본 적도 있고, 밥을 먹으면서 수업을 듣거나, 화장실을 다녀올 때도 종종 있었다.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많다. 우리도 처음이지만, 아무래도 매일 영상을 준비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직접 녹음까지 하시면서 가르쳐주셨는데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 느낀다. 모두가 열심히 해야 좋은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생각에 열심히 듣고, 필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은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셨다. 이처럼 앞으로 수년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들이 나타나고 사라질 것이다. 이에 대한 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고 코로나19가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생활 패턴에 익숙해져야 할지도 모른다. 코로나19로 인해 누군가와 만남이 더 소중해졌고, 개인 생활규칙을 더 지켜야 해서 힘들고 아쉽다고 불만을 가지기 보다는 새로운 수업 형태인 온라인 수업을 통해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앞으로의 수업도 열심히 임하고 싶다.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학교생활



이천제일고 1학년 백지성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원격수업을 해야 하는 2020년 3월 아침 시간이 나에게 처음 시작되었다.

겨울 방학이 끝나면 개학과 동시에 신입생으로 고등 첫발을 잘 내 디어야 하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교실을 생각했는데, 중국에서 전파된 못된 바이러스가 우리 배움의 방법을 대면 수업에서 원격수업이라는 교육의 변화로 새 학기를 시작하게 만든 것이다.

상상도 못한 일이라 낯설고 모든게 불편했다. 우리집은 원격수업을 시작하면서 오래되고 낡은 컴퓨터를 이 참에 더 큰 모니터와 빠른 인터넷을 설치하여 수업에 불편을 덜어 주셨다. 주변에 원격수업 장비를 갖추지 못한 친구들은 학교와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원격 수업에 임했다. 한 가정에 학생이 둘 이상인 가정은 컴퓨터와 핸드폰을 바꿔가면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 집에서는 또 다른 소학교가 생긴 것 같았다. 부모님도 몇 시간씩 모니터에 노출되는 나의 눈이 나빠질 것 같아 걱정이 많아 보였다.

아들! 일어나서 컴퓨터 로그인 해야지.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며 시작된 목소리의 주인공인 부모님은 출근 준비와 나의 원격수업 준비에 더 바쁜 아침을 오늘도 치루고 계셨다. 학교에 등 하교를 하지 않아 더 여유로 올 것 같은 아침인데 푸시시 일어나 흐트러진 머리를 하고 컴퓨터와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그 흐트러진 모습도 시간이 되면서 규칙적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처음 원격수업 시작할 때는 사이트 동시접속이 증가하는 바람에 쉽게 접속되지 않았는데 여러 번 하면서 이 문제도 바로 해결 되었다. 나는 실습수업이 많은 특성화고에 다닌다. 실습은 원격수업으로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의문이 생겼다. 이 문제는 6월 3일 우리 학교 1학년 개학 날부터 원격수업

과정에서 들은 것을 토대로 작업복을 갖추어 속도있게 실습으로 해결하고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과는 실습 과정도 원격수업으로 하는 장면을 뉴스에서 접하게 되었다. 원격수업으로 실습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지만 대면 수업 없이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실습수업이 너무 신기했다. 이렇게 의문이 풀릴 쯤 많이 불편했던 3월보다는 조금 익숙해져서 원격수업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은 많이 사라졌다. 원격수업 때문에 음성만 듣던 친구들의 목소리와 담임 선생님은 늦은 개학이 되어서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는데 매일 듣던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는 처음 얼굴을 접해도 친숙해져 있었지만, 서로 대화를 못 하고 원격수업을 받던 친구들은 만남과 동시에 조금씩 눈에 들어왔고 바로 친해졌다. 지금부터는 서로 발열 체크 잘하면서, 손 소독제도 사용하고, 마스크도 잘 착용하면서 계속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내가 생각 했던거와는 달리 개학한지 2주가 되어서 또 원격수업에 들어가야 할 일이 생겼다. 모두 조심했는데 많은 인원이 있는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겨 전체 학생과 선생님을 모두 확진 검사와 함께 2주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다시 원격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원격수업 과정은 익숙해져 있어서 수업 진도에 맞게 잘 따라가고 있었다. 원격수업이 익숙해져 갈수록 등교해서 공부하는 게 더 어색해져 버릴까 봐 걱정이 되어 가는데 지필 평가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또다시 7월 31일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다.

방학은 따로 원격수업을 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을 하였다. 8월 24일 개학을 했지만, 경기도에 코로나-19 위험이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해지면서 8월 26일부터 또 학년별 원격수업 기간에 들어갔다. 3학년이 등교하여 대면 수업을 하면 1, 2학년은 원격수업을 하고, 학교도 원격수업과 대면 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지금은 코로나로 시작한 사회적 거리 두기 과정이 1단계 -> 2단계 -> 2.5단계 -> 1단계로 내려오면서 10월 19일부터 전교생이 등교하는 학교가 하나 둘씩 늘어났다. 우리 학교도 머지 않아 전교생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더 잘 지켜야겠다.

내가 원격수업을 하면서 느낀 것은 대면 수업에 반해 쌍방향 소통과 집중력이 조금은 부족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원격수업 참여하는 우리들의 올바른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이지 않는다고 대충하면 안 되고 더 자기 주도적으로 원격수업에 임하면 미래형 수업으로 발전하고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자기 주도 학습이 자리 잡을 것 같다. 나는 공부도 하면서 운동도 하는 선수이기에 따로 학원을 다닐 수 없는 조건이다. 그래서 원격수업만으로는 충분한 공부가 되지 않는 것 같다. 모르는 것을 학교에서 물어봐야 하는데 원격수업으로는 해결하기가 너무 불편했다. 친구들도 코로나-19에 학원들도 못 가고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와 친구들은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교에 대한 소중함을 절실히 느낀다. 더 많은 것을 공부하며 궁금한 것들을 알아 가야 하는 시기에 코로나-19 학습법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시대가 정말 역사에 남을 것 같다.빨리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

첫만남의 향기



양정여자고등학교 1학년 김민서

어여쁜 꽃이 피는 선분홍빛의 봄에,
인사마저 부끄러워 몇 번이고 돌아보는 그런 3월이 오면
맑고 새하얀 웃음소리 너머 어린 기대감이 가득했던 그런 곳
학교의 설렘은 어디가고 조용한 온기만 가득하네

새로운 시작에 어찌할 줄 몰라 어영부영하던
그 모습은 마치 어릴 적으로 돌아간 듯해,
천천히 불어오는 작은 바람 따라
살며시 손을 마주 잡고 슬그머니 어색한 흐름을 따라가네

노래하던 새들도 익숙치 않아 피하는 그 시절의 그 떨림
매순간 꿈꿔왔던 나의 열일곱이
그렇게 잔잔하다가도 매섭게 불어오는 파도에
그냥 그렇게 휩쓸려 지나갈까 두렵구나

졸린 눈 비비며 걸어가던 등굣길은
소소한 이야기마저 함박웃음을 짓게 하던 시간
가을 바람, 겨울 바람의 향기가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는
애뜻한 그리움에 대한 기억이 그 향기를 맡으며
나를 더욱 학교가 그림계 만드는구나

그렇게 나와 너의 흐름이 지나고
어색하게 다가가던 그 시절이 무색할 만큼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시간
너도나도 마음 편히 다가가니,
나 또한 아무렇지 않은 듯 편안한 얼굴로 너에게 다가가네

고요한 집 안에서의 홀로 남은 수업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를 자연스레 따라가다 보면
나도 어느샌가 함께 하고 있던 그런 시간

한가지의 변화가 불러온 커다란 변동은
여기까지 따라와준 나를 발견하고는,
이제 즐거운 추억 쌓을 일만 남았다며
두려웠던 내 마음을 다독여 녹여주는구나

선생님과 친밀감을 쌓으며 더욱 편안해진 공기 안에서 하던 수업,

떨리는 발표를 하며 친구들과 공유하는 생각 속에서

한층 성장해 갈 수 있었던 수업이 있었기에

바빠 달려왔지만 모두 덕에 따뜻할 수 있었던 그곳.

학교는 정말 우리 곁에서 묵묵히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의 행복을 주던 곳이었네

학교, 만약 너가 없다면

우리 또한 행복하지 않을 것임을,

이제와서 알아주어 미안하구나

이제라도 알게되어 다행이구나

원격수업, 너와 함께 달려가고 있는 이 시간은

언젠가 색다른 존재였다고 웃으며 회상할 것 같구나

처음이라 두렵기도 했지만 달라진 상황에서도 배움을 주어

그것으로 더 소중하고도 특별했던 우리의 첫 만남을

난 고맙고도 감사하게 기억하고 여길 것이네

좌우충돌 나의 원격수업 생활



양정여자고등학교 1학년 김유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생활은 정말 많이 바뀌었다. 나는 이번 바이러스는 조용히 지나가겠거니, 몇 명 걸리고 나아서 우리나라에선 번지지않고 피해를 별로 입지 않은 채 지나가겠거니 라고 안일했었던 내가 너무 부끄럽다. 금방 걷힐 것 같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렇게 막연히 넘겨졌었던 내 예상과 다르게 더 번져만 갔고 학생들은 더이상 학교를 정상적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러한 이유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미래엔 이렇게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학교 수업을 하게 될 거'라며 과학의 날에 상상의 나래를 펼쳐 그려냈던 그림들이현실로 이루어졌다. 비록 좋지 않은 과정으로 나의 상상이 현실이 되었지만 이기적인 마음으로도 한편으론 신기하고, 내가 겪는 새로운 일상들이라 그런지 조금, 아니 많은 기대를 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기대만 하기엔 원격수업은 너무나도 큰 벽이었고, 정말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다. 원격수업을 어떻게 어떤 앱 으로 하는지도 알아내야 했고, 무엇보다 수업의 시작을 알려주는 학교 종소리가 따로 없어 내가 스스로 시간에 맞춰 노트북을 켜 수업에 접속 해야 한다는 생각에 낯설고 두려웠었다. 사실 지금도 적응 해 나가는 중 이기는 하지만, 처음보단 익숙해진 원격수업으로 나에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몇 개 생겨났다. 그 일들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다. 보통 쌍방향 수업을 한다면 '자신의 방 안에서 컴퓨터로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에겐 중학교 1학년인 동생이 하나 있다. 중학생이다 보니 수업이 나보다 빨리 끝나는 편인데, 그런 동생은 빨리 끝난 그 시간에 컴퓨터를 하고 싶다고 했다. 게임과 용량이 큰 파일들이 들어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는 모두 내 방에 있는데, 자기가 일찍 끝난 만큼 게임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어차피 나는 수업만 들어가서 들으면 되니(나도 수업 듣는용 컴퓨터 계정과 카메라용 휴대폰계정 둘 다 수업에 들어가기엔 번거롭다고 생각하기도 해서), 동생방으로 가서 노트북으로 수업을 듣기로, 내 동생은 컴퓨터가 있는 내 방에서 작은 태블릿으로 수업을 한 후 자신의 수업이 끝나면 컴퓨터로 게임을 하는 것으

로 타협했다. 그러다보니 서로 동선이 많이 겹치게 되었는데, 내가 모든 수업 자료들을 내 방에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고, 프린트를 하기 위해 내가 내 방에 동생이 수업 중 임에도 찾아가야 하는 일이 종종 생기기도 했고, 동생도 내가 수업을 듣고 있는 자신의 방에 찾아와야 하는 일도 생겼다. 그러다보니 수업 듣다가 갑작스럽게 비디오를 끄는 일도 흔치 않게 생길 수가 있었다(비디오를 끄기 전 마이크도 끄고 동생에게 복화술로 “잠깐 기다려..!”라고 말 한 후, 비디오를 끈 다음 동생이 후다닥 왔다 갈 수 있게 한다. 황하하하! 얼마나 웃기던지). 수업 중에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일이 이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원격수업은 아침 조례를 8시 50분 까지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평소 등교개학 때는 6시 반에 일어났던 나라면, 원격 수업 때는 8시 반에 일어날 수도 있었다. (종종 머리만 대충 빗고 들어갔던 적도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된다는 안심이 들어서 인지 늦게 일어나 (예를 들어 8시 48분 정도) 허겁지겁 노트북을 켜던 일이 한 두 번이 아닌데, 그러다보니 밥도 먹지 못하고 바로 수업을 들어 갈 때가 있었다. 근데.. 아침 밥도 먹지 못하고 수업에 들어간 딸이 안타까웠는지 엄마께서는 원격수업 초기엔 내 방 문을 뺨뚫 열고 밥그릇들 들여다 주시기도 했다.(줘도 못먹는데..) 하하하 웬지 그런 밥그릇을 받을 때마다 교도소에 배식을 기다리는 죄수가 된거 같아 웃기기도 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 적응이란 건 아마 내가 제일 잘할 듯 싶다는 걸 난 이번기회에 알게 되었다. 원격 수업을 하다보면 카메라를 키고 나의 얼굴을 비추는 것이 필수인데, 아무래도 내 얼굴 뿐만이 아니라 뒷 배경까지도 카메라에 비추기 때문에 평소에 잘 하지 않던 방청소까지 해야했었다. 원격수업 초기엔, 혹시라도 ‘내가 카메라를 잘못 건드린다’거나, ‘카메라에 비춰지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카메라에 잡힐 수도 있겠다’ 라는 불안감 섞인 생각들로 카메라에 비추어지지 않는 부분까지 구석구석 열심히 청소도 했었다. 하지만 원격수업에 적응이 다 된듯한 지금은 카메라에 비춰지는 부분만 쏙 빼놓고 난장판이다. 내가 직접 수업 자료들을 받아 프린트 해 쓰다 보니 파일에 꽂아놓지도 않고 아무데나 막 널브러져 있어서 어떤 과목인지 구별도 하지 못할 정도로 섞여버린 수업자료(유인물)들과, 쉬는시간에 조금조금씩 꺼내먹기 위해 준비 해 놓은 포장 뜯은 과자봉지와, 탐처럼 쌓인 교과서들 등등이 따악 카메라에 비춰지지 않은 부분 선에서 어질러져있다. 이게다 ‘카메라야 건들지 않으면 되는거고, 누가 내 방을 자세히 관찰 하겠나. 생각보다 다들 관심 없다’ 라는 생각이 든 후 부터이다. ‘어이없겠지만 이게 현실인걸 뭐 어찌겠나, 아마 나만 이런 건 아닐테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며 글을 쓰고 있는 내 모습을 보자니 참, 적응이란 건 무서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원격수업을 비디오만 켜 놓고, 오디오는 잘 켜 놓지 않은 채 수업을 듣는다.

음 아마 ‘집에서 수업을 들으니까 생활소음을 막기 위해 그런 건 아닐까’ 하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만 노노, 아니다. 뭐, 그런 이유도 없지않아 있기는 하지만 아주 조오금 정말 조오오오금 이다. 내가 오디오를 꺼 놓고 수업을 듣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나의 흥 때문이다.

여기서 다들 피식거리려도 난 할 말이 없다. 학생이 수업시간에 흥이 오른다는 건 학생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일이며,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물증이 될 테니까. 그래도 뭐 어찌됐나, 수업을 내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우리 집에서 하고 있는데 긴장이 너무 풀어져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경험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창피함을 한 번 겪어 봤기 때문이다. 원격수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난 원격수업 시작 시간 보다 몇 분 더 일찍 반에 입장 해 있었다. 선생님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시고, 친구들도 아직 입장 중 이기 때문에 노래를 흥얼거렸다. 갑자기 등골이 싸해지더니 아뿔싸, 카메오디오와 비디오 모두 켜져있었다. 하하하 내가 노래를 잘 부르는 편이었다면 그나마 덜 창피했을 텐데, 별 값싼 노래실력으로 애들 다 듣는데 흥얼거린 난 너무나도 창피했다. 아이들이 아직 다 입장 해 있지 않은 채로, 흥얼 거렸기 때문에 ‘애들 다 듣진 못했을거야. 그리고 입장 했어도 수업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스피커를 꺼 놓는 애들도 있을거야.’ 라는 합리화를 할 수 있었다. 그 기억으로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생겨 더욱 더 오디오 차단에 예민히 다뤄왔던 것이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다른 아이들의 수업 집중과 나의 여린 마음을 위해(하하) 이걸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원격수업이라고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만 하는 수업을 생각 한다면 그건 오산!밖에 잘 나가지 않는 요즈음 집에서라도 운동을 하라며 체육 선생님들께서는 갖가지 운동 동영상들과 원격수업 으로 태볼과 같은 활동들을 주신다. 여기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원격수업에는 일어서서 하는 활동이 있는 체육 같은 과목도 있지만 대부분 책상에 앉아 공부 하는 과목이 훨씬 더 많은 것은 맞는 말이다. 앉아서 수업하는 일정이 더 많다보니, 나는 또 카메라에 보이는 부분(상의)만 신경 쓴다. 어차피 아무도 못 보는데 아래는좀 편해야 하지 않겠는가. 위에는 외출복 입으시고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 해 주시고 계신 과목 담당 선생님들 앞에서 양심도 없이 목 다 늘어난 잠옷을 입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니, 보이는 상체까지만 맨투맨과 티셔츠 같은 외출복으로 갈아 입어주고 있다. 당연히 하의는 오색빛깔 찬란한 길거리에서 산 5000원짜리 내 바지이지만. 어쨌든 체육 원격 수업시간엔 일어서서 하는 활동이 꽤 있는 편이다. 그러다보니 내 하의가 땀뭍 보일 때가 종종 있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이해 못 하겠지만 다들 눈을 감고 생각 해 주시길 바란다. 무채색의 간단한 외출복을 입고 대충 빗은 머릿결에 화려하고 밖에는 절대 못 입고 나갈 바지를 입고 있는 어젯밤 밤을 새워 sns를 하느라 다크서클이 내려온 초췌한 여고생을.. 그러다보니 난 앞의 오디오 사태(?)처럼 체육 시간이 있을 때에만 하의를 검정 먼 바지나 단정한 트레이닝 복으로 갈아입는 편이다. 이것마저 너무 귀찮긴

하지만 ‘아무리 집이여도 선생님도 계신데 너무 편안한 복장으로 수업을 들을 순 없다’ 는 게 내 생각이
다. 이렇게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있게 해준 원격수업. 너무나도 두렵기도 했지만 재미있었고
신선한 경험들이다. 앞으로 내가 얼마나 원격수업을 더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안겨준 일들이 마냥 창피하고 충격적이었던 기억들로 남을 것 같지는 않고 나중에 ‘아
코로나-19가 있었을 그땐 그랬지~’라며 웃으며 이야기 할 수 있는 일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경험들을 안겨준 절대 반갑지 않은 초대하지 않은 손님인 코로나-19에게는 지나가는 개미 손 끝 때에
적혈구의 모서리 끄트머리 부분만큼은 고맙다고 생각 한다. 원격수업이 끝나고 실제로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보면 더 애뜻하고 반갑기도 하다. 그동안의 못 들었던 궁금한 이야기들과 그리웠던 목소리들
을 들으면 하루빨리 이런 생활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참동안 든다.

‘없어져봐야 소중했던 걸 안다’던가, 그게 지금 우리들을 일컫는 말 같다. 평화로웠던 우리의 생활이
송두리째 없어진 지금에서야 그때를 소중하게 느끼는 우리들이다.

원격수업 같은 경험들도 너무나 소중하고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 이긴 하지만 이보단 어서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어던질 수 있는 코로나-19 없는 세상에서 다시 살아보고 싶은 게 나, 우리 모두의 소망
인 것 같다.

원격수업, 재미있고 소중한 추억들이지만 평화로웠던 때의 기억들을 더욱 더 소중하게 이제야 또
다시 바라보게 되는 이유가 되어 준 것 같다.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포곡고등학교 1학년 여은솔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던 작년 겨울, 갑작스러운 전염병 유행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점점 잊혀 갔다. 조금만 버티면 사그라 들겠지 생각하다 지쳐버린 사람들, 이제 모두 지쳐버린 것 같다. 난생처음 해보는 온라인 수업, 6월이 돼서야 처음으로 입어보는 교복 등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이란 만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일을 기회로 생각해 보기로 했다. 처음으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연습 출석체크를 했다. 혹시라도 제시간에 체크하지 못하게 될까봐 출석 시간이 한참 남았을 때부터 들어가 대기했다. 이렇게 떨리는 예행연습을 마치고 정식적인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었다. 평소 보다 늦게 일어나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이 되었는지 평소처럼 눈이 떠졌다. 그럴 필요는 없었지만 일어나자마자 머리를 감고 양치도 하고 모든 준비를 끝내고 조회 출석체크를 기다렸다. 얼굴도 빈적 없는 선생님과 하는 수업은 매우 이상했다. 내가 누구와 수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니 선생님들의 얼굴이 매우 궁금해졌고 하루빨리 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던 것 같다. 온라인 수업은 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과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수업이 끝나기 전에 제출하려고 노력했다. 혼자서 하기 힘든 과제가 종종 있었지만 최대한 노력해 거의 제시간에 과제를 제출했던 것 같다. 이렇게 거의 매일을 하다 보니 온라인 수업이 매우 익숙해졌고, 과제를 미루지 않고 항상 제때 내는 습관이 잡혀 오프라인 개학 전까지 매일 성실히 과제를 수행했다.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불편한 점은 매우 많았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기 전까지는 온라인 수업이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학교에 나가는 것보다 활동하는 것에 너무나 큰 제한이 있었고, 친구들과의 협동, 협업 등을 전혀 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이렇게 혼자 하는 활동이 계속되면서 자립심을 키울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모둠활동 등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할 때는 나의 뜻 말고 친구들의 뜻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고 나서서 주도 하기보단 뒤에서 묵묵히

나의 할 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무조건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누군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혼자 의견을 내서 진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고 나의 생각이 매우 확고해졌다. 평소 혼자 하는 것이 더 단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혼자서 하는 활동이 더 장점이 많게 느껴졌다. 이렇게 약 2달간 온라인 수업을 하니 학교가 매우 그리워졌다. 며칠을 밖에 나가지도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 계속해서 우울해졌고 우울해진 만큼 학교가 그리워졌다. 또한 다음날 학교에 간다는 부담감이 없어지니 늦게 자는 경우가 많아져 생활 패턴이 뒤바뀌어 건강이 나빠진 것 같다고도 생각되었다. 학교에 가면 제시간에 밥을 먹고 항상 움직이고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건강한 생활 리듬이 형성되지만, 원격수업을 하면 대화하는 사람도 없고 큰 움직임이 없으니 몸이 무거워졌고 더욱 늘어지게 되었다. 또한 학교에 가는 날이 적어 학교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체육대회, 현장체험학습 등 이러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아쉬웠고 상을 받을 수 있는 대회가 매우 줄어들어 나에게 매우 불리했다. 하지만 나에게 불리한 만큼 학교에 가는 날이면 평소보다 더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다. 학교에 적응할 시간이 매우 부족해서 오프라인 개학 초기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이제 학교에 나가는 날이 더 많아져서 많이 적응을 한 것 같다. 하지만 벌써 1학년 생활이 2달밖에 남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이 크다. 모든 사람이 힘든 이 시기를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헤쳐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코로나-19가 좋지 않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고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신을 성찰하게 된 계기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부정적으로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시기를 기회로 생각한다면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코로나-19

원격수업 체험수기



통진고등학교 1학년 지소민

나는 처음으로 원격 수업을 겪게 되며 상상으로만 그려보던 원격 수업이 빠르게 찾아오게 된 점이 신기하면서도 아쉬웠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등장으로 인해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원격 수업인지라 여러 단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 수업으로 인해 학력 저하 및 학력 격차와 관련된 문제점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중, 고등학교의 성적 분포를 보게 되면 대체로 성적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중위권이 사라지고 학생 대부분이 상위권 또는 하위권으로 몰리게 되면서 관련된 많은 문제점이 생겨났다.

첫째, 갈수록 사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교육보다 공교육을 중시하려는 국가의 노력에 비해 비대면 시대 이후 상위권 학생들의 대부분이 학교보다 학원에서의 공부로 성적을 올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학원, 과외 즉, 사교육에 관심이 더욱 높아졌을뿐더러 사교육을 중시하는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중위권이었던 학생들의 의지 부족을 일으킨다. 하위권은 물론 중위권 학생들도 공부함에 따라 본인의 성적이 오르는 것을 보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학력 격차가 벌어지면서 넘지 못하는 벽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늘고 그로 인해 포기하고, 의지를 잃은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상위권 등급 경쟁이 심화됐다. 중위권 학생들이 사라지고 학력 격차가 늘어남으로써 상위권으로 학생들이 몰려서 상위권 학생들끼리의 등급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상위 등급은 비율로 고정되어있는데 학생은 늘지 않은데 상위권엔 학생들이 몰리니 당연히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점들에 해결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수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제 제출로 수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 질의응답 시간도 갖고 온라인 수업으로 불편함을 겪는 학생이 없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사교육이 없이도 수업 내용을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줌이나 MS팀즈 등의 양방향 소통 플랫폼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포기하지 않도록 활발한 의사소통을 진행하여 의지박약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상위권의 경쟁 심화 해결방안 중 당장 우리나라의 상대평가, 등급제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해결방안이다. 하지만 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등급제 평가 비율을 낮추는 것은 과도한 경쟁 과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해결방안은 학력 격차로 인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이지만 비대면 사회가 끝이 나고 평소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와서 학력 격차가 줄어들고 원격 수업의 문제점이 사라지더라도 학생들이 받을 부담을 줄여주고 과열되는 경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단점만 언급했지만, 과연 단점만 있을까? 그것은 절대로 아니다. 단점이 많은 만큼 장점도 매우 많았다.

첫째, 자기 주도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거리 두기, 안전수칙이 없던 시기에는 학교, 학원에 다니는 것에 제한이 없어서 학교 수업과 학원에만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거리 두기와 안전수칙이 생긴 현재에는 학원의 의존도는 높아졌더라도 직접적인 수업을 받기엔 평소보다 힘들어졌고 이에 따라 그 공부 시간을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자기 주도학습을 통해 메꾸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자기 주도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

둘째, 수업에서 놓친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할 수 있다. 녹화된 양방향 수업이라든지 EBS 같은 교육 플랫폼을 이용한 수업,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등교할 때와는 다르게 수업을 놓치거나 다시 한번 듣고 싶다면 몇 번이고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점을 활용하여 나는 특히 시험 기간과 수행평가를 준비하며 여러 번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처음 해본 원격 수업에 나는 위와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원격 수업의 장점들을 살린 수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들을 봤다. 난 원격 수업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장 닥친 단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원격 수업이 가진 장점들은 정말 나의 성향과는 잘 맞는 장점들이라서 단점이 잘 해결되고 장점을 잘 살린 새로운 수업 방식이 구상된다면 그 수업을 미리 체험해보고 싶기도 하다.

코로나-19 사태는 어쩌면 기회일 것이다.



통진고등학교 2학년 남동건

나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학교와 학원 등이 휴교, 휴원을 하여 집에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어야 했으며, 학원공부도 집에서 하고 강의도 집에서 듣게 되었다.

지난 겨울방학에 힘든 winter라는 공부캠프를 막 끝내고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 왠지 모르게 해방감을 얻은 것 같았다. 나는 그 해방감 탓인지 아니면 나 혼자서 공부에 대한 의지가 약했던 것이었는지 그 3월을 지난 세월과는 다르게 놀고먹고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모두가 나처럼 그 3월을 그렇게 보내지는 않다. 물론 나처럼 3월을 아무 의미 없이 보낸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공부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던 학생들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자기 공부에 더 열중할 수 있는 기회처럼 생각하여 더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있고 집 안에서의 공부에 대한 압박으로 공부에 더 열중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또한, 중위권이나 하위권이었던 친구들이 이 사태를 기회로 생각하여 공부에 열중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을 실시한 날 이후로 처음으로 맞이한 대면 수업에서 비대면 수업 기간동안 공부에 열중하여 성장한 친구들을 보며 그들과 나는 똑같이 흐르는 시간에 나는 밀도가 낮은 날들을 살아온 나에 대해 실망하고 많은 후회한 것 같다. 그때 1차 지필 평가가 아직 2개월이나 남아있어 지금 이대로라면 “내 인생을 그대로 망하게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공부했지만 모든 이들 또한 공부에 열중하여 똑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면서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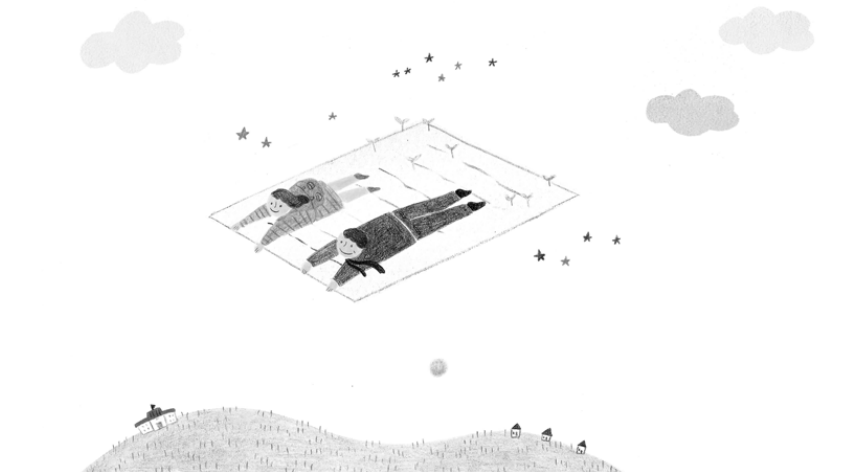
결과는 역시나 내 고등학교 생애 제일 낮은 점수들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비대면 수업 시기에 공부에 열중하게 임했던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지난 시험보다 더 높은 성적을 받게 되었고 중위권이나 하위

권 학생이던 친구가 어느덧 상위권에 가 있는 모습도 보게 되었다. 그들을 보면서 내 모습이 초라해져 보였고 패배자가 된 것 같아 보였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그 후부터는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일주일마다 로테이션으로 임하게 되었다. 나는 저번 시험에서 얻은 기분 때문인지 나는 성적에 목을 매단 듯이 공부를 하였고 비록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로테이션으로 진행되어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보다 선생님들의 감시나 긴장이 약해져 공부에 긴장이 덜 들긴 하였지만 1차 지필 평가 직후의 그 더러운 기분에 두려워서인지 공부에 계속 열중하게 임했다.

그리고 2차 지필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는 눈에 띄게 성적이 올랐고 1차 지필 평가로 망했던 1학기 성적이 올라 안도의 한숨을 약간이라도 뱉었다. 만약 1차 지필평가가 끝나고 계속 대면 수업이 있었다면 1차 지필평가와 같은 등수를 유지했을 것이다. 내가 원망했었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수업들은 어느덧 나에게 기회로 찾아왔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시간은 언제나 흐른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온라인수업 때 놀든 우리에게는 언젠간 대학에 원서를 내야할 시간은 다가오게 되어있고 시험을 치루어야 하는 시간은 다가온다. 그렇기에 온라인 수업에 과제를 다 제출하고 남은 시간이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말고 나에게 있어서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필요한 공부를 해야한다.



미래의 원격수업



통진고등학교 2학년 장준민

지난 몇 달간 나는 학교를 등교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출석을 하면서 컴퓨터 앞에서 학교 수업을 들어야 했다. 바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지금은 대면 등교하는 날이 더 많아졌지만 그래도 원격수업을 하는 날이 아직 있으며 이 사태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원격수업이 처음부터 익숙했던 것은 아니다. 특히 나는 이번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초반에 많은 불편함을 느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진행을 해서 혼란스러웠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날이 갈수록 원격수업의 체계가 잡혀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불편사항이 남아있음을 느낀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도 모르는 일이며 진정된다고 하여도 앞으로 온라인 수업의 활용도는 높아질 것이며 우리는 원격 수업의 단점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내가 겪었던 원격수업의 불편했던 것은 첫째로 소통이 불편해진다는 점이다. 현장수업 도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질문을 통해 해결이 가능했지만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는 바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가 많다. 게다가 온라인 수업이어서 대면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선생님들 역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기 힘들다고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두 번째로, 직접 현장에 가서 수업에 참여하는 참여형 수업이 없어졌다. 매년 오프라인 참여형으로 수업을 진행하던 경기도 ‘꿈의 대학’ 활동이 이번 연도에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결국 나는 담당 선생님을 직접 만나 봐지도 못하고 컴퓨터 앞에서만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러한 수업 방식은 창의성과 호기심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온라인 학습 환경이 좋지 않을 때가 자주 있다.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깐 인터넷 통신환경이나, 웹 카메라, 컴퓨터의 상태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학생들마다 집안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똑같이 수업을 제공받는 것이 힘들다. 그리고 돌발 상황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수업의 진행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 역시 인터넷 통신환경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나처럼 일시적인 통신환경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온라인 학습 기기가 없어서 아예 수업을 듣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학습기기의 부족은 학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큰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원격수업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의 학력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특히 학교 수업의 의존도가 높았던 저소득층의 학력 저하는 심화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는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까?

먼저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의 실시간 소통망을 구축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실시간 가상 현실 기술을 이용한다. 그리고 오히려 온라인이라는 것을 활용하여 AI, 빅데이터를 통해 오프라인에서는 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학습 역량에 따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 최근에 학생들에게 ‘선택’과 같은 온라인으로 하는 실시간 화상 과외가 인기세를 타고 있다. 이는 직접 만날 필요 없이 학습기기로 수업을 하며 서로의 음성과 필기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특히 공부한 내용은 저장되어 언제든지 복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불가능한 학습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학교 수업에 활용하면 온라인 수업도 오프라인 수업 못지않게 학생들이 쉽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선생님과 학생의 수업만이 아닌 멘토 멘티 수업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용하여 좀 더 학생들이 수업과 학습에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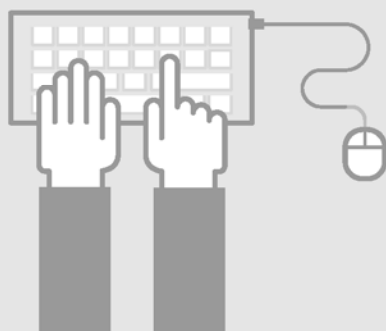
두 번째로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상, 혼합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좀 더 학생들이 직,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게 한다. 오프라인 강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세미나, 실험실습 등의 교수 활동, 동아리 활동,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포함한 국제 경험, 사회문화 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AR, VR, MR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학생들이 오감을 활용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참여형 수업이라는 점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이용되는 키트를 학생들에게 배부해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준 것처럼 저소득층에게 재난학습지원금을 주어 장비는 학교 측에서 지원하고 인터넷 망과 장소 문제에 대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나라에서 독서실과 비슷하게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저소득층이 무료로, 혹은 저비용으로 좋은 학습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

날이 갈수록 원격수업 시수는 줄어가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동안에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19 사회에서는 원격수업은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원격수업의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면서 체계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코로나-19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교육공동체의 성장스토리

원격수업으로 만난 미래교육 이야기

IV

학부모



(초등)

엄마, 췌!



회룡초등학교 학부모

달그락 달그락

아침 설거지 소리 요란할 때

등 뒤에서 화상수업하며 조용한 목소리로

“엄마, 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설거지 소리도 음소거할 수는 없을까요.

윙윙 윙윙

정신없이 돌아가는 청소기 소리 요란할 때

이곳저곳에서 쳐다보는 매서운 눈동자들

‘엄마, 췌!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청소할 때도 가상배경 만들 수는 없을까요.

크크 크크

조심히 켜놓은 조용한 TV소리가 무색하게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 참는 소리 요란할 때

잔뜩 찌푸린 얼굴로 심각한 아이의 모습

잠깐 쉴 때는 비디오 정지할 수 없을까요.

어쩌다가 아이들 공부 방해하는

천덕꾸러기 엄마가 되었을까요.

변화의 시대를 공부한다.

세계는 오래전부터 전염병에 대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최근 몇 년 전까지 패스트, 사스, 메르스 등 여러 전염병을 이미 겪었던 터라 발전된 이 시대에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도 몇 달이면 끝이 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코로나시대’라는 명칭을 얻을 정도로 이렇게 긴 시간 지속될 거라 누가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에볼라 바이러스 때처럼 멀리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던 때,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무서운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두려움에 휩싸였던 상황에서 온종일 뉴스에만 귀 기울이며 집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은 마음에 불안함을 더욱 가중시켰지요.

예전에는 활기가 넘쳤던 등교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텅 빈 거리를 보고 있다면 바로 앞의 내일을 생각하는 것도,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조차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길고 긴 겨울방학이 봄까지 이어져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모로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고 바깥활동을 해야 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겨우 생각한 것이 다 풀지도 못할 문제집을 잔뜩 사는 것이었습니다. 방역을

위해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등교가 거둬 미뤄지고, 즐겁게 공부해야 하는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하며 지루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는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마스크를 끼고 다니며, 주머니에 손소독제를 넣고 다니는 일들처럼 살면서 처음 겪는 새로운 수업방식은 우리 가정에 '적응'이라는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좌충우돌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쳐주는 종소리도 없이 시간에 맞추어 수업을 시작해야 했기에 분주하게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방식의 교육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마인 저도 어쩔 수 없이 교과서를 공부해야 했습니다. 2학년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두 아이들을 위해 매일 두 학년의 교과서를 보면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과마다 얼마나 많은 수고로 아이들을 위해 수업을 준비하고 적응하고 피드백을 해주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아니었다면 앞으로 알지 못했을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등교하지 않는 날에는 온라인클래스를 통해 매 교시 마다 링크된 영상으로 교과수업과 과제를 수행하고, ZOOM을 통해 화상 수업을 받습니다. 처음 겪는 낯선 모든 수업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학생이 정해진 시간을 맞추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고, 1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화상 수업시간 동안의 예의에 대해 배우고 습관화하는 것 또한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학년 초부터 지금까지 담임 선생님들은 모든 교과를 그냥 넘기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학생들이 등교한 날은 모든 교과서 한 페이지 빠뜨림 없이 확인하셨고, 하이클래스에 올린 숙제도 꼼꼼하게 확인하셨습니다. 화상 수업시간 동안 지켜야 할 예의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수업과 꼼꼼한 확인들이 엄마의 숙제인 것만 같아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점점 아이들의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주간학습안내를 확인하고, 그날의 수업과 숙제를 확인하고, 차근차근 스스로 해나갑니다. 이제는 엄마의 도움은 거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학생들의 수업결손이 없도록 그리고 대면이 어려운 시대를 따라 수업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하신 선생님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교육에 대해서도 더욱 큰 신뢰가 생겼습니다. 사교육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좋은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고 우수한 콘텐츠를 교육과 접목시키고, 영상을 통해 재미있게 공부하는 시대를 살게 된 것이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새롭게 시도되는 원격 교육들은 선진국의 좋은 교육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실정과 학생들에 맞도록 잘 다듬고 각 학교만의 독특한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 지금, 모든 것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회복되더라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다양한 원격수업의 확대는 지역과 소득의 격차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시키고, 질 높은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더 넓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원격수업이 학교생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인성, 관계, 직접체험 등의 교육을 뛰어넘을 수 없겠지요. 두 가지 교육이 모두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처음인 시간을 사는 동시에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의 연구자, 교육 현장의 교육자, 가정에서 부모가 시대의 변화를 잘 읽고, 변화에 맞추어 함께 공부하며 소통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오늘을 사는 어른이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학교 교육에 대해 신뢰하고, 공교육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이 미래를 향해 기분 좋은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방법을 찾고 즐겨라!



한류초등학교 학부모

코로나-19로 인한 등교/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등교 후 세 번 등교... 원격수업...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겪고 있습니다. 처음 겪는 원격수업...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두 딸을 둔 평범한 직장 맘의 경험담을 공유합니다.

학교생활에 대해 배우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면서 신나게 학교를 다녀야 하는 초등학교 1학년인 둘째는 평생 한 번 있는 초등학교 입학식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EBS로 주 5일 수업을 듣고, 학습 꾸러미를 풀다가, 드디어 일주일에 한번 등교를 했고, 지금은 일주일에 세번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EBS는 재미없고 지긋지긋하다는 아이... 학교에 가는 것이 훨씬 좋고, 재미있으며, 매일 학교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으로서 학교생활과 바른 학습 자세를 배우고,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성을 배워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1학년이 지나가게 되어 많이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걱정을 하기보다는 퇴근 후 아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책도 많이 읽고,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담임선생님과의 연락을 통해 피드백을 받으면서 1학년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집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학년 이기에 많은 부분에서 아직은 많이 서툴지만 어른의 기준이 아닌 1학년 아이의 시선과 기준에서 바라보며, 문제집 풀이의 공부 위주가 아닌 독서와 놀이를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재미있고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첫째 딸은 전자 기기 노출을 최대한 늦게 하고자 하는 엄마의 영향으로 컴퓨터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 온라인 클래스를 들을 때 컴퓨터 작동법과 타자 치는 것을 몰라서 어려워했고, 부모로서 온라인 클래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 아이가 어떤 것을 배우는지 궁금해서 담임

선생님께 미리 말씀을 드린 후 퇴근 후 저녁 시간에 아이와 같이 온라인 클래스를 들었습니다. 단순히 영상만 보고 수업을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공부하는 방법과 과정을 알려주고 싶어서, 먼저 아이와 같이 교과서를 읽고, 온라인 클래스에 있는 영상을 보고, 과제 등을 꼼꼼히 하다 보니 거의 자정이 다 되었습니다. 퇴근 후 늦은 시간에 선생님이 되어 아이를 지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고, 선생님께서 올려 주신 영상과 학습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다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오히려 제가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습관을 잘 들일 수 있도록 약 2주 정도 아이와 같이했고, 2주가 지나자 딸 아이가 이제는 혼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엄마가 옆에서 하나하나 관여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자기 주도 학습을 배우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에 아이가 혼자서 온라인 클래스를 했고, 지금은 혼자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거나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퇴근 후 이야기를 하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보기에는 미흡하고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아직 3학년이기에... 앞으로 공부해야 하는 날이 훨씬 더 많기에... 아이가 다 알고 지나가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본인 스스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모르는 것을 알아갈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찾아보는 과정이 장기적으로는 아이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기에 아이 앞에서 아이를 끌고 가거나 뒤에서 아이를 미는 것이 아니라 아이로부터 옆으로 살짝 떨어져서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와 같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많고, 자신의 일정/속도대로 할 수 있고, 모르는 부분은 여러 번 볼 수 있는 온라인 클래스를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온라인 클래스를 몇 달 경험해 본 지금은 등교하는 것이 더 재미있고, 좋다고 합니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재미와 흥미를 느껴야 하는 과학 과목을 온라인/줌 클래스를 통해 배우다 보니, 지루하고 어렵게 느끼기 시작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 자주 만나지 못하는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나갈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원격수업은 교원,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낯설고, 처음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학습 방법으로 최상은 아니지만 지금의 상황에 맞춰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에 따라 달라지는 방침에 맞춰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학사 일정으로 모두가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이 상황을 슬기롭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서로 대화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온라인/줌 클래스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

거나 느낀 점 그리고 두 딸이 저에게 말하는 것들을 두 딸의 담임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딸과 학교생활에 대해서 전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반 친구를 사귀기 위해 등교하는 날에는 반친구에게 말걸기미션도 합니다. 매일 꾸준히 책을 읽고,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공지 사항을 확인하고, 아이들이 관심있어 하는 비대면 대회 및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가하면서 재미있고 알차게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교원, 학생, 학부모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응원하고 도우면서, 더 나은 방법을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노력하면서 지금의 이 상황을 잘 이겨 나가기를 바랍니다.



부끄럼 많은 딸의 첫 원격수업



한류초등학교 학부모

부끄러움 많은 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8살 소녀. 김민제는 제 외동딸입니다. 총명하고 씩씩한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중성적인 이름을 지었는데, 해가 갈수록 수줍음은 더해지고 여린 마음은 겹겹이 쌓여만 가네요.

목소리 듣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마주치면 제 뒤로 숨기 일쑤입니다. 엄마에게 자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엄마는 친구를 어떻게 사귀었어?”

아마도 친구 사귀기가 힘든가 봅니다. 코로나-19로 등교를 하더라도 친구와 말을 할 수 없으니 친구 사귀기가 더 더디겠지요. 특히 민제에게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원격수업 정부 발표가 있었고, 우리 학교도 원격수업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야말로 마스크를 벗고 선생님과 반 친구 모두를 화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어쩌면 부끄러움 많은 이 아이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보고 말하는 것보다 컴퓨터의 힘을 빌리면 자신감이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요? 희망을 가져봅니다.

원격수업 첫 날에 자기소개 발표 시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제는 가이드라인대로 노트에 써 내려갔습니다.

“안녕? 친구들아. 내 이름은 김민제야. 가족은 엄마, 아빠, 나 셋이고 좋아하는 것은 책 읽는 거야. 좋아하는 책은 하늘로 간 강아지야. (책을 보여주며) 앞으로 사이 좋게 지내자. 안녕”

술술 글을 적어 나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긴장하지 않고 적어 둔 것들 다 읽을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원격수업하는 첫 날이 다가왔습니다. 부끄러움 많은 아이는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마주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내 이름은 김민제… 좋아하는 것은 책 읽기… 좋아하는 책은 하늘로 간 강아지…”

조그만 입술로 노트를 훑어보는 아이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엄마는 나가 있으라고 등을 떠미는 바람에 쫓겨 났지만, 도저히 염려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닫혀진 방문에 귀를 뚫판처럼 착 붙이고 소리를 듣기 위해 애썼습니다. 원격수업이 시작되고 우렁찬 아이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선생님의 목소리도 작게나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자기소개를 하는 자신감 있는 1학년 8반 아이들의 목소리들이 하나씩 들려왔습니다. 용기 있는 이 아이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러움도 느꼈습니다. 드디어 부끄러움 많은 아이 차례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너무 떨리고 긴장되어 귀에 땀이 찰 정도였습니다.

“.....”

그런데 적막이 흐를 뿐 아무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

어느새 들리는 선생님의 우렁차고 부드러운 목소리,

“좀 더 크게 말해볼까? 민제야”

“.....책이요”

준비한 멘트는 다 어디 가고 갑자기 책? 보아하니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질문하는 형식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이 말은 즉, 부끄러워서 준비한 자기소개를 하지 못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몸을 비비 꼬며 부끄러워하는 내 아이의 몸짓이 느껴졌습니다. 그 목소리조차 전해지지 않은 건지 선생님은 또 한번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말해볼까? 민제야”

선생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책이요”

그 짧은 한마디가 내 귓가에는 울리는데, 여전히 아이들과 선생님은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애쓰는 아이의 목소리와 몸짓에 손에 땀이 나고 갑자기 눈에 눈물이 그렇그렇 맺혔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코끝이 저려 왔습니다. 안타까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때, 선생님께서 구세주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연결 상태가 안 좋아서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책을 들어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송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알고 계십니다. 민제가 부끄러움이 많고 목소리가 작은 아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시고 친구들에게 자기소개를 마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는 하늘로 간 강아지 책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하늘로 간 강아지 책 이야기를 이어가고, 그 중 한 친구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보여주며 자랑하였습니다. 한 순간에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1시간 같았던 1분의 부끄럼 많은 우리 아이 자기소개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대견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의 호응 덕분에 민제가 부끄러움보다는 성취감을 더 느꼈을 겁니다. 원격수업이라서 이것이 가능했지요. 처음부터 칠판 앞에 나가서 자기소개를 했다면 이런 결과를 불러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친구의 귀여운 강아지도 못 보았겠지요. 언젠가는 친구들 앞에 당당히 서서 발표를 해야겠지만, 천천히 연습이 필요했던 아이입니다.

첫 원격수업을 마치고 선생님께서는 밴드에 오아시스 같은 글을 올리셨습니다. 혹시나 부끄러움이 많거나 목소리가 작은 아이들에게 마이크 헤드셋이 필요할 것 같다는 배려 깊은 글을 올리셨어요. 이 생각을 왜 진작 하지 못했을까? 바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부끄럼 많은 아이야. 언젠가는 용기를 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어쩌면 이 원격수업이 너의 자신감을 북돋아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야말로 예행연습을 할 수 있는 디딤돌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 생각해. 언제나 그랬듯이 너의 길을 응원해. 사랑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힘 “가족”



○○초등학교 학부모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전전긍긍하며 일상은 멈춘 듯하였다.

재난 영화에서처럼 모든 것이 이수라장이 되는 듯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늦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와 확진자가 늘어나고,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는 필수가 되었고, 직장인들은 실직과 재택근무, 무너지는 자영업자들, 아이들은 학교 휴업과 학원 휴관 등 모두가 처음 접하는 시국을 맞이하였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내가 병드는 것도 있지만 주변인에 피해를 주어 인생이 흔들리고, 심지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진 채 어느덧 11개월이 지났다. 우리 가족들도 마스크가 신체의 일부분이 되어, 철저한 예방수칙과 면역력을 키우며 아직은 별 탈 없다.

나는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직장인으로 주변에서 흔한 워킹맘이다. 코로나-19 심각성이 커지면서 전국 학교에서는 입학식과 개학식을 연기하였다. 그로 인해 두 아이는 온종일 집에 있어야 했고, 두 아이를 집에 두고 일하는 직장인 어머니의 애환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

일하는 동안에도 집에 있는 아이가 걱정되어 수십 번이나 전화를 걸었던 기억이 난다. 퇴근하면 어지럽혀진 집안을 정리하고, 영양보충을 위한 저녁을 준비하기 바빴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직장을 관두고 아이들과 있어야 할까 고민을 여러 번 하였다. 그러다 우리 부부는 올해 4학년이 된 큰아이를 믿고 작은 아이를 맡겨보자고 결정을 내렸다.

어쩌면 ‘아홉 살 인생’ 같은 소설책이 실현될 수도 하는 기대감을 갖고...

예상대로 큰아이 덕분에 썩썩하게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다.

원격수업 체험수기를 쓰기로 마음먹은 계기는 우리 가족 중에 가장 고생을 하는 큰아이를 칭찬해주기 위함이다. 두 아이는 4학년과 1학년이다. 아이들은 1월부터 집 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주로 시간을 보냈다.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것에 대해 아쉬움만 빼면 천진난만한 내 아이들은 휴업과 학원 휴원을 마냥 신났다.

마침내 교육부는 비대면 수업인 원격수업이라는 대안을 공지하였다. 나와 같은 학부모들, 학생들, 선생님들도 모두가 낯설었을 것이다. 4월부터 두 아이는 원격수업 시작되면서 가정학습과 병행이 되었다. 4학년 큰아이는 데스크톱 PC로 EBS 온라인클래스를, 1학년 작은아이는 TV로 EBS 교육 채널 시청으로 첫 원격수업이 있던 날에....

나는 출근하여 전화로 두 아이가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챙겨놓은 아침을 먹고 양치를 하도록 일러둔다. 오전 9시가 되기 5분 전에 다시 전화를 걸어 모두 제자리에 앉아 있는지 확인하였다. 9시 이후로 큰아이는 전화를 수시로 걸어 “엄마 안 들어가져요, 로그인이 안돼요,”

“엄마 어디로 들어가야 해요?,” “엄마 숙제를 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등등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한동안은 반복되었다. 작은 아이에게는 앉아서 조용히 수업을 듣지 않으면 TV가 감지하여 답임 선생님이 알게 된다는 선의의 거짓말을 돌려대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씨알도 먹히지 않는 말이지만.... 그때도 지금도 잘 따라와 주는 착한 작은아이다.

큰아이는 꾀가 생겨 온라인 수업을 제때 하지 않아 답임 선생님에게 한두 번 지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탑재된 수업자료를 보고 듣고 나서 학습종료를 누르지 않아 놓친 적도 있다고 한다. 걱정과는 달리 이제는 줌 줌으로 출석 체크와 간단한 과제 발표나 답안지 제출도 할 정도로 익숙해져 있다. 큰아이는 출석 체크를 잊거나 수업을 제때 듣지 않아 답임 선생님과 엄마에게 지적을 받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의젓하고 착한 큰아들이다.

작은아이는 1학년이어서 만들기 숙제가 많았다. 부리나케 퇴근해서 집에 가면 만들어져 있다. 짜증 내면서도 큰아이가 만들어 줬다고 한다. 동생이 학원 갈 시간이 되면 데려다주기도 하였다. 사다 놓은 빵이나 시리얼로 동생과 함께 점심을 해결하기도 한다. 이제는 아이들이 집에 있어도 처음에 가졌던

불안감은 덜하다.

든든하고 의젓한 큰아이 덕분이다. 직장 일로 바쁜 엄마 아빠를 대신하여 보호자 역할을 나름대로 하기 시작하였다. 한동안은 동생을 잘 돌보면 레고나 용돈 같은 보상도 잊지 않고 잘 챙겨줬으나 이제는 보상 없이 동생을 챙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면서도 원격수업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시험결과도 ‘매우 잘함’으로 도배되어 우리 부부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였다. 여전히 동생을 귀찮아하고 짜증스런 존재라고 말하지만 형으로써 동생을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작은 아이는 말문이 트였을 때부터 형을 “형아”라 부르며 따라다닌다. 형제애는 더욱더 두텁다. 두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부부는 흐뭇하다.

이번 주부터 코로나-19가 1단계로 내려가면서 큰아이는 주 3회, 작은아이는 주 4회로 등교하기 시작하였다. 큰아이는 여전히 바쁜 부모를 대신하여 작은아이를 등교시켜 주고, 데리러 가져나, 등교 날이 겹치면 후문에서 동생을 기다렸다가 함께 귀가하는 큰아들 덕분에 나 워킹맘은 오늘도 버틴다.

코로나-19로 지친 나날이지만 우리 가족은 이렇게 극복해나가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나, 우리 가족 단위는 이렇게 서로 믿고 의지하며 밝고 따뜻한 기운으로 면역 방어막을 치며 이겨내고 있다. 큰아이의 착한 성품이 거름이 되어 멋진 어른이 되길 바라며, 우리 가족이나 씩씩하게 버티는 주변인들처럼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그때가 오지 않겠나 싶다.



우리의 '코로나 뉴노멀'



예술초등학교 학부모

늦잠의 유혹을 물리치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집어 든다. 눈을 비비며 핸드폰 화면을 켜자마자 접속하는 것은 '학생건강 자가진단'을 위한 교육청 앱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발열 증상 없이 건강하길 바라면서 모두 '이상 없음'에 체크를 한다. 예상하지 못했던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거창하게 국가와 사회를 운운할 것도 없이 우리 집 일상도 완전한 'New Normal'이다. 그 전의 일상은 이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르게 굴러간다. 처음엔 당혹스러움이 밀려왔고, 그 뒤로는 화가 나고 짜증이 불쑥 일곤 했다. 그럼 에도 변화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어른인 나보다 훨씬 더 성숙하게 적응하는 중이다.

매일 같은 시간 담임 선생님이 정성껏 준비해서 올려주시는 온라인 수업에 접속하기 전, 서둘러 아침을 먹는다. 이후 곧바로 3학년 큰아이의 온라인 수업이 시작된다. 아이들이 등교한 후 나에게 주어졌던 고요하고 평화로웠던 커피 타임은 이제 아이들과 전투를 준비하는 태세전환 타임으로 바뀌었다. 온라인 수업이 시작된 후, 우리 집 거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무대가 확확 뒤바뀐다. 체육 시간이 되면 신나게 체조를 하다가, 곧바로 과학 시간이 되어 집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들을 펼쳐두는 실험실로 변하기도 한다. 그러다 곧바로 악기들이 등장하며 음악 시간으로 배경이 뒤바뀐다. 중간중간 교과서를 풀고 배움노트를 작성하는 것쯤은 이제 가뿐하게 해내곤 한다. 일주일에 한 번 유치원에 가는 동생까지 합류하면 그야말로 버라이어티한 시간으로 꾸며지기 일쑤다. 반면에 나는 집 안이 점점 어질러지는 꼴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두통이 밀려온다. 내가 원하는 우리 집은 질서의 세계이길 바라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무질서의 세계가 난무하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아이들은 무질서해 보이는 혼돈한 상태에서 본인들만의 질서를 찾고, 자신이 스스로 해나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제는 잔소리하지 않아도 스스로 교과서를 준비하고, 익숙하지 않았던 컴퓨터도 금세 능숙하게 다루면서 스스로 온라

인 학습을 해나간다. 일일이 주간학습 계획서를 보면서 숙제를 점검하지 않아도 일주일에 한 번 오프라인에서 만날 선생님과 대면 수업을 기대하며 충실하게 숙제를 하기도 한다.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아이들은 외부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워나갈 면역력을 키워나가는 것뿐 아니라, 내면의 생명력을 충실히 키워가며 한 뼘씩 자라는 중인 것이다.

내 눈엔 영락없이 구제 불능 상태인 매일의 반복 속에 끊임없이 쏟아지는 집안일과 하루 삼시 세끼 차려주는 주부의 역할도 벅찬데 거기에 온라인 학습 감독과 교사의 역할까지.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더해지는 코로나 블루 상태라 해도 조금도 이상할 것 없는 요즘이다. 그럼에도 다시 힘을 내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혼돈의 상태에도 내 아이들은 엄청난 생명력을 움트며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속히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여 오프라인 수업이 재개 되고 나의 자유시간을 되찾기를 고대하지만 막연한 기대와 실망으로 하루하루를 불평으로 보내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으리라 다짐해본다.



원격수업은 처음이지?



어람초등학교 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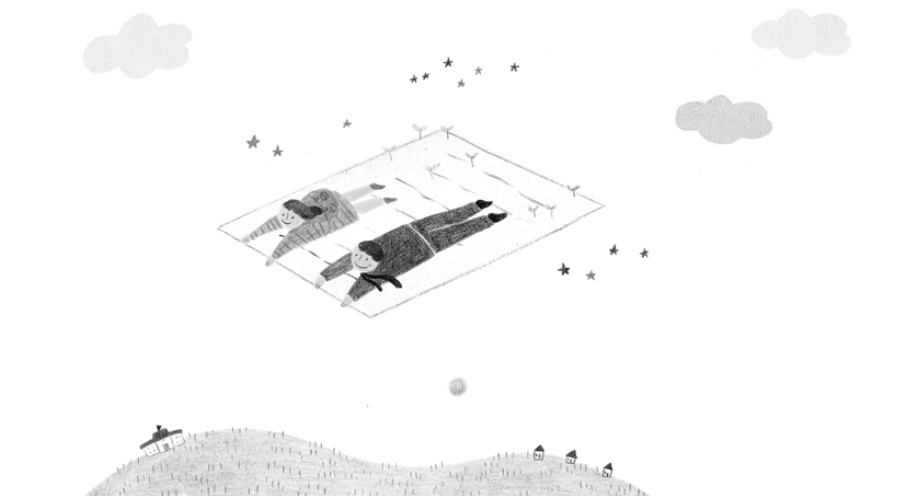
기계치인 나에게 아이의 원격수업은 그야말로 심장 박동을 더욱 요동치게 했다. 내일이면 학교에 가겠구나 하던 시간은 하루가 다르게 달력의 숫자를 잡아 먹어가고 있었고 원격수업이라는 미래 교육을 맞이하여야 한다는 두려움에 한숨만 나왔다. 나도 컴퓨터를 쓰고 있다만 고작 단순 워드에 PPT 작업 정도가 전부인데 원격수업은 새롭기만 했다. 친절하게 학교에서는 핸드폰으로 가입 방법이며 진행 순서를 알려주시기에 바쁘고 하루에도 두*세 번 선생님들께서 가입 유 무를 확인하는 문자와 전화가 왔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라는 말씀에 용기가 생기는 일도 생기고 나도 컴퓨터와 좀 더 가까워졌다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선생님들과 여러 번의 통화. 올해 중학교에 들어간 아이의 담임 선생님과 만남도 목소리가 전부였고, 4학년에 올라가는 둘째 아이의 담임 선생님과도 목소리로만 선생님에 대한 신뢰와 성향을 느낄 뿐이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그리 앞마울 수 없다. 애지중지 키우는 우리 딸의 졸업이며 입학은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하는 것으로 끝과 시작을 맞이하여야 했고 사춘기에 들어선 둘째의 톱 톱 반항적인 성향도 상담을 통해 바로 잡아가야 할 텐데.....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습관이 제 멋대로가 된 듯 걱정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다.

영망진창이 된 이 시간을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는가? 학원을 보내지 않고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선생님과의 대면 수업으로 궁금증이며 명확한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도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코로나-19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비대면이 좋고 이쪽을 선택해도 저쪽을 선택해도 답이 나올 것 같지 않더니 원격수업에 들어가면서 하나씩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았다. 첫째는 중학생이라 초반 EBS 수업과 줌 수업이 병행되면서 시간 내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다급함과 초조함이 이상 증상으로

핸드폰의 밴드가 알림을 나타낼 때마다 출결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 혼란이 있었지만 뒤늦게 시작된 초등생 둘째는 한 번 원격수업과 줌의 세계에 들어가서 해보았다고 혼란스럽지 않았다. 선생님께서는 줌 수업이 들어가기에 앞서 여유 있게 시행 일주일 전에 아이들이 접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인지 곧잘 일어나 컴퓨터에 앉아 건강 상태를 보고하고 주어진 온라인 수업과 줌 수업을 진행해 나갔다.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께서 많은 부분 학생들을 위해 시간을 소비하신다는 점이다. 원격수업을 통해 수업의 이해 정도를 알 수 없기에 아이들에게 과제를 내어주시고 일일이 한 명 한 명의 과제나 책 정리를 핸드폰을 통해 올리라 하고는 잘한 점을 찾아 칭찬을 아끼시지 않았다. 한 반에 서른 명의 아이에게 하루 두*세 가지의 과제에 일일이 답을 달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멘토의 힘을 발휘해주시는 부분에서 선생님의 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된 것 같아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큰 스승을 초등 생활에서 맞이하게 된 것 같아 기뻐다. 코로나-19는 사람들의 건강을 잃게도 했지만, 과학 기술을 앞당기는 시발점이기도 한 것 같다. 닥치면 한다더니 “줌은 또 뭐야. 쌍방향 화상 수업은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데” 걱정만 가득했던 원격수업도, 줌 수업도 이제 많은 부분 자리가 잡힌 듯싶다. 아파트에서 내려 다 보이는 학교의 운동장 전경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공차던 소리는 들리지 않으나 우리 아이들이 가상의 공간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웃고 일상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이유는 교육의 미래를 조금 일찍 더 앞당겨준 원격수업이 있어서이지 않나 싶다. 그래도 옛날처럼 2020년 1월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 아침이면 밥 먹고 학교 다녀온 일을 재잘재잘 떠들어 대던 우리 두 딸의 종달새 모습은 항상 그림다.



아이를 키우며 마주한 온라인 수업



도수초등학교 학부모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 처음 중국에서 시작되었을 때 ‘잠깐 유행하고 끝나겠지’ 하며 가볍게 생각했다. 전 세계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WHO의 팬데믹이 선언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갑작스레 지역감염이 확산 되자 보건용 마스크를 줄을 서서 구입하기 시작했고 ‘금방 끝날 상황이 아니구나. 코로나-19에서 여기도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들며 내 일상 속에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이때만 해도 ‘아이들이 단체생활을 하면 감염자가 생겼을 때 확산세가 클텐데 어떻게하나?’ 생각 정도였지 등교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변수는 생각하지 못했었다.

다행스럽게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엄격하게 지키기 시작했고 그 결과 환자 수가 조금 줄어가고 K방역 효과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에 ‘이제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또 갑작스러운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교육부에서 등교 연기가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다는 정책이 정해지고 그 지침들이 전달되기 시작했다.

평범한 일상은 무너졌고 학교 현장은 급작스럽게 온라인 수업을 준비해야 했다. 내 아이가 다니는 도수초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기 몇 주 전부터 각 학년별로 수업 콘텐츠 준비하며, 온라인 수업에 학생들이 참여 가능한지, 수업환경은 조성되어 있는지 전화, 알리미 등을 통해 안내하고 확인하며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셨다. 각 반 밴드를 개설해서 접속여부도 확인하고 서버로 불안한 부분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며 준비하셨다. 주위 다른 학교들과 비교하면 정말 빠르게 조치하고 안내했지만 실제 가정에서는 온라인 수업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안내를 해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도 도수초는 온라인 수업 정식 시작 2주 전부터 수업 계획안을 안내해 아이들이 2주 동안 수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 구글폼 활용, 온라인 콘텐츠 수업 등 여러 형태의 온라인 테스트 수업을 시작했다.

2주 테스트기간 동안, 실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한반에서 반 정도 인원. 아이들은 등교를

못한 공백기 동안 생활 리듬이 깨져있어 수업시간에 맞춰 일어나 모든 과목 수업을 듣는 것을 힘들어했고 잦은 서버 다운으로 실시간 수업 진행은 현실과 달랐다. 아이들 역시 온라인 수업은 처음이라 그냥 콘텐츠를 보기만 하면 되는것인지, 과제는 어디다 내는 것인지 수업 중간 중간 선생님을 찾고, 엄마 아빠를 찾으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거예요?’라는 질문이 반복되었다.

본격적인 온라인 수업 정식 시작일. 이 때부터 가정에서는 아이와의 학습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함이 맞을 것 같다. 테스트 기간을 거쳤지만 온라인수업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더군다나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 수는 더 줄어갔다.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비대면 상황이라 상황 해결은 쉽지 않았고 거기다 가정에서는 당장 아이는 어떻게 가르치며, 일하는 동안 누가 돌보며 아이들 식사는 어찌 해결하느냐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내가 20여 년 전 전공시간에 인공지능 수업을 들을 때만 해도 실험 중인 프로젝트라 생각했지 아직 이른 이야기라 여겼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며 내 아이와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나마 나는 이론적으로 알고 교육도 받았었기에 상황이 나은 편이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진짜 이렇게 하는게 맞냐?’, ‘그냥 등교를 시키자’, ‘아이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오히려 전자기기 중독이 걱정 된다.’ ‘엄마 숙제냐?’, ‘수업시간 내에 모든 콘텐츠를 보고 과제를 수행하는게 가능하냐?’, ‘아이가 아침 9시에 시작했는데 오후 5시가 넘도록 끝나지 않는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들려왔다.

온라인 수업이 회차를 거듭하면서 현장 상황도 개선되었고 선생님들도 여러 방향으로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시고, 학부모들도 학교에 의견서를 만들어 수업에 반영해 달라 요청을 드리면 모두가 아이들의 배움에 도움이 되도록 서로 협력해나갔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 상황이 좀 나아지며 등교와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기 시작했고 학습이 어렵거나 선생님들의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기초학습과 학습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셨다. 적극적인 선생님들 덕분에 6학년 아이들은 온라인 수학여행을 기획했고 먹방 쿡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현실 수학여행을 대신했다. 온라인 수업 경험을 새로운 아이디어와 연결한 멋진 아이들!!

지금은 1-2학년 학생들은 주 4일, 3-6학년 학생들은 주 3일 등교하며 온라인 수업에서 생길 수 있는 학습결손을 등교수업으로 최대한 보완하며 즐거운 배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으로 등교를 못하는 일이 다시 생길 수도 있기에 미리 학교에서는 온라인 교과서를 구입해 선생님들은 수업 콘텐츠를 풍성하게 만들고 더 나은 교육을 실현하시려 하고 있다. 학부모로서 참 감사한 일이다.

모든 새로운 시도에는 변수가 많고 생각과 다른 부분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다. 처음 경험하는 온라인 수업, 학습격차가 벌어지고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지만 지금 이 시기를 겪은 아이들에게는 이 경험들이 앞으로 아이들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돋움의 되기를 바란다.

다섯둥이의 코로나-19 적응기



○○초등학교 학부모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뚜뚜뚜 뚜뚜루 루뚜 뚜뚜뚜 뚜뚜뚜(나팔소리)~’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 하니~’ 우리 다섯 동이가 맞춰 놓은 스마트폰 알람 소리가 오전 8시를 알리며 동시다발 적으로 울리기 시작한다. 같은 음만 몇 회를 반복하며 울어대는 알람 소리에 오늘도 어김없이 나홀로 잠에서 깬다. 설마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알람을 맞춰 놓은 것은 아니었겠지? 밤나무에 밤송이 떨어내듯 아이들을 흔들어 깨우고 화장실까지 이동시키는 것이 나의 하루 시작이다. 아이들은 눈을 감은 채 화장실 벽에 기대서서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이를 닦으며 애써 잠을 깨려 노력한다. 각자 나름대로 단정하게 매무새를 가다듬고 책상에 앉은 아이들은 오늘의 시간표를 보며 수업 준비를 시작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우리 집 아침 풍경이다.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거푸 연기되면서 우왕 좌왕 했던 학기 초 모습도 이제는 비대면 수업(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많이 안정되고 정착이 되어가는 듯하다. 기계 조작능력이 그리 능숙하지 못했던 우리 아이들도 ZOOM(온라인 수업)과 위두랑 환경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하며 수업에 집중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온라인 수업)에 잘 적응하기 위해 아이들과 나는 대면 수업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조회시간, 수업시간, 점심시간, 종례시간을 준수하기로 규칙을 정하고 수업에 임하기로 약속했다.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네 명의 우리 아이들은 나란히 책상에 앉아 오전 9시 출석 체크를 시작으로 점심시간, 종례시간까지 온라인 수업이 종료되고 과제 제출까지 되어야 방에서 나올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점심시간(50분)과 쉬는 시간(5분)도 준수했다. 네 명의 아이들 어깨너머로 보이는 노트북의 영상은 수업 중이신 선생님과 반 친구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 신기하고 반갑게 느껴졌다. 이제는

어떤 과목 선생님이신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중 누구의 반 친구의 모습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엄마인 나에게도 온라인 수업이 점점 익숙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영상으로 만나는 선생님과 친구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질문과 답변이 오가며 서로에게 집중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각 교과별로 수업 중에 선생님께서 내어 주시는 과제도 열심히 준비해서 제출했다. 선생님께서 올려 주시는 칭찬과 격려의 댓글이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다. 오랜 시간 책상에 착석하여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 고민하고 해결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엄마로서 너무 대견스럽고 고맙게 느껴졌다. 이제는 어른인 나보다 컴퓨터도 능숙하게 다룰 줄 알고 정보수집과 영상편집 등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것 같았다.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집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우리 아이들의 체중이 평균 10kg 정도 늘었다. 체육 선생님께서도 코로나-19로 집 안에서만 지내고 있을 학생들이 염려스러우셨는지 펌프 댄스 영상제작 과제를 내어 주셨다. 네 명의 아이들이 각기 다른 음악을 선곡하고 펌프 노트를 제작하여 직접 재연하는 영상을 촬영했다. 아이들은 본인이 직접 제작한 펌프 영상을 완벽하게 재연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음악에 맞춰 댄스 밖에 없었다. 음악과 발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땀을 뻘뻘 흘리며 연습한 결과, 네 명의 아이들 모두 만족스러운 영상을 얻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중감량의 효과는 없었지만 나만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학기 초 시스템 불안정으로 온라인 수업에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교육부의 신속한 대처로 점점 안정화 되었고 만족도 높은 교육문화가 형성된 것 같다.

코로나-19가 한풀 꺾이는 듯싶더니 산발적 집단감염으로 다시 재 확산 되면서 한 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이제 우리 일상에 깊게 자리하여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가장 기본적인 수칙만으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 이겨냅시다. 건강한 대한민국~ 화이팅!!!”

(중등)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 코로나-19...



부천일신중학교 학부모

교복을 맞춰 입고 나름대로의 맵시를 뽐내보며 약간의 긴장감과 설렘으로 중학교 입학を 기다리고 있던 아이.

올 초 들이 닥친 코로나-19의 여파가 이렇게까지 장기화 될 줄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을 것 같다.

입학이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이 시작 되었다.

입학식은 이미 취소 되었고, 온라인 이라는 생소한 시스템의 개학이라 부모인 나는 물론 아이도 조심스럽게 온라인 개학에 참여하게 되었다.

개학일이 마침 2020년 4월 16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잊지 못할 7년 전의 일을 떠오르며 온라인 개학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감사함에 컴퓨터를 켜다.

“엄마 프린터기 연결이 왜 안되어 있어?”

“엄마 이거 손으로 다 써야 하는데 그림도 다 그려야 해?”

엄마인 나도 맨붕 이다. 먼저 잉크부터 사서 부랴부랴 프린터기에 연결하니 손으로 그림은 안 그려서 편하다.

처음에는 쌍방향 수업이 어려웠던 터라 일방의 수업만 가능하였다. 그러다 보니 이해 가지 못하는 부분은 오롯이 엄마의 몫이다. 오랜만에 중학교 교과서를 펼쳐 공부하며 아이를 가르치고 수학수업은

아이와 함께 들어야만 문제 풀이가 용이했다.

아이 담임 선생님께 문자가 왔다 숙제 제출을 안 하였다는 연락이다. 다시 확인해 보니 숙제는 했는데 완료 버튼을 꼭 눌러야 했다.

외동인 아이는 수업에 도움을 줄 형제 자매가 없기에 오롯이 엄마의 몫이다.

사회과목은 필기를 해야 했다. 초등학교 때도 필기다운 필기를 해본 경험이 없었고 모두 스크린이나 프린터물에 의한 자료집이 전부였는데 처음 필기 하는 아이의 공책은 가관 이였다. 필기 쓰는 요령이 없어서 큰괄호, 중간괄호, 소괄호안 숫자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꼬적꼬적 적어냈다. 기본적인 필기 요령과 각 숫자의 의미를 설명하고 필기가 잘 되었는지 검사를 해야 했다.

수학 학원을 다니고 있지만 학교 수학 진도를 따라가기가 역부족이다. 수리적 사고가 약한 아이 이기에 무리한 선행은 하지 않아서 일까 이차방정식에서 막힌다. 아~~ 나 혼자 문제 푸는 것과 아이를 가르치는 건 다른 것 같다.. 몇 번을 싸우고 다그치고.

수학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이 빠지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다 그렇지만 내가 직장 다니는 엄마가 아니기에 감사한 일 이라 나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음 수학 진도에 맞춰 먼저 공부를 해야 했다. 다음 시간에는 싸우지 않고 잘 가르쳐야 할 텐데... 다짐 해 본다.

영어시간은 4학년때부터 보낸 영어학원 덕에 무리 없이 지나간다.
체육시간은 그날의 동영상을 보고 셀프 동영상을 찍어 제출해야 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하고 어려워 하더니 시간이 지나니 그 것 또한 수월하게 잘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5월이 지나고 드디어 6월 12일 하복을 입고 처음으로 학교에 갔다.

전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들떠 있는 아이를 보며 웬지 씁쓸하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상황, 단 하루 등교하고 또 다시 2주 후에 등교인데도 들떠있는 아이의 상황. 어쩌면 기성 세대인 어른들이 무책임하게 환경을 사용했던 잘못이 바이러스를 양산 한 건 아닌지 미안한 생각이 든다.

짧은 여름방학 후 2학기에 접어들며 원활한 쌍방향 수업이 이뤄진다.

Zoom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생소하면서도 이런 환경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타국에 있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나라 학생들 처럼 원활한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한다. 수업의 질 또한 학비에 비해 형편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왠지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진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좀 자랑스럽다.

처음 접하는 코로나-19의 창궐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코로나-19 대처와 한국의 대처를 비교하며 지금껏 그들의 우월성만을 강조하며 습득한 여러 경로의 지식이 거짓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국의 정서는 아프고 배고픈 사람은 외면하지 않고 나라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해쳐 나가는 정이라는 감정이 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코로나-19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한국에 있다는 것이 너무 다행이고 우리 아이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혹자는 지구가 멸망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 지구가 멸망하는 걸까?

무분별하게 환경을 사용한 인간이 멸종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도 내 안의 물음표를 남겨 둔다.



그 날



반송중학교 학부모

세상의 온갖 잎사귀들은
저리도 행복한데
한 칸의 방안 어린아이는
그리도 지루 하네

울적함을 잊을 만큼 밝은 바람도 불고
화려함을 자랑하는 자연은 무궁한데
컴퓨터와 씨름하는 밝은 아이는 울고
하마처럼 하품하는 그 맘을 어찌할까

자유로운 낙엽 친구삼아 노닐어라.
먼 길가는 냇물 이웃삼아 거닐어라.
내 맘 같지 않아 이리도 슬프구나!

믿음직한 학교 친구삼아 다니어라.
맛깔 나는 급식 이웃삼아 맛보아라.
내 맘

포스트 코로나를 기다리며



고림중학교 학부모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불과 몇 달 전 우리 삶을 완전히 정복했다. 마스크를 보고 ‘내 일이 아니다’ 또는 ‘나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전 세계의 일이 되고 말았다. 바이러스에 전염되어 늘어만 가는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시대 상황이라 혼란스럽고, 당황의 연속들이다. 하지만 길들여지는 것에 익숙한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당연하게 누리던 일이 당연하지 않아졌음에도 빨리 적응하고, 인식의 전환까지 되어 가고 있다. 올해 2월 말부터 진행된 일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삶의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어 질서를 찾고 있다.

카뮈의 페스트에서 언급된 ‘다른 이에게 신뢰감을 준다’는 마스크는 이제 누구든 장착(?)하지 않으면 질타를 떠나 벌금까지 범으로 정하였다. 만남보다는 거리 두기를 모임보다는 집에 머무르기를 당부하고,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전 국가적 아니, 전 세계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고, 부모들은 일터에서 집으로 자의든, 타의든 상황에 맞게 재택근무를 권유받고 심지어 휴직을 하거나 직장을 잃기도 하였다.

가족의 해체나 대화의 부제 등 현대 사회의 정서를 지적하던 문제들보다는, 가족 간 장시간 대면(?)의 스트레스, 한 공간에서의 부부갈등 등이 화두에 오른다. 꼭 가야 했을 장례식이나 부모님 장수를 기원하는 칠순, 팔순 가족 모임 등도 심리적 갈등과 제재 속에서 갈팡질팡한다. 팔 남매나 되는 우리 집 안도 올해 부모님의 제사나 생신 모임, 추석까지 축소되어, 절제 속에서 고심하며 진행되었다. 고전에서 전염병이 사회를 덮었을 때 ‘인간들, 공포와 반항을 내포한 이별과 귀양살이가 시작되었다’라고 한 것이 현실에서 느껴져 불안의 연속이었다.

경제적 침체, 심리적 위축과 불안 등 ‘코로나 블루’ 속에서도 긍정의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강제적인 격리 속에서 온 가족이 함께 집에 있을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가족들과의 식사, 대화가 잦아지고, 온라인 수업을 통한 아이 학습 들여다보기, 건물 안으로 쇼핑가기 보다는 야외로의 산책, 지방의 친척과 만나지 못함을 전하는 애절한 안부전화들..... 주식, 부식비가 많이 들지만, 그동안 워킹 맘으로 해주지 못했던 집밥과 집안일을 가족이 함께 공유하며, 삶의 반성과 기쁨이 재발견이 되기도 하였다. 평소 아침, 저녁으로만 대하던 아이들이었는데, 온라인 수업을 같이 점검하면서 학습 상황이나 과제 등도 볼 수 있어서 관심 있는 부모가 되기도 했다.

특히 중1 둘째 아이의 학급 임원 온라인 선거는 미국의 대선보다 흥미로웠다. 각자 공약을 준비한 5명 후보의 동영상 보고 온라인 투표를 하여 정해진 날 발표하는 모습은 정보화시대의 또 다른 발전이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었다. 3월부터 실시된 온라인 수업과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원격수업에 적응도 있었으나, 우리나라만큼 빠르게 대처하고 준비된 학습기반이 갖추어진 나라는 드물 것이다. 중학생인 아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줄넘기를 하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올린 동영상 등을 수업 과제로 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고 기특하였다. 아이의 원격수업 참여를 지켜보면서, 학교에 가지 못한 불안을 조금이나마 안심하며 위로받을 수 있었다.

세계 선진국들의 방역 실패에도 한국의 차별하면서도 침착한 대응은 우리 아이들에게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며 그 자체가 교육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민족 자체가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어온 터라 악조건에 놀랍도록 빠르게 적응하는 본능을 지니게 되었다고 들었다. 오죽하면 ‘국난 극복이 특기인 나라’라는 말까지 한다고 한다. 각자의 사고방식을 우선시하고 자신이 잘났음에 큰 소리치는 민족이지만, 나라의 힘든 일 앞에 개인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로 정부 방침에 잘 따라주는 한국인의 습성 덕분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 같다.

어느 지점이 코로나-19의 변곡점인지는 알 수 없다. 지금도 확진자 수는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다. 그러나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않고 포스트코로나-19를 바라보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매일 자가 진단을 하고, 정부 방역 정책에 주목하며, 거리 두기, 손 소독과 마스크 생활화하기 등을 잘 따른다면 차츰차츰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규칙을 지키고 나누는 삶을 조용히 따르고 실천할 때, 우리의 일상은 ‘포스트 코로나-19’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비산중학교 학부모

상상도 못한, 아직 까지도 진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습격.. 영화에서나 다루어지는 일이 메르스 뒤를 이었다.

지독한 녀석이다. 끈질긴 녀석이다.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든 이 녀석은 현재 우릴 상대로 즐기고 있다. 재밌냐?? ㄸ~~~~#@%&&#@@% ㄸ! 온갖 욕설이 쏟아진다. 이래서 오래사나 이녀석이..

평화롭던 일상은 그 녀석으로 인해 엉망이 되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필수, 위생과 청결 유지, 재택근무 등 모든 게 불편해지고 달라지며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 아! 넌 뭘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

반면 이로 인해 온라인상업 인터넷을 이용한 시스템들의 변화가 있었지. 페이스 톡도 잘 안하는데 평소 말로만 듣던 '화상회의' 줌(zoom)을 통해 우리 아이가 반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 아이를 통해 직접 내 눈으로 보게 되니 피부로 와 닿았다.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우리 아이의 담임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지 궁금했다. 조레, 종레 도중 나는 옆에서 가자미눈을 하고 화면을 보았는데 여학생들은 우리 딸을 비롯하여 거의 다수가 얼굴 공개를 하지 않았다. 처음엔 애가 자존감이 낮은가? 왜 자신이 없는 거지? 라고 생각했지만 한 참 예민할 나이인데.. 금방 또 이해가 갔다.

아미인 우리 딸은 뒷배경으로 수 십번 떨어져 겨우 벽에 붙어있는 방탄소년단을 등에 업고 앞머리 대마왕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앞머리로 화면을 채웠다. 선생님들도 일이 갑자기 많아져 많이 힘드실 텐데 화면 속 담임 선생님은 코로나-19에 주의할 점 등을 알려주시며 살뜰히 아이들을 챙기셨다.

1학기에 조례, 종례, 동영상링크와 과제제출을 하다가 2학기에 본격적으로 실시가 쌍방향 화상 수업

을 하였다. 반 친구들과 선생님을 직접 만날 순 없지만 이렇게라도 만나고 수업을 할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으리라.

과제제출만 하는 시기엔 우리 딸 생활이 엉망이었다. 유튜브 시청과 게임을 하다 늦게 잠들고 늦게 일어나기 일쑤였다. 밖에 나가 놀 수도 없으니 텅굴텅굴 우리 딸은 집에서 스스로 공이 되어버렸다.

교복도 맞추어놓고 진열만 하고 원격수업 땐 우리 딸 앞머리만 보이기 때문에 머리도 앞머리만 감고 잠옷을 입는다.

쏟아지는 과제와 조레, 종레, 실시간 수업, 점심시간을 알아서 척척! 시계를 봐가며 자신의 수업을 챙기고 위두랑이며 줌이며 척 척 척! 기계치가 아니라 다행이었다. 딸은 척척 잘하는데 엄마인 내가 뼈적됐다.

나의 게으름에 아침과 점심 식사가 늦어져 수업을 들으며 밥을 먹는 일도 있었다. 수업에 집중하지 못 할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밥 때가 늦었다고 우리 딸 짜증 낼 만도 한데 먹으면서 수업을 들으면 집중이 더 잘된다며....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 후로 부지런을 떨며 끼니를 챙겨주고 점심시간 전 수업이 일찍 끝나면 딸과 같이 요리하여 점심을 함께 만들기도 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라 2주씩 등교수업을 하고 있다. 등하교하며 걸으니 살을 좀 덜어낼 수 있겠지?

원격수업으로 인해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져 아이와 함께 요리도 해보고 우리 아이가 기계치가 아니라는 것, 스스로 수업도 챙기고 할 수 있다는 것, 아이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게 되었다.

하연아~ 이 엄마는 우리 딸이 참 기특하구나^^ 종종 바깥 일을 하던 엄마가 이 시국에 하연이와 같이 있을 수 있어 참 감사하다.

이제 원격수업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것 같다. 처음엔 선생님도 학생들도 우왕좌왕이었지만 지금은 아이 방문 틈으로 선생님과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새어 나온다. 원격수업은 언제든 가능하고 인터넷 망도 더욱더 튼튼하게 개선하여 학생들의 학습 위치나 분석도 세세히, 선생님과 원격상담까지도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네 이놈! 코로나-19! 어서 지구상에서 사라져라!!

코로나-19로 인해 일찍 맞이하게 된 내 학창 시절 꿈꿔보았던 온라인 수업! 학부모로서의 나의 생각과 반성!



명륜여자중학교 학부모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까지 흔히 말하는 맨붕이 제대로 온 처음 접해보는 온라인 수업!

이로 인해 학교를 갈수 없는 아이들에겐 그래도 어찌되었건 배울 수 있는 기회이자 프로그램이 되었지만, 부작용이 점점 늘어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한 부모, 조부모, 맞벌이 가정에선 더더욱 코로나-19로 인해 맨붕이 온 것과 동시에 온라인 수업이라는 또 다른 맨붕이 온 것이니 반갑지만은 않았을 터, 그중에서도 난 맞벌이 가정의 워킹 맘이다. 바쁜 아침이 더더욱 바쁘게 되어 버렸다. 아이들이 나태해지는 것이 싫어 늘 나 일어나는 시간에 기상을 시킨다. 밥을 먹인다. 양치도 시킨다. 나의 상전들은 “중딩 1학년 딸과 초딩 6학년 아들”이다. 요즘은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이라는 말보단 엄마들 사이에서도 중딩과 초딩으로 불린다고 하니 나도 한번 그리 불러본다. 아무튼 난 늘 아이들을 학교 가는 것과 같은 일상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 중인 맘이다. 학교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했던 아이들이 점점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진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엄마의 본능인 것 같다.

내 일상 이야기는 그만 접고 이제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한자 적어 볼까 한다.

처음 온라인 수업을 접할시 며칠은 책상 앞에 앉아 종일 신기한 눈빛을 하고 “잘 듣는 척” 경청 아닌 가짜경청이라는 것을 하고 숙제도 얼마나 열심히들 하시는지 “공부 안하던” “싫어하던” 아이들의 그런 모습에 웬지 모를 대견함까지 느껴졌던 것 같다. 물론 난 직접 그 모습을 보진 못한다. 앞서 이야기 했던바와 같이 난 워킹 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이들을 원격으로 케어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빛과

태도를 가끔 볼 수 있다, 그것이 진실이던 거짓이던 간에 일단은 믿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원격케어라는 것은 “ㅎㅎ” 영상통화이다! 아이들의 표정까지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어서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아무튼 처음 며칠은 아주 “잘하는 척” “열심히 하는 척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하루는 책상 앞에 앉아 핸드폰을 들고서는 뭘 그리 열심히 했는지 나의 전화를 무시한다.. 게임하는 중간에는 전화도 안 되게 설정 해놓는 기능도 있나보다 초등학생 아들이 알려준 누나의 일상이다. 또 그 누나도 동생의 행동을 가끔 고자질 하곤 한다. 그래서 안다. 아이들이 어느 순간 수업이 아닌 핸드폰과 컴퓨터 모니터에 집중 되어 있다는 것을...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컴퓨터 모니터에 한쪽엔 온라인수업을 열어 놓고 한쪽엔 게임을 열고 열심히 눈과 귀와 손은 모두 콩밭에 가 있다는 것을 나만이 아는 것은 아닐 터 대한민국 엄마라면 한번쯤은 본 광경일지 모른다 생각을 해본다. 그래도 난 혼내거나 화를 내거나 하지 못한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하게 된다. 이유는 미안해서 이다 옆에서 계속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간식하나라도 챙겨주거나 점심을 차려 줄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돌이 점심을 차려내어 간단히 때우게 하는 게 일상이 되어 버렸다. 어느 날 라면형제 이야기를 뉴스에서 접하게 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이들을 울린 사건이 아닌가 싶다, 코로나-19가 시대가 아니었다면, 온라인 수업을 해야만 하는 현실이 아니었다면, 그 아이들은 무서움과 두려움에서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글을 쓰며 눈물을 흘리고, 한참 친구들과 뛰어놀 시절을 이렇게 안타까운 시간만 보내야만 하는 것에 속상한 마음을 꺾꺾 쓰러 내려 본다.

얼마 전 10월 19일 경계수준이 1단계가 되어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도 일부만이다. 중학교 1학년인 딸은 19일부터 23일까지고, 초등학생 6학년인 아들은 19일부터 21일까지다. 바로 내가 글을 쓰고 있는 오늘까지다 내일부터는 또 아들은 온라인 수업을 해야만 한다. 그럼 또 걱정을 해야 한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마음이 복잡해진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익숙해져야 하는데 그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다. 일터에 나와서도 잘하고 있나... 밥은 잘 먹었나.. 어디 아프진 않은가.. 다치진 않았나..

밖도 아니고 집에 있는 아이가 늘 걱정이 된다. 학교에선 눈과 귀가 많지만 집에 있는 아이들은 눈과 귀가 없으니까. 급할 때 봐줄 사람이 없는 워킹 맘들의 아이들은 더더욱 걱정이 될 것이다. 난 시부모님께서 가까운 거리에 사시기 때문에 종종 아이들은 봐주시곤 하여, 걱정되는 마음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물론, 나도 학창시절엔 학교에 가기 싫어 피병을 부리거나 “땡땡이”를 친 적도 있었다. 대체 학교는 왜 있는 거야라는

영똥한 생각도 한 적도 있는 것 같다. 지금 아이들도 그런 것 같다. 딸아이가 가끔 내가 하는 소리에 장단을 맞춘다 “라떼는 말이야” 그랬었어 하면 딸아이가 “헉” 우리도 그런데? 하고 말이다. 다들 학생이 되면 똑같아 지는 것 같다 “ㅎㅎ”아무튼 딸아子和 대화를 하면 반성을 하게 된다. 나 어릴 적 어른들 말에 말대꾸를 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들이 말이다. 내가 지금 똑같은 말투로 똑같은 언어를 쓰며 똑같은 잔소리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ㅎㅎ”요즘 반성을 참 많이 한다.

온라인 수업이 무조건 100%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장점도 물론 있는 것 같다.

매일 친구들과 게임과 카카오톡과 문자를 하는 아이들이 나와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고 톡을 주고받고 영상통화를 자주 하니 저절로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장점도 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나로 써는 좋은 점이다 늘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은 나지만 어느 순간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이들에겐 엄마보다 친구들이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난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아이들이 학교와 놀이터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또 다시 온라인 수업 시대가 올 것이니 지금 이 순간을 몸과 마음에 익히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때가 되면 지금처럼 서툴지 않고 더 잘 해낼 수 있을 테니까 “Enjoy if you can't avoid it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미국의 심장 전문 의사 “로버트 엘리엇” 저서 스트레스에서 건강으로 -마음의 짐을 털고 건강한 삶을 사는 법>에서 나온 명언이다. 우리 모두가 이 상황을 겁먹거나 두려워하는 것보다 즐기면서 지킬 것은 꼭 지킨다면 어떠한 전염병도 이겨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나의 온라인이 되버린 일상 이야기를 마친다.



우리 이쁜딸 민지야



부흥중학교 학부모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알록달록. 빨강고 노오란 단풍과 파아란 하늘이 어우러져 우리나라 어딜 가든 아름다운 가을이다. 그런데 사나흘 전 일간지 일면에 불타는 듯 빨간 단풍 사진과 함께

"붉은 가을아. 올해는 떨어져 있자꾸나"
라는 글이 실렸더구나

들로 산으로 고운 단풍 보러 다니던 지난해 이맘때였다면 저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을까?

지난 겨울즈음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이웃인 주변 국가는 물론 사람이 사는 땅이라면 전 세계 어디나 지금껏 겪어 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다.

믿기 힘든 일 중 가장 으뜸은 우리 딸이 신나고 재미나게 친구들과 함께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공간.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바로 그곳.

학교가 멈췄다는 것이야

무섭게 확산되던 코로나-19로 개학이 무기한 연기되고 겨울방학이 길어진다는 공지에 처음엔 철없는 우리 딸 학교 안 가니 신난다고 좋아라 했었지. 그러다 학교도 학원도 멈추고 외출도 어려워지니 친구들이 보고 싶다며 학교 다니고 싶다고 투덜투덜.

언제까지 개학을 미룰 수 없으니 원격수업이 시작되었고
원격수업이란게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천차만별
갑작스런 상황에 학교도 선생님도 애들도 우왕좌왕 별별 해프닝이 많기도 했어. 다행인건 어려울 때일수록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것 중 하나인 적응력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거야

시간이 지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등교 없는 원격수업이 점차 안정화 되가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지만 적응되고 안정화 된다 해도 한계가 있는 수업이 있지 특히 체육.

주로 혼자 보다는 함께 해야 하는 과목이니 만큼 원격수업하려니 정말 힘든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 양말을 자르고 쌀을 저울에 달아 같은 무게로 굴만한 공을 세개나 만들길래 뭐하는건가 싶었어

원격수업 중인 방에서 쿵.쿵.쿵. 팡 와르르~~ 아야! 낫선 소리가 들리는데 수업 중이니 들어갈 수도 없고 뭘 하는 건지 몹시 궁금하더라. 나중에 체육 시간에 저글링을 한다는 걸 알게 되고 마술할 때 그 저글링? 하니 넌 수행으로 열다섯개 이상해야 하는데 한 개도 안 된다며 울상이었어. 처음엔 체육 시간에 저글링을? 의아했는데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신체활동 중 저글링을 선택하기까지 선생님들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을까 싶더라

여유 시간 틈틈이 아무리 연습해도 한 개도 안 된다고 울먹이며 포기할까 라고 묻는 너에게 엄마가 해 줄 수 있는 말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습하면 될거라는 너무나 교과서적인 말밖에 할수 없어 미안했거든

그런데 하루하루 시간을 투자해 연습하니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 절대로 안될 거 같더니 한 개가 되고 두개 세개 네개...

수행 날엔 일곱 개까지 성공하는 널 보면서 얼마나 대견했는지 몰라
비록 열 다섯개 반인 일곱 개지만 여느 일곱 개랑은 너무 다르단 걸 엄마는 지켜봤으니까 대견할 밖에

만약 한 개도 안될 때 힘들다고 안 된다고 포기했다면 시간을 투자해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 하나하나 조금씩 나아진다는 걸 우리 딸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

아닐거야

포기하지 않고 꼭 참고 힘들게 연습해 얻은 일곱 개라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거란다

걱정 많은 원격수업 하면서도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널 보며 기특하고 고맙고 불안한 엄마 마음이
한결 안정되었어.

민지야~~~

이제 조금씩 등교일수가 늘어나니 선생님도 친구들도 만날 기회가 많아져 다행이다. 곧 등교가 불안
하고 이상하지 않은 일상으로 돌아가 원격수업 에피소드와 해프닝 이야기하며 웃는 날이 오기를 간절
히 바라 본다.

그날이 어여 오기를...
오늘도 우리 딸 파이팅!!!



학부모 원격수업 체험 후기



헌산중학교 학부모

당연한 것들이 그리운 추억이 되어버렸네.

코로나-19로 학교에 가는 일상이 그리운 한때가 되어버리고 마스크 없이 생활했던 일상이 이제 마스크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줌으로 하는 아이들 수업이나, 학교 학부모회의 회의도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하는 온라인 시대.

먼 미래라 여겨지고 생각했던 일들이 코로나-19로 좀 더 빠르게 현재에 일어나면서 이제는 인공지능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요즘 아이들이 원격수업을 하면서 원격수업이 학교 수업과 같은 것이라고 인지하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고, 카메라가 익숙지 않은 쌍방향 수업 속에서 아이들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 후 카메라를 꺼놓거나, 카메라를 천장을 바라보게 한 후 수업에 참여하였다.

모두에게 처음 접하는 원격수업, 이로 인해 생겨나는 작은 일들을 학부모와 학교 그리고 학생들과 소통을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가면서 원격수업은 자리를 잡아갔다.

아이가 다니는 중학교 선생님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쌍방향 수업을 해주신 부분은 시간이 흘러 지금 생각해보면 이 부분의 있어서 감사함을 느낀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학교 운동장은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고 아이들은 원격수업에 익숙하게 되어가면서 학교에 가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씩 줄어들 때쯤 학교에 다니게 된 10월!!!

당연한 것들을 할 수 없는 현재이지만, 학교에 나가 거리두기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친구들, 선생님들

과 함께 할 수 있는 지금이 학부모로서 감사할 뿐이다.

2020학년도 많은 부분을 놓치고, 못하고 넘어가는 해이지만, 우리들이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당연하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바뀌어버렸지만, 이제는 머지않아 다가올 인공지능 등 온라인 수업들을 익숙하게 여기고 이것에 잘 적응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2020년도는 선생님들과 대면보단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처음 접하는 낯선 기계 오작동도 경험해보고 새로운 기술들도 습득하게 된 부분은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의 한 부분이지만 다가올 미래를 조금은 일찍 배울 수 있음에는 감사함을 느낀다.

코로나-19는 우리들의 일상을 바꿔놓았지만, 아이들, 선생님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게 해주었고,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도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배울 수 있게 해준 것 같다.

끝으로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설고 처음 경험한 원격수업, 온라인 화상회의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 학부모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주신 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극한직업



하남중학교 학부모

오늘도 어김없이 선생님은 출석을 부르시고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들리는지, 화면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하신다. 카메라가 안 켜지는 학생, 마이크가 안 되는 학생, 갑자기 인터넷 접속이 느려지는 학생.....30명의 아이에게 30개의 상황이 펼쳐지는데도 선생님은 능수능란하게 대응하신다. 마치 전쟁터의 노장(老將)처럼! 어쩌면 코로나-19로 가장 큰 변화가 생긴 직업군에 선생님이 제일 먼저 거론될 지도 모르겠다. 생전 처음 아이들과 이런 수업을 하시게 되다니.....

겨우겨우 출석 확인이 끝나고 그날 수업이 시작된다. 조금 설명이 진행되자 아이들의 반응이 소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선생님께서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하신 듯 돌아가면서 아이들에게 질문하시고 수업 참여를 유도하지만 쉽지 않다. 그러다 갑자기 사라지는 학생이 발생하고 선생님은 목 놓아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 등산하신 것도 아닌데 대답 없는 그 아이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신다. 나도 덩달아 얼른 그 아이의 집을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싶어진다. 아이들은 서로 단체 카톡으로 친구를 찾아 헤맨다. 빨리 나타나 주라... 모두 한 마음이 된다. 그리고 이내 아이는 당당한 이유를 들고 유유히 등장한다. 우리 모두 놀란 마음을 가라앉힌다. 어느덧 수업 종이가 울리고 1교시가 끝났다. 아직 아이들에겐 6교시가 남았고, 선생님에겐 줌 수업의 끝은 보이지가 않는다.

가끔 거실에서 줌 수업을 듣게 되면 역시 선생님은 ‘극한직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우리의 극한직업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은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영화 ‘극한직업’처럼 천만 관객을 맞이하셨다. 전국 초등 274만 7,219명, 중등 129만 4,559명, 고등 141만 1,027명의 관객을 맞아 고군분투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뭐라 감사의 마음을 전할지 모르겠다.

다른 나라의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각국의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초일류 복지 국가인 스위스는 정상 등교를 하고 있고, 패권 국가인 미국은 형식적인 동영상 수업만 하고 있다. '와우~ BTS의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범유행 상황에서도 공교육의 학사일정을 유지하고 있는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 그 최전선에 우리 극한직업 선생님들께서 계신다. 오늘도 전국의 관객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계실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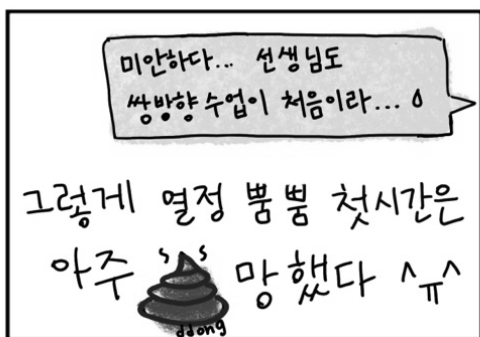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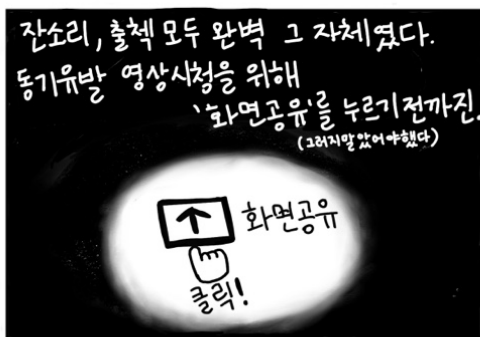
코로나-19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교육공동체 의 성장스토리

원격수업으로 만난 미래교육 이야기

V

그림으로 만나는 원격수업





이경서

은형님
9월 11일

2020 경기 문학수업 체험수기(월기) 양식

제목: 힘든 월간수업

힘든게 아니라 힘든데고 있고 친척 준비를 했다 학교로 갈 때는
8시 반에 집을 나서야 하는데 월간은 9시까지 해서 너무 늦다.
몸도 굶고 피곤해서 학교로 못가서 쉬었다 학교로 갔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쉬려고 거기까지도 해와 되서 너무 힘들고 지쳤다
수업이 시작되다 수업은 하다가 너무 심할 때 월간은 계속 계속
간단한 것이 되어서 보편적이다. 월간을 하면 끝에서 집중도 높이고
이해도 높아서 너무 좋다. 매월 월간에 월간이 너무 좋고
객관적으로도 힘들고 보편적이다. 매월 월간도 좋은 것은 거기
밖에 없다. 천재는 없다. 천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돈 밖에
월간은 이해할 수 없다. 학교로 가면 월간이 좋은 이해가 없다.
월간이란 보편적이어야 한다. 좋은 월간은 천재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
사실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조금은 한미 시간 안에 만들어야
또한 가능하다. 좋은 월간은 한미로 바뀌어야 한다. 다만 월간은 천재
사실상 보편적이다. 월간은 한미로 바뀌어야 한다. 월간은 천재가 아니라
좋은 월간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월간은 한미로 바뀌어야 한다. 월간은 천재가 아니라
월간이 아니다

은현초 4학년 최우진

중 제1호 - 교육인민지원 진위진

2020 경기 원격수업 재일수기(월)가 양식

제목: 원격수업을 하면서

난 원격수업을 하게 되면서 생각일과 너무도 많이 깨웠다
 집에서 줌으로 수업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때,
 선생님을 엄청 싫었는데 선생님이 대남을 만 하셔서
 대이리가 은소가 되었는데 알고있었다 그래서 친척들앞에
 노래도 부르고 소리 지르고 떠들면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유진아 뭐하니?" 라고 하셔서 너무
 창피했지만 애써 편함은 척 했다 그래서 난
 그 이후로 5~10분 마다 대이리와 카메라가 꺼져있거나
 휴면하는 버릇이 생겼다 어쨌든 토요일, 일요일에도
 내가 줌 수업에 들어가있는지 가끔씩 확인을 때도 있다
 나만 이런 경미한 일이 있는데도 당했는데 인터넷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델보다 더한 일들이 많았다
 아무튼 난 어떤일을 하든 원격수업보다 등교수업이 더
 좋을것 같다

은현초 6학년 한유진

여기는 전병도트리스코프
사제님이 나타나신
장남을
도치!
동생은 이리

우리나라 학생들이 아파서 고통받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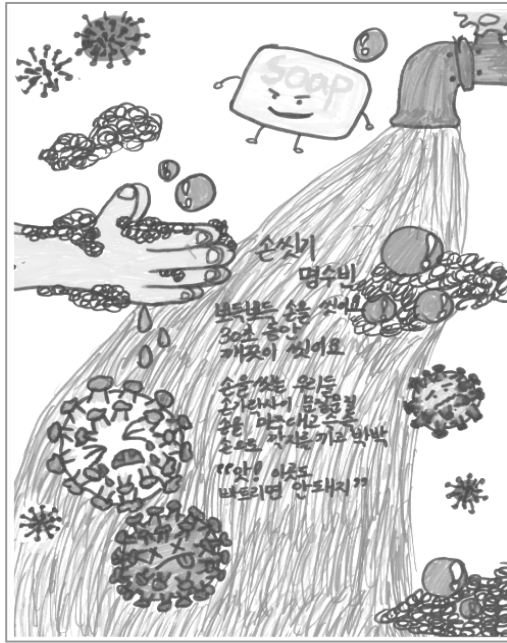
우리나라 학생들이 아파서 고통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아파서 고통받고 있어요

신흥초 5학년 박세정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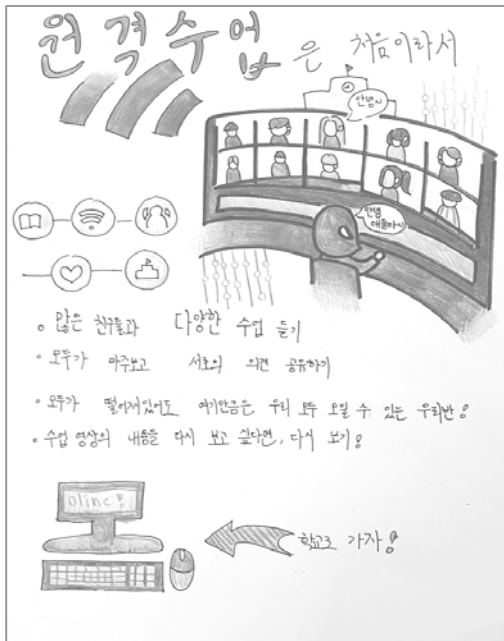
신흥초 5학년 박세정



신흥초 5학년 2반 명수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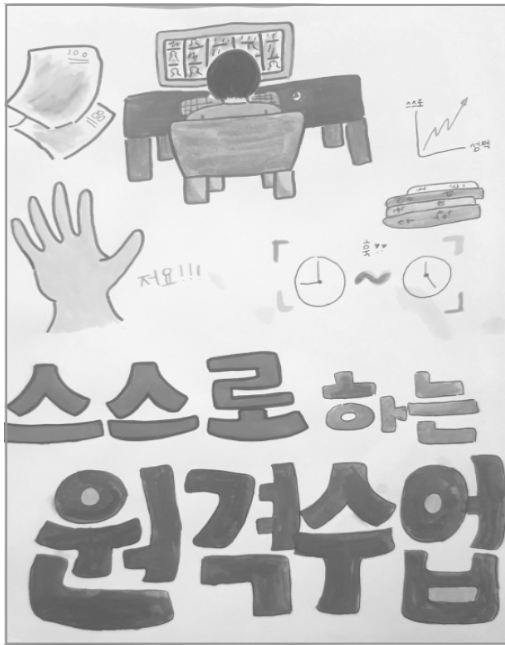
신흥초 5학년 2반 이정민



반송중 1학년 한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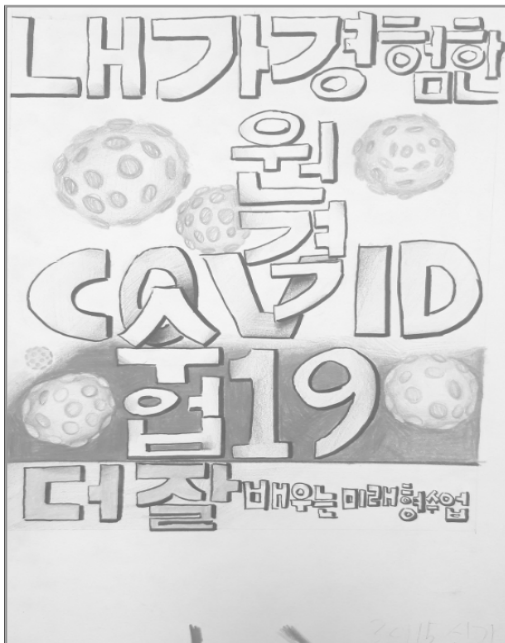
하성중 2학년 한민주



하성중 2학년 이정연



하성중 2학년 최혜원



하성중 3학년 신가원



통진고 2학년 신가인

코로나19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교육공동체의 성장스토리

원격수업으로 만난 미래교육 이야기

지도위원 : 백경녀 학교교육과정과장

조미경 중등교수학습기획담당 장학관

정미경 초등교육과정기획담당 장학관

기획위원 : 허은숙 중등교수학습기획담당 장학사

허은선 초등교육과정기획담당 장학사

발 행 일 : 2020년 12월 초판 발행

발 행 처 :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

코로나-19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교육공동체의 성장스토리

원격수업으로 만난 미래교육 이야기

